



7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7 호

(루게 561)



◆◆◆◆◆◆◆◆◆◆ 차 례 ◆◆◆◆◆◆◆◆◆◆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깊이있게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변혁을 일으키자	4
강철의 령장 김정일 원수	6
우리의 선언	7
7 월의 하늘	8
표창에 대한 이야기	16
혁명영화창작에로 이끄시여	17
명언	18
사랑의 일화	19
김정일 원수	22
인류의 위대한 령도자	22
려 명	23
전우들의 상봉	35
혁명시인 리찬과 그의 창작	36
세월이 벗어선곳에서	43
이름없는 산마루에서 (외 2 편)	44
명제해설	46

전승의 새벽이 밝아오는곳에서	47
빛나는 한세기	50
새로운 신화-불패의 힘	55
혁명의 미래는 어떻게 자랐는가.....	57
고향벌의 하늘	59
남산의 소나무와 더불어 푸르른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	60
력사의 그 봄날 (외 1 편).....	64
특색있는 시형상으로 노래한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	65
어머니의 마음	67
흰 운동화	68
영웅전사의 금별은 빛난다.....	76
을밀대	80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깊이있게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변혁을 일으키자

문학은 현실생활의 반영이다. 위대한 시대와 사변이 없이는 위대한 사상과 내용으로 충만된 작품이 나올수 없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류레없는 위대한 사변들과 격동적인 현실을 형상대상으로 하여 창작하는 특전을 누리고있다. 이에 있어서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생활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형상에 구현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지닌 가장 큰 영예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우리인민군대의 위력은 지금 우리 작가들의 창작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불패성은 중요하게 그것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혁명무력의 불패성에 달려있다. 자주성을 지향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강위력한 혁명군대를 가지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자랑은 없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문학이 혁명무력의 불패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문학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튼튼히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주체혁명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력과 높은 존엄은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그 어떤 천하대적도 쳐부실수있는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오랜 력사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오늘처럼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이 강화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탁월한 군사전략가, 걸출한 령장의 품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위대한 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이며 우리 문학이 격조높이 구가해야 할 위대한 사변이다.

문무를 겸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찍부터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시고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오시였으며 혁명무력건설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군술을 떠나서 우리 인민군대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 충성의 대오로, 그 어떤 원썬도 때려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는데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다. 혁명군대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그것은 현대적인 군사기술과 결합될 때 가장 높이 발양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을 철저히 앞세우시면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주체의 인간학인 우리 문학은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예술적인 해답을 준다. 우리 문학이 인민군대의 위력을 형상함에 있어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그 어떤 군사장비의 우월성이나 군사기술적우세를 표면적으로 보여줄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군대의 참다운 모습, 인간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민군대의 정치도덕적품모를 잘 그리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도덕적품모는 대단히 좋다. 전군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짙 차넘치고있으며 혁명적군풍이 튼튼히 확립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총폭탄이 되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해나갈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고있으며 군사임무수행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와 같이 자기의 최고사령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과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있으

며 언제 어떤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드림도 없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군풍이 철저히 확립된 무적의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있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정치도덕적품모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군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군무에 충실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참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서 관병일치, 당사일치의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는것은 그 정치사상적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미풍들을 중요한 주제분야로 설정하고 형상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작가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언제나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감동깊은 형상, 병사들이 자기 지휘관들을 친혈육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생동한 형상들을 창조하며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가 차넘치는 인민군장병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특별한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인민군대안의 모든 당원들이 군무생활에서 모범이 되어 사로청원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모습, 사로청원들이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고 당의 군건설 사상과 방침을 관철해나가는데서 불길이 되고있는 생동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오직 위대한 령장의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안에서만 발양될수 있는 숭고한 미풍을 형상적으로 강조하는데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문학에서 관병일치를 비롯한 미풍들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형상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이 주제분야의 인간학적풍격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품모가 집중적으로 발양되고있는 생활들을 깊이 파고들어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발양되고있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은 전민, 전군이 그 어떤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숭고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원천이며 혁명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여기에 또한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과시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문

학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한 군민일치사상을 더 활짝 꽃피워야 한다.

우리는 문학작품들에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 인민의 참된 아들딸들이라는것을 다양한 생활반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강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원호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형상적으로 반영함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품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보장하는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반영한 많은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사상미학적으로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는 이 주제분야의 작품이 많지 못하다. 여기에서도 특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무적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는 오늘의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 많지 못하다.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보여줌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절실한것은 현재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생활을 반영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고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끝없는 궁지와 자량을 안고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고있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인민군군인들의 현재생활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그 형상수준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아직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의 형상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이 주제분야의 작품이 제일 왕성하게 창작되고있는 시문학부문에서도 이렇다할 성과작이 나오지 못하고있으며 작가의 의도가 생경하게 로출되고 파분한 논리적해설이 그대로 드러나는 서정이 메마른 작품들이 여전히 자취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소설부문에서도 고상한 정치도덕적품모를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성격이 감명깊게 부각되지 못하고 작가의 설명과 논리적해설로 작품의 사상주제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실익은 형상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작가들이 이 주제분야의 작품창작에 뼈심을 들이지 않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다시말하여 당의 작가라는 높은 영예감과 자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작품을 더 잘 창작하는것은 당적작가의 숭고한 사명이며 문학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어느때보다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당적작가의 혁명적사명감에 맞게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문학창작으로 이바지

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작품에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해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격조높이 구가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강철의 령장 김정일원수

박호범

우리 인민의 절대의 의지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끝없는 환희였습니다

김정일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국은 인민의 목숨

민족의 운명이기에

우리는 **김정일**원수님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무궁한 래일을 맡기였습니다

백두의 붉은기를 피로 적시며

가슴의 붉은피로 땅을 적시며

투사들이 목숨으로 안아일으키고

인민들이 목숨으로 지켜 꽃피운

어머니 우리 조국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말자고

다시는 다시는

나라를 잃지 말자고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님께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을 맡기였습니다

하늘이 다 압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정치의 천품

군사의 천품

문무를 겸비하신 장군님의 그 위업을

우리의 국방은 일심단결의 국방

우리의 국방은 군민일치의 국방

우리의 국방은 자력강생의 국방

이 국방을 산악같이 일떠세우신

아, 영명하신 우리의 **김정일**장군

한번 웃으시면

온 나라에 인간미풍의 꽃을 피우시고

한번 분노하시면

천만대적도 얼어붙게 하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원수님이시여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의 국방은 금성철벽

우리의 사회주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뚝 솟아

승리만을 노래합니다

아이들이 붉은넥타이를 날립니다

어른들은 붉은기를 날립니다

무적의 강군이 도도히 굽이치고

마치와 닳과 붓의 대오가 나아가고

이 땅엔 일심단결의 대하가 흐릅니다

불패의 행진입니다

신념의 행진입니다

주체의 담력으로 시대를 헤치며

주체의 해빛을 누리에 뿌리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이 나아갑니다

아,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사회주의강국

신념의 강국

조선은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조선은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1994. 4. 8)

우리의 선언

변홍영

활기넘친 봄의 거리
푸르른 봄의 강반
그 어디를 걸어도 좋다
승리자의 크나큰 자부로
가슴이 터질듯 부풀어오르는
류다른 봄이다

그렇게도 모진 바람이 불어치고
그렇게도 원썬들이 화약내를 풍기건만
보아라, 이 땅우엔
인민이 창조하는 생활의 노래 더 높이 울리고
집집의 창가엔 행복의 웃음이 넘치는
우리의 봄이다
승리한 이해의 봄이다

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국방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준엄한 력사의 시련을 헤치며
우리 걸어온 자욱자욱
얼마나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것이나

조국앞에 겹쌓이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장군님 몸소 한몸으로 다 헤쳐주시여
하늘은 저리도 창창히 열리고
이 땅 한끝까지
환희로운 봄물결이 끝없이 설레누나

전쟁이나 평화나
민족의 생사를 건 첨예한 대결전이
몇차례나 벌어진 그 나날
조국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떠메시고
무수한 밤들을 지새워오신
우리 장군님

날마다 창문들을 물들이는
락원의 아침노을을 위해서도
먼 산촌의 봄이랑우에
씨앗을 묻는 처녀의 그 꿈을 위해서도
침략자의 야망을
결코 용서할수 없으신
우리 행복의 위대한 수호자

불에는 불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이 단호한 조선의 결심을 내리실 때
우리 보았다
제국주의의 멸망을 선고하시는
천하무적장군의 강철의 모습을

백두의 기상이 넘치는
그 무비의 담력
그 비범한 지략앞에선
《유일초대국》을 떠드는
오만한 백악관의 위세도
한갓 절벽에 부딪친 물거품

하여 우리의 가슴속에선
그이만 계시면 이긴다는
력사가 검증한 진리
오직 이 하나 든든한 신심이
뿌리깊은 산악처럼 자리잡았거니

장군님 계시는 한
원썬은 영원히
이 땅우에 만발하는 꽃 한송이도
결코 건드리지 못한다
이 푸른 강반에서 뛰노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서
찰랑이는 웃음을 앗아가지 못한다

선언하노니
분별없이 이 땅에 손을 대려는자들
우리의 풀 한포기라도 다친다면
그 순간이 최후의 순간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이시다!
이것이 장군님 명령하시면
육탄이 되어 결전으로 나아갈
조선의 신념이다!

오, 백전백승의 령장을
국방의 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은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들어도
영원히 허물수 없는 강국
우리는 오직 력사에
승리자로 남으리라!

(1994. 4. 8)

7 월의 하늘

조수희

1

은 수도의 시민들이 거리에 떨쳐나섰다. 넓은 길과 광장은 갑자기 좁아진 듯싶다. 북소리, 나팔소리, 고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군악소리가 높고 낮은 집들의 벽에 부딪치며 메아리친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손을 저으며 만세를 웨친다. 공화국기, 당기, 오색기가 7월의 푸른 하늘가에 기운차게 펄럭이는데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모두가 갖가지 꽃다발을 들었다.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꽃다발을 흔드니 광장은 온통 꽃천지다. 꽃다발, 꽃다발... 천지를 울리는 축포소리,...

환영의 꽃물결이 설레는 **김일성** 광장 주석단앞으로 조선인민군 열병대오가 보무당당히 지나가고 있었다.

인민무력부의 리대범중장은 격동의 파도속에 출령이는 수도의 거리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가슴이 들먹이고 빠근하게 안겨오는 흥분으로 하여 자기를 억제하기 힘들었다. 이 철의 대오를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로고를 생각하며 눈물짓는 시민들처럼 자기의 눈굽도 축축히 젖어들었다. 아니, 어쩌면 더 절절하고 뜨거운지 모른다. 왜서일까? 열병식참관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대장시절에는 직접 열병대오에 서 보기도 하였는데 오늘처럼 흥분되기는 처음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며 목청껏 만세를 웨치는 열병대오, 영광의 군기를 펄펄 날리며 주석단앞을 지나는려단장 서기수를 보자 이름할수 없는 흥분이 가슴그득 차올랐다. 어제날 맡겨진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늘 주눅이 들어있었다싶이한 그를 두고 자기는 《샌님》같은 사람이어서 지휘관으로서선 자질이 없다고 속단까지 했었는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병려단장으로 키워 오늘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돛경축열병식장에 내세워주신 것이다.

지축을 울리며 정보로 나가는 종대의 선두에서 주석단을 향해 승엄하게 손을 올리고 정중히 경례를 드리는 그를 보니 끝없이 흐르는 열병종대의 군관 한사람한사람을 무심히 보게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기억이란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리대범은 자기가 부대장을 하던 1974년 가을에 있었던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부대장 리대범은 아침부터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는 일마다 코코에 말썽이다. 그래서 섬고개 중대에 도착하자마자 찬물부터 한고뿌 마시고 십터 걸상에 주저앉았다. 달아오른 속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모자를 벗어 옆에 놓고 군복단추를 활 벗기었다. 소슬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가슴에 흘러들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한시간 남짓하게 걸어왔다. 어찌구무 없었다.

(고장이라고는 모르던 승용차까지 말썽이니...)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물며 앞을 바라보았다. 중대교양실앞에 세워놓은 구호판이 한눈에 안겨온다. 날아가는 《로켓트》 뒤로 활동처럼 뻗은 하얀 띠에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라는 구호를 써서 높이 솟은 다섯대의 철판에 고정시켰는데 철판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정치사상적준비》, 《육체적준비》, 《군사기술적준비》라는 글자를 엇갈아 새겨붙였다.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 속도전을 벌리자고 중대군인들과 토론하여 도안을 그렸고 자기가 직접 부대수리소를 동원하여 만들어다가 세워준 것이다. 사실상 저 구호판에는 중대가 높은 속도로 달리기를 바라는 리대범의 마음이 어려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 오늘 아침만 놓고보아도 전혀 뜻밖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부터 이들의 먹은물때문에 전화로 추궁을 받았다. 중대가 새로 그곳에 전개되었다는 것이라든가 레년에 없는 왕가물로 우물의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 등은 고려하지도 않았다.

남달리 사업범위가 큰 부부장이 어떻게 한개 중대의 물문제에 대하여 알고 그처럼 엄하게 추궁했을까?

리대범은 담배연기와 함께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힘이 들다. 다른 중대를 맡아 지도할 때는 중대장이 제기하는 것만 풀어주어도 일이 잘되었는데 이번에 맡은 일들은 출창 내려와 도와주는데도 꼬이기만 한다. 군관들과 병사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른 중대와 못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과업을 주면 잘 집행되지 않는다. 먹은물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군관개관리소 소장에게까지 이야기하여 양수기를 구해주었는데 가지려 가니 소장이 갑자기 출장

을 떠나서 못가져왔다고 한다. 그래서 인차 대책을 취하지 못했는데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또 어떻게 알고 자기가 직접 담당하고 지도하는 중대의 물문제 하나 풀지 못하는 부대장이 어떻게 부대전반의 군인생활을 돌보는지 리해되지 않는다고 추궁을 하는가?! 할말이 없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조건이 어떻게든 자기가 맡은 중대의 군인들에게 물도 풍족히 못먹이는 부대장이라는 자책이 무섭게 가슴을 쳤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주려고 80리가 넘는곳에 가서 양수기를 얻었고 저리 승용차에 싣고 떠났는데 중도에서 차가 고장난것이다. 그러나 일단 일을 벌려놓으면 끝장을 봐야 마음을 놓는 성미인지라 중대에 가서 먼저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려고 운전사에게 차가 수리되면 뒤따라오라고 한후 산을 넘고 지름길로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없는것이다. 이상하게도 이곳 중대와 관련된 일은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다른 중대와 다르다면 부대지휘부에서 지대적으로 제일 멀리 떨어진것뿐인데 그때문에 지시가 잘 집행되지 않을수야 없지 않는가? 더우기 지금은 온 나라가 《70일전투》로 들끓고있는데 이들도 무엇인가 혁신이 일어나야 할것이 아닌가? 부대장이 맡은 중대가 앓아몽갠다는 말을 들을수 없어 바쁜 시간을 조절하여 내려와 진지와 돼지우리를 잘 꾸려 시범상학을 조직하면서 내세워주기도 했고 병실을 꾸리라고 세멘트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새끼돼지까지 실어다주었다. 그런데도 중대는 전진하지 못하고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은 중대장 서기수에게 걸렸다. 해맑은 얼굴에 《샌님》처럼 조용한 성격인데다가 필요없이 타산만 앞세우니 자연 전진이 굼뎠지고 또 군인들도 중대장을 닮아간다. 그러니 중대가 들끓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자명한 리치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는 끝차는폐호공사는 언제까지 끝낼수 있을까? 중대장은 이달내로 한단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리대범은 생각에 잠겨 병실옆으로 들여다보이는 골짜기에 눈길을 보냈다. 조용했다.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얼른 달려가서 공사진행정형을 확인하고싶었다. 그러나 중대직일판에게 중대장을 찾아오라고 임무를 주었기에 마음을 누르며 기다렸다.

리대범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중대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훈련과 양수기공사, 끝차는폐호와 정비장건설, 식당난방보장과 기동로보수, 겨울용땀나무준비와 남새집수 그리고 김장... 전투근무를 서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해야 한다.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써야 할판이다.

무엇부터 어떻게 한다?

두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있는데 조용히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돌려보니 단정한 군

복차림에 몸이 호리호리한 서기수가 다가오며 인사를 했다.

《어데 갔댔소?》

리대범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이 물었다.

《겨울용땀나무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다가 차은폐호공사장에 있었습니다.》

《양수기설치때문에 내가 전화를 하여 집체훈련에 가있는 중대정찰수 두명을 불렀소.》

단추를 채우며 자리에서 일어난 리대범은 양수장과 물탱크위치를 먼저 확정하자면서 앞장에 서서 걸었다. 서기수는 말없이 따라왔다.

중대옆으로 흐르던, 바닥이 드러난 개울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예견했던대로 커다란 물웅덩이가 나타났다. 왕가물로 우물의 물까지 줄어드는데 여기는 물이 키가 넘게 고여있었다. 어찌나 물이 맑은지 아롱아롱 햇빛이 비치는 물속으로 어린애손바닥만한 산천어떼가 무리지어 물려다니는것이 보인다. 금시 손을 넣으면 잡힐것만 같았다.

《어떻소? 여기에 양수기를 놓아 물을 중대로 끌어가자는거요. 아마 이 물이면 실컷 쓰기도 남을거요. 물탱크는 식당뒤에 건설하고 이제 정찰수가 도착하면 기재로 거리와 높이, 소요되는 자재들을 계산하기요.》

서기수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런데 동무네가 물때문에 다른데 보고한게 있소?》

리대범은 아침부터 리해되지 않던 그 일을 중대장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상급지휘부에는 보고했습니다.》

《아니, 우리 부대관하는 말고!》

《없습니다.》

서기수는 자기도 뜻밖인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문뜩 생각되는것이 있는지 자신없는 목소리로 혹시 한 장령동지가 알수 있다고 하였다.

《장령동지?》

《나흘전 2포장동무랑 양수기를 가지러 갔다가오던 길에 상장동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큰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마주오면서 찾기에 달려가니 어디로 그렇게 바빠 가는가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가지러 군소재지에 갔다가 못가져오기때문에 부대장동지에게 보고하고 중대로 돌아가다보니 중대장에게서 받은 시간이 긴장하여 바빠 가는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속을 알아보고는 다른말없이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승용차는 어디에 있었다오?》

《자기네와 백미터정도 떨어져있었습니다. 상장동지도 별다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어서 가보라고 한후 인차 승용차에로 돌아갔답니다.》

리대범은 그 장령이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라고 생

각했다. 자기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양수기를 구해주었다는가고 물은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있었다. 그런데 왜 나홀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아침에 갑자기 료해할가? 이상했다. 군인들이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있었는데 우정 부르며 마주와서 만나보았다는것도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였다. 혹시 승용차에 또 다른분이 기다리고계신것이 아닐가?

(혹시?!)

순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금 도내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신다고 하던 련합부대장의 말이 떠올랐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리대범은 승용차에는 틀림없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였으며 바빠 가는 군인들을 발견하시고 무슨 일이 생긴것 같아 승용차를 세우셨으리라느것을 직감하였다. 그렇다면 물문제는 부부장뿐아니라 그이께서 심려하신 문제일수 있었다. 리대범은 급히 병실로 향했다.

직일병책상결에 놓인 전화기에 달려가 정찰수들이 떠났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때 서기수가 급히 다가오며 승용차 한대가 중대쪽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승용차가?》

그 어떤 예감이 안겨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리대범은 급히 모자를 바로 쓰며 서기수에게 빨리 병실을 돌아보라고 한후 군복설을 여미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2

승용차는 운동장가운데서 멈춰섰다. 인차 뒤문이 열리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내리시였다.

(이 멀고 외진 중대에 몸소 오시다니?)

뜨거운 격정속에 리대범은 끝작기가 쨍 울리게 《차렷》 구령을 치고 힘있게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수고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정히 미소하시며 병영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군인들은 다 어데 갔는가고 물으시였다.

《저 끝작기에서 차은폐호를 타고있습니다.》

리대범은 정중히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씀드렸다. 이때 승용차에서 관측기재를 가진 두명의 정찰수가 내렸다.

(아니, 이 동무들이 어떻게?)

리대범은 눈이 덩돌하여 그들을 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오다가 만나서 같이 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동무들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그들

을 바라보시며 어서 중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라고 하시였다. 두 병사는 심긋 웃으며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드리고 그이의 걸을 떠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멀어지는 그들에게서 눈길을 돌리시며 중대 주변을 빙 둘러보시였다.

《중대가 경치 좋은곳에 자리잡았습니다.》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으신 그이께서는 하얗게 회칠한 병실과 알뜰한 체육기재, 새로 지은 토끼사등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다가 교양실앞에 서있는 탑식구호관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저 구호관이 부대장동무가 새로 세워주었다는 겁니까?》

정찰수들에게서 들으신듯 그이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리대범은 어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만들었습니다. 형식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속도전을 벌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겠다는 군인들의 마음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정치사업은 저렇게 내용이 명백하고 설득력있게 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리대범의 마음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자기들의 적은 노력을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는데 대해 송구스러우면서 한편 그이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렸다는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힘들게 뛰어다니던 피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듯싶었다. 그와 함께 앞으로 더 중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어설픈 흔적을 말끔히 없애리라 마음다졌다.

가벼운 걸음으로 그이의 뒤를 따르는데 병실을 돌아보고난 서기수가 달려왔다.

《중대장동무입니다.》

리대범이 조용히 말씀드렸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중대장을 합니까?》

그이께서는 인사드리는 서기수의 손을 잡아주시며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작년 봄에 임명받았습니다.》

서기수는 자기에게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는데 감격하여 힘있게 대답했다.

《몇살이요?》

《스물다섯살입니다.》

《스물다섯살… 한창 패기가 넘쳐날 때요. 한개 중대를 이끌어나가자니 힘이 들지?… 얼굴이 다 까맣게 탔구만…》

그이께서 보물처럼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자 서기수의 두눈에는 맑은것이 고이였다. 속도 많이 태우고 힘도 들었다는 말없는 대답이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이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머리를 땃땃이 들지 못했다.

《중대를 꾸리자니 휴식도 제대로 못했을거요... 그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는 참가했소?》

《그렇습니다.》

《동무도 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직접 받았으니 잘 알겠지만 인민군대의 중대에 대한 수령님의 기대는 참으로 큼니다. 중대가 강해야 인민군전체가 강해진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웬일인지 병실에서 삼백여미터 떨어진 골짜기속의 밋밋한 등판을 유심히 바라보시었다.

《저 등판에 어떤 나무들이 자랍니까?》

서기수가 얼른 버드나무와 황철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며 병실과 앞산, 바깥 마른 개울가 등을 둘러보시다가 돼지우리뒤에 커다랗게 파제긴 웅덩이에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순간 리대범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가느스름한 눈시울 밑에서 두눈은 무엇인가 그냥 지나쳤으면 하는 기대가 어려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 걸음을 옮기시자 얼굴은 흐려지고 입술에서는 가볍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물이 바깥 마른, 고기가 한마리도 없는 양어장때문이었다. 중대의 흠집이어서 누구도 잘 가지않는곳이었다. 서기수는 벌써부터 머리를 숙이고 뒤를 따랐다. 침을 꿀꺽 삼키며 감정을 누르려고했지만 감실감실한 얼굴에서 실룩거리는 입술은 어쩔수 없었다. 코등엔 긴 주름살이 잡혀 초조한 빛이 어렸으며 이마에는 땀이 뽀질뽀질 내뿜었다.

《물이 다 빠졌구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땅을 파제끼고 빙 둘러 돌까지 쌓은 양어장쪽에 서시여 어지러운 검불만이 잔뜩 널린 바닥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시었다. 서기수는 죄송스러워 머리만 더 숙이었다.

《언제 봤습니까?》

《지난해 8월에 봤습니다.》

몸돌바를 모르며 괜히 두손만 만지작거리던 서기수가 꺼지는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리대범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끝내 이 양어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생각은 아프게 가슴을 쳤다...

이것은 서기수가 개울을 낀 중대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군인들에게 펄펄 뛰는 생선을 먹이겠다고 스스로 일감을 찾아 벌린 공사였다. 그때 일부 동무들은 물이 마른다고 했지만 서기수는 진흙다짐을 하면 일없다면서 완강히 집행해나갔다. 흥분으로 밤잠을 자지 않았고 양어못이 생기자 지체없이 수천마리의 새끼고기를 구해다넣었다.

뿌려주는 먹이를 찾아 구름처럼 몰려오는 새끼고

기를 볼 때 그의 가슴은 밝은 희망으로 설레었다.

그러나 가물철이 되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서기수는 비가 올 때까지 견지하려고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까지 보충했지만 급격히 줄어드는 물량은 종시 건잡지 못했다.

결국 흥분과 열정 속에 시작된 생선공급계획은 막대한 노력만 없애고 중대장은 엄격히 비판을 받는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자 서기수는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중대장이 이러하니 중대도 그전처럼 풀지 못했다. 서기수는 주접이 들었다. 구분대의 군관들이 자기를 비웃는것 같고 대원들조차도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것 같았다. 그들을 대하기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다시 일떠서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말썽없이 조심히 살아가는것이 상수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어째선지 이것이 그릇된 사업때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올수 없었다. 때문에 부대당 위원회에서는 부대장에게 중대를 담당지도할데 대한 분공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자 서기수는 인차 부대장에게 매달렸다. 자그마한 애로도 부대장에게 제기하여 해결받았고 그가 하라는대로 하였다. 그러나 육먹는 일도 없었고 사업성과도 있었다. 창발성을 내어 머리쓸 일도 없었다. 뭘 좀 자체로 착안하여 하려다가도 그 무엇이 뒤다리를 잡아당기는것 같아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곤했다. 그리고는 또 번민에 빠지곤하였다.

리대범은 이때부터 서기수를 탐탁하게 보지 않고 선비같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그래서인지 그가 하던 양어장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돌리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라버린 양어장을 보시고 가슴아파하시니 자신을 피롭게 후회하게 되는것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중대장이 아니라 자기가 양어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주었다면 물이 줄어들 때 틀림없이 양수기를 놓아주었을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양수기 한대 놓아주는것이 뭐가 되어 이 영광의 시각에 중대장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이께 심려를 끼쳐드렸단 말인가! 이상했다. 왜 지난 시기에는 이렇게 중대장의 잘못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리대범은 안타까와 저도 모르게 슬며시 옷설을 비틀어쥐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양수기만 놓으면 양어장도 살릴수 있습니다.》

리대범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그이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싶어 조용히 말씀드렸다.

3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병실과 식당, 포진지와

무기고, 심지어 남새저장고까지 돌아보시는 사이에 시간은 사정없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명의 군인들도 만나시었다. 중대직일관을 비롯한 병실계선의 동무들과 만나시여서는 세간엔 자식의 집을 찾아온 친정어머니처럼 생활문제를 보살펴주시었고 포진지에서 전투군무를 서는 포성원들을 만나시여서는 전투임무를 료해하시며 원수들이 덤벼들면 놈들을 불바다에 처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서기수에게 장가를 갔는가, 처녀는 지금 뭘하며 사진은 가지고있는가 등을 물으시며 즐겁게 웃으시기도 하셨다. 함께온 수행일군의 초조해하는 눈빛과 손목시계를 슬며시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 그이께서 매우 바쁜 시간을 내신듯한데 모든것을 잊으시고 중대의 곳곳을 빠짐없이 돌아보시었다.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그이께서는 교양실앞을 지나시다가 한쪽에 파랑계 뽕끼칠을 한 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며 물으시었다.

《독신군관침실입니다.》

리대범이 말씀드렸다.

《그럼 총각중대장이 생활하는곳이구만.》

그이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자 서기수는 얼른 출입문을 열어드리었다.

《살림살이구경을 좀 하세요.》

서기수가 대답대신 가볍게 웃음을 짓자 그이께서 성큼 방안에 들어서시었다. 후끈 더운 열기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창가에 놓인 꽃병에는 소담하게 핀 들국화가 가득히 꽃혀있고 책상우에는 연록색칠을 한 탁상시계가 놓여있었다. 깨끗이 정돈한 침구류와 벽에 걸린 군복과 훈련기재들, 한쪽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세계의 나무함통... 아늑하면서도 정연한 생활질서가 안겨왔다.

리대범은 마음이 놓이였다.

그이께서도 이만하면 독신군관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다고 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나 책상우에 놓인 중대장의 사업수첩을 집어드시는 순간 리대범은 가슴이 덜컥했다. 잉크와 원주필 그리고 연필로 기본이 내키는대로 쓴데다 책장이 보풀까지 일어 언젠가 몇장 보다가 그만둔 책이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무의자에 앉으시며 허물없이 한장씩 책장을 넘기시었다.

《공명주의? 소총명?!》

이렇게 쓴 페이지가 펼쳐졌다. 크게 쓴데다 만년필로 획을 긋고 또 그어 글자가 붓으로 쓴것처럼 싹하게 되었는데 그걸에 좀 작게 《양어장》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회의에서 양어장문제로 비판을 받으면서 잘 내려가지 않으니 무심히 자꾸 덧그은것 같다.

리대범은 상반년사업총화때 머리를 숙인채 까딱

하지 않고 앉아있던 서기수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또렷이 안겨왔다.

《젊은 동무들에게 《소총명》이라는 감투를 함부로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한번 목적인것을 위해 두려움도 모르고 달리는것이 청년들의 기질인데 좀 일을 하다가 잘못된것이 있다고 덮어놓고 감투를 씌워 몰아 빼리면 청년다운 패기와 양기가 없어집니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여 좀처럼 다음장을 넘기지 못하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결국 리대범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대범은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인민군대내 지휘성원들을 끝없이 아끼시는 숭고한 사랑이 가슴에 후텁게 안겨와 경건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기만 했다.

책에는 상급에서 받은 지시내용과 그 집행정형, 전투준비관정결과로부터 누구와 누가 언쟁하였다는것까지 별의별 내용이 다 적혀있었다. 심지어 자체로 작성한 중대의 전망계획도 있었다. 전망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해보자고 먹으로 테두리도 그리고 제목도 각글씨로 곱게 썼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절반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것마저 란잡하게 쓴 잡기장처럼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써서 얼룩덜룩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언제부터 세운것이며 왜 계획을 끝맺지 못했는가, 세우면서 다른 사람과 토론해본 일이 있는가 등을 물으시며 함께 방도를 찾아주시었다. 그러시다 리대범에게 우물을 파는것은 세번씩이나 썼다 지웠다고 하시며 중대장은 우물을 파겠다는데 부대장은 양수기를 놓아주겠다고 내려왔으니 어찌된 일인가고 물으시었다.

리대범은 얼굴이 핫핫 달아올랐다.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때문에 중대장이 제기하는 대로 지금 있는 우물을 확장이나 해서는 물량을 보장할수 없으며 더우기 차정비장과 은폐호까지 다 완성하려면 로력타산이 맞지 않아 자기가 중지시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군인들속에서 이곳 중대에는 중대장이 들이라더니 부대장동무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었다. 어딘가 부족점을 암시해주시는 말씀이었다. 무엇일까? 생각에 잠겨 곰곰히 따져보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차정비장과 은폐호를 파는데 나가보자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아니?...》

리대범은 입을 반쯤 벌린채 다물지 못하고 굳어졌다. 정비장까지는 자동차길이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달구지나 겨우 다니는 험한 길인데 어떻게 그이를 모신단 말인가. 무한계도차를 가지고있다고 자동차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은 자신을 호되게 나

무리였지만 당면한 현실은 너무도 절박했다. 리대범은 너무도 안타까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콧 울기라도 했으면 속이 좀 풀릴것 같았다. 그 심정도 모르고 수행인원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밖에 나서시자 얼른 승용차를 가져다대었다.

《길이 나빠 차로 가실수 없습니다.》

리대범은 어쩔수없이 외람된줄 알면서도 그이앞을 막아나섰다.

《그럼 걸어서 갑시다.》

그이께서 아무렇지도 않으신듯 범상히 말씀하시며 차걸을 지나시는데 수행인원이 다가서며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벌써 태양은 서산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골짜기속에서 찬바람이 터져나와 그이의 옷자락을 날리었다. 수행인원이 리대범에게 차로 갈수 있는데까지 가자면서 어서 차에 오르라고 눈짓했다. 리대범은 세워논 말뚝처럼 그대로 섰채 안타까움이 잠긴 눈만 그이께 보내었다.

《동무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금 매우 바쁘십니다. 빨리 움직이시오.》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던 수행인원이 기회가 생길지라 아예 툭 터놓으며 독촉했다. 승용차는 떠났다. 차정비장까지는 멀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벌써 멀리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만든 무한케도차를 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더니 차에서 내리시어 정비작업을 하는 운전사에게 차의 성능과 운전과정에 제기되는 내용들을 친근하게 물으시었다.

운전사는 너무도 뜻밖에 닥쳐온 영광을 이기지못해 벅글거리며 대답했다.

《어디나 뽕뽕 달리는 포차를 가지고있으니 도로관리를 안하는 모양이구만.》

그이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시자 운전사는 솔직히 말해서 도로때문에 기동에서 지장을 받은적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리대범은 기가막혀 입을 딱 벌렸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차은폐호공사장까지 가려면 길이 한심하여 걱정이 큰산같은데 자기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제흥에 겨워 큰소리까지 친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 배짱이 마음에 든다고 하신후 중대장을 바라보시며 큰길에서부터 중대로 들어오는 기동로를 번듯하게 정리하자면 얼마나 절릴것 같은가고 물으시었다.

《한주일이면 됩니다.》

서기수는 훈련하면서 무한케도차를 뚫다 몰면 초벌정리가 되는데 농장에 나가 밭 고르는데 쓰는 철로 된 고르개를 얻어다 끌면 기본로반을 제낄수 있다고 설명을 달았다.

《나머지는 배수로를 짜면서 정리하면 되겠구만.》

그이께서 장단을 쳐주시었다.

《그렇습니다. 본대별로 구간을 정하고 경쟁을 조직하면 하루이틀에 나머지부분을 와닥닥 해제낄수 있습니다.》

《대포를 다루는 중대장답습니다. 그런데 저 골짜기가 없다면 차를 어디에 은폐시키겠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깊은 골짜기를 손으로 가리키시며 물으시었다. 서기수는 잠시 생각에 잠겨 여기저기 두릿거리며 살피다가 모두 신통치 않은지 리대범에게 고개를 돌리고 묻듯이 바라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골짜기가 없으면 큰일날번했다고 하시며 즐겁게 웃으시다가 정비장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가리키시며 안되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지대가 협소한데다 산세가 급하여 비가 많이 내리면 위험할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리대범이 조용히 말씀드렸다.

《아니, 나는 중대장동무에게 물었습니다.… 중대장동무는 좁은 지대를 극복할 방도가 없소?》

그이께서는 다시 서기수에게 시선을 돌리시며 물으시었다.

《못해봤습니다.》

《해야 합니다. 명령을 무조건 접수하는것과 자기의 주견을 세우지 않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기 상관의 결심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모든 지휘관들은 자기대로의 방도를 찾아야 하며 가장 정확한 결심이 채택되도록 함께 사색해야 합니다.》

부대장동무는 미처 생각을 못한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처럼 포진지와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 은폐호를 파는것보다 저기가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되 정비장과 은폐호를 합쳐지어야 합니다. 갱도식으로 산턱을 파고 들이밀면 협소한 부지도 극복할수 있고 전투준비의 견지에서도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장과 은폐호를 합쳐지면 골짜기속으로 기동로를 뚫지 않아도 되니 로력과 자재도 적게 들것입니다.》

순간 리대범의 눈앞에는 섬광같은것이 번쩍했다. 갑자기 높은 산정에 올라선듯 앞이 탁 트이고 가슴이 시원했다. 부대관하 다른 중대들의 실패가동시에 눈앞에 나타나면서 그 부족점을 극복할 방도가 뚜렷이 나타났다.

《중대장동무 생각은 어떻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겸허하게 물으시었다. 서기수는 온몸에 힘을 주며 당장 옮기겠다고 하였다. 어쩐지 그 대답은 한생의 체험을 총화짓는것처럼 엄숙히 울리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없던 활기가 넘쳐났다.

리대범은 평범한 현실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대변에 포착하시고 기발한 방도를 제시해주시는 그이를 경탄어린 눈길로 우러르었다.

《좀더 들어가봅시다.》

그이께서 먼저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4

길은 험했다. 오랜 세월 누가 다니지 않아 새초가 엉키고 크고작은 흙채기들이 연방 나타났다. 승용차는 좀처럼 속도를 낼수 없었다.

리대범은 그이의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자기가 지체시키는것만 같아 마음이 송구스러웠다. 밤을 새워서라도 중대를 번뜻하게 꾸러놓겠으니 마음을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여 아무말도 못하고 차창밖을 내다보시는 그이만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승용차는 선자리에서 헛바퀴가 돌았다. 리대범은 얼른 내렸다. 풀이 우거져 잘 알리지 않는 길은 흙채기에 승용차바퀴가 땡공 들려있다. 빠져나오려고 요동을 쓸 때마다 시커먼 감탕이 승용차바퀴와 함께 양수기날개처럼 돌면서 사방에 흙탕을 뿌려했다.

모두가 차에서 내렸다. 운전사는 당황하여 혹시 다른 방도가 없을가 해서 태바퀴를 끌고루 살펴보았다. 어디에도 가망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이마에서는 기름같은 땀이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이 골짜기가 손님도 몰라보누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덤비지 말라고 깨우쳐주시듯이 즐겁게 웃으시며 차아래를 들여다보시었다. 마음이 급해진 수행인원은 얼른 뒤로 뽑자면서 먼저 차의 앞머리부분을 잡았다.

《그렇게 쉽게 빠질것 같지 않소.》

그이의 말씀에 리대범은 등이 달아 서기수에게 가서 중대군인들을 데려오라고 조용히 말하며 눈짓했다.

《군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끼리 합시다.》

언제 들으셨는지 그이께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시며 막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주변에 있는 마른새초를 모으시기 시작하셨다.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리대범은 그이의 앞을 막으며 닥치는대로 돌과 풀을 주어다 바퀴밑에 끌어넣었다. 모두가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뛰었다. 잠간사이에 경충 들렸던 바퀴밑은 돌과 풀로 가득찼다. 발동을 걸고 슬며시 바퀴를 움직여보니 차가 움썹거린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이께서는 뭘것 같다고 하시며 차를 잡으시었다.

《단번에 쭉 뽑읍시다.》

리대범은 신발끝을 땅에 짹 박고 온몸에 힘을 주었다.

《자- 하나, 둘-셋!》

그이께서 치는 구령에 맞추어 모두가 힘을 썼다. 미처 몸을 가눌사이도 없이 승용차는 쑥 빠졌다. 숨이 나갔다. 신발안에 감탕이 흘러들었지만 차를 따라 그대로 밀고나갔다. 안전하다고 믿어질때에야 차에서 떨어져 웅덩이속에 고인 물에 손을 씻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손에 묻으신 흙을 새초에 비비시고는 웅덩이에 찰랑찰랑 고인물에 손을 담그시었다.

《물이 차구만.》

환히 웃으시며 리대범에게 골짜기에 들어오니 정신이 거뜬해진다고 하시었다.

《중대군인들외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것 같습니다. 처녀지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중대장동무가 등판에 버드나무와 황철나무가 자란다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물이 맑고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기수에게 이 물을 써먹으려고 생각한적은 없는가고 물으시었다.

《어지러울것 같아서 별로 자세히...》

서기수는 계면적은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끝을 흐리었다.

《부대장동무가 양수기를 놓아주겠다니 〈만세〉만 부르게 아십니까?》

그이께서는 룡조로 물으시었다.

《그렇습니다. 개울에 양수기를 놓아 해결해주겠는데 공연히 일감을 벌렸다가 제대로 안되면 욕이나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그의 답변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서기수도 어린애처럼 싱글거리며 따라웃었다.

《그래 여기에 우물을 파고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좋은것 같습니다.》

《부대장동무생각은 어떻습니까?》

리대범은 그이께서 벌써 구체적인 타산을 하셨다는것을 직감하고 좋다고 말씀드렸다.

《여기에 파면 위생상 견지에서 물이 깨끗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병사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노력과 자재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형상 보아도 병실보다 높은곳이니 양수기를 쓰지 않고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얼마든지 끌어갈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물은 양어장에 돌립니다. 이 골짜기에 사철 마르지 않는 물웅덩이가 있다는것은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한곳에 우물을 파서 물량이 적으면 우물을 여러개 파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중대에 보내면 됩니다. 물량은 틀림없이 많을것입니다.》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며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

을 옮기시었다. 서기수는 그지없이 감격한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드디어 눈곱에 차오르던 눈물이 눈시울을 넘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죽지 부러진 수리개마냥 아무리 퍼덕이여도 날수 없었던 지나온 나날들이 꿈속처럼 눈앞으로 흘러가는지 저 멀리 푸른 창공을 바라보았다. 나라가 어깨에서 다시 소생되고 바야흐로 따뜻한 가을날에 퍼덕이듯이 어깨를 움썹거렸다.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고는 못견딜 충동에 사로잡혀 코를 벌름거리며 군인들이 일하는 꼴짜기속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부대장동무, 이 일을 우리가 개의치 말고 중대장동무에게 맡기는것이 어떻겠소? 내가 보건대 기수동무가 앞으로 일은 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수동무, 어서 가서 군인들과 집행방도를 토론해보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서기수는 가슴속에 차오른 감사의 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몰라 경모의 정 가득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됐소, 됐소! 어서 가보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벼이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시었다. 서기수는 힘차게 알았다고 대답하더니 어깨를 들썹거리며 뉘다뛰었다. 길이 험한 새초밭을 가로지르며 곧추 뛰다가 어느 나무그루터기에 걸렸는지 비칠거렸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쾅충거리며 달렸다. 그 모습을 정겹게 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즐겁게 웃으시었다.

《부대장동무가 그동안 중대를 도와주느라고 애를 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꼴짜기로 천천히 내려오시며 리대범에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중대를 도와주는것이 물자를 내려다주거나 중대장을 대신해주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광주리는 큰데 팔이 짧아서 제대로 안지 못하는 그에게 힘을 키워주어야지 대신 들어주면 부대장의 광주리는 누가 들겠습니까. 사업경험이 부족한 중대장의 일이 눈에 차지 않는다고 그를 제쳐놓고 혼자서 좌지우지할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고 생각을 띄워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양수기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중대장에게서 받고 못가져오게 되자 부대장에게 먼저 가서 보고를 하고 돌아가던 중대의 군인들을 잇을수가 없습니다. 병사들이 자기 지휘관을 믿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중대장을 끼고 배워준다면 이래저래라 임무만 줄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심을 내리고 하늘을 날수 있도록 나래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중대의 주인은 중대장입니다.》

정겹게 타일러주시는 그이의 말씀은 리대범의 가슴속에 세찬 충격을 주며 쿵! 하고 울렸다. 비로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자기때문에 바쁜 시간을 내시여 이 외진 초소에 오셨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중대에 돌아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걸리셨으면 우정 여기까지 찾아오셨겠는가! 그것도 모르고 중대에 무엇을 해주었다고 만족해하기까지 하였으니 과연 내가 우리 지휘성원들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마음을 만분의 하나라도 따르며 일했는가! 일하다가 결함을 범했다고 추궁만 하고 방도를 알려주며 이끌어주는것이 아니라 제쳐놓고 혼자 했으니 그가 어떻게 자립적으로 일할수 있었겠는가. 키워주지는 않고 나무라기만 하면서도 자기만이 애쓰는것처럼 생각했으니...

리대범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멀리 내려다보이는 중대병실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소중하게 안겨왔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이 몇시간동안에 자기가 그 어떤 거인처럼 자란것 같았다.

그때로부터 한시간후.

전사들과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폭풍같은 환호를 뒤에 남기시며 중대를 떠나시었다. 부대지휘부까지 함께 가자면서 리대범을 다시 곁에 앉혀주시었다.

금빛노을이 찬란히 비낀 저녁이었다. 승용차가 큰길에 접어들어 얼마쯤 달리니 풍요한 사과밭이 나타났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진 사과밭이었다.

리대범은 문득 사회주의조국땅에서 사는 수천수만의 인민들과 군인들의 모습이 알알이 익은 사과처럼 느껴졌다. 과연 주렁진 열매들이 은혜로운 대지의 자양분을 마시며 태양의 빛발속에 알알이 붉게 익듯이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넓은 품속에서 혁명의 주인으로 자라는것이 아닌가!

정녕 그렇다! 그이의 품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억세게 키워주는 혁명의 품이었다. 그품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래일은 더 창창한것이다!...

리대범은 크나큰 격정속에 잠겨 주석단을 우러러보았다. 군사의 영재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간부열병대오를 향하여 손을 높이 흔들어주시었다.

위대한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과 행복이 가슴터지게 안겨왔다.

그 마음을 담았는가. 7월의 푸른 하늘에서는 찬란한 해빛이 축복의 꽃보라인양 불쾌의 위용을 안고 흐르는 철의 대오우에 아낌없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표창에 대한 이야기

하늘도 땅도 불타던
가렬치절한 전화의 그날
전선가까운 비행장에선
성대한 영웅칭호수여식이 끝난지도
벌써 그 몇날

지휘소에서 울리는 집합나팔소리
영문모르는 전우들과 함께
영웅이 된 비행사 주인공도
회의장에 들어섰네

엄숙한 회의장
무슨 일로 모였을가
홍분된 가슴 진정못하며
비행사들 자리를 정돈했을 때

새로운 전투명령을 기다리듯
불타는 눈길들을 한몸에 받으며
연단에 나선 비행지휘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명령 정중히 전달하였네
-명령처벌!
영웅비행사 철혈동무를
3일간 출격시키지 말것

아, 앞가슴에 금별메달을 달고
축하의 꽃뭉음을 받은 날이 어제같은데
영웅비행사에게 내려진
명령처벌이여

꽃다발 안겨주던 기록수치녀들
아쉬운 마음안고
눈시울 적시고
명령을 전달하는 지휘관도
걱정이 솟구쳐 말끝을 못맺누나

불구름 몰아치는 하늘은
어서오라 슬기론 매들을 부르고

보복에 불타는 매들은
출격의 폭음을 울리고있건만

정말 뜻밖이었네
영웅도
비행사 전우들도
모두가 어리둥절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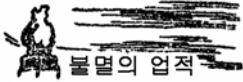
이때 천천히 말을 떼는
비행지휘관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비행규률을 어긴
오늘의 영웅을 처벌하시었음을
뜨겁게 말해주었네

어이 알았으랴
하늘의 《제왕》이라 자처하던
그 마지막 미국놈비행사를
아예 한줄기 연기로 흘날려버리려
규정을 어기고 땅가까이 내리꽂히며
사격단추 누르고누른것이
그만 처벌의 원인이 된것을

원주 백놈과도 바꿀수 없는
이 땅의 귀중한 비행사여서
아버이장군님께서
명령처벌을 주시였거니

눈물없이 안을수 없는
그것은 비행사를 극진히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만
전설처럼 태어난 《표창》이 아니던가

아, 그것은 진정
사랑이었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아버이 **김일성**장군님
그이께서만 주실수 있는 위대한 《표창》이었네



혁명영화창작으로 이끄시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영화를 창작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1994년 1월 31일, 한낮이 되어오면서 내리던 눈도 멎었다. 날씨가 한결 푸근한것으로 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층 활기를 띠였다. 대동강은 흰눈에 뒤덮여 커다란 은백색 벌판으로 되어버렸다.

문학예술의 영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신 수도의 한 회의실은 그이께서 하시는 강령적말씀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의 한없이 뜨거운 격정과 흥분으로 하여 숨넘은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련속편창작과 관련하여 배우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좌증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한동안 둘러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영화를 만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 순간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에는 1964년 12월 10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때가 되살아올랐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펼쳐지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작가들은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시던 초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느라니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어쩔수 없었다.

계속하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며 요즘 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못되게 나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언행을 계속한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우리 당이 튼튼하고 인민군대가 강하며 일심단결된 인민들과 당에 충실한 문예전사들을 가지고있는 한 조금도 무서울것이 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신심에 넘치시여 하시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에는 30년전인 12월 10일 그날에 하신 강령적말씀이 또다시 되새겨졌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랭전》의 검은 구름이 떠돌고있으며 어느 순간에 그 침략전쟁의 불꽃이 공화국북반부에까지 튀겨올지 모를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도 이런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내놓은 로선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수정주의가 류포되고있으며 그 날라리바람이 우리 인민들속에 전파될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압살하려하고 다른쪽에서는 수정주의자들의 비렬한 배신행위가 감행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대교체가 진행되여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앞에 제기하는 구호라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일심단결된 인민들과 당에 충실한 문예전사들을 가지고있는 한 조금도 무서울것이 없다는 크나큰 믿음을 주고계시지 않는가.

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속에는 새힘이 솟아올랐다.

주체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다. 또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아직 멀고먼 길을 걸어야 한다. 시대의 정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 세대들과 인민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높은 혁명정신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행하여나갈수 있지 않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임과 믿음, 기대는 더없이 큰데 새 세대들과 인민들의 사상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훌륭한 영화와 문학예술작품을 일관성있게 계속 창작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계속하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지

식인대회때에 우리 지식인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이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된 좋은 영화를 만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정신적양식을 주어야 한다고 또다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에 넘치신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은 끝없는 환희에 휩싸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운명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시대의 력사 앞에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혁명영화문학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생각은 더더욱 깊어졌다. 문학예술은 생동한 예술적화풍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수령형상에 바쳐진 새로운 혁명문학예술을 건설하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수령의 형상은 그 어떤 다른 형상으로써는 결코 대신할수 없는 강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령의 혁명사상을 심어 주고 위대한 품모를 따라배우게 하며 그들속에 열화같은 충성심을 키워주게 한다.

그렇다. 사람들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으로 키우자면 수령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도록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선차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이다.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새로운 신심과 열정, 투지를 안고 혁명영화문학작품창작에서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 마음속 결의를 굳게 다졌다.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



《인간의 첫째가는 속성이 자주성인것처럼 민족의 생존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원천도 자주성에 있다. 개별적인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민족을 이루는 대집단의 생활에 있어서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생존조건은 자주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가 항일혁명을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전으로 묘사하는것은 자주권의 부활이야말로 조선인민이 수십년동안 절절히 품어온 일차적숙망이였고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운 지상의 과제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해방투쟁의 총적목표라고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중에서

동지께서는 자애로운 사랑의 미소를 담으시고 작가, 예술인들을 바라보시며 앞으로 영화예술부문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창작사업을 끌고 나가는것과 함께 혁명영화창작사업도 놓치지 말고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기를 내어 좋은 혁명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무어라 말할수 없는 새힘이 솟구쳐올랐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중대한 사명과 작가, 예술인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령도자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혁명영화가 가지는 위치와 사명, 창작의 필요성을 이처럼 옹바르게 가르쳐주시적이 있었던가.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또다시 새로운 신심에 넘쳐 충성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가슴속 깊이에서 울리는 심장의 목소리를 합치였다.

우리는 당사상전선의 한부분을 맡고있는 문학예술건설의 전위기수이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문학예술의 생명 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혁명영화와 문학예술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할것이다!

이런 심장의 웨침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중대한 사명과 작가, 예술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나라에서만 올릴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력사적가르치심이 가지는 참다운 의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는 법이다.

혁명영화를 중단없이 계속 훌륭히 창작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말씀은 온갖 반동적이며 부르조아적인 반동문학예술을 제압하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승리를 확고히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리정표로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찬란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사랑의 일화

함경남도 단천돌광산에서 수도건설에 필요한 석재를 채취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중상을 당하여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중앙병원에 후송된 한 노동자의 병력서에는 이렇게 써여져있었다.

나이 26살

직업 노동자

진단 중증뇌좌상, 두개저골절, 기관지폐염
병력서라기보다 사실상의 사망진단서였다.

그런데 죽음의 계선에 들어섰던 그 노동자가 15일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병원의 책임일군은 그의 침상으로 찾아와 한장의 종이를 보여주었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져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에 따라 취한 비상조치

△환자후송에 동원된 운수기재

직승비행기 1대

대형려객기 1대

기타 구급차들

△환자치료와 후송에 동원된 기관

평양의학대학병원

단천시병원

조선인민군 항공구분대

평양민항

△환자치료를 위하여 무어진 의료집단의 구성

원사, 교수, 박사, 준박사 10여명

의사, 간호원 10여명

△환자치료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사향, 광폭항생제를 비롯한 고가약 72종

△환자에게 수혈한 피

5리터700그램 (사람의 몸에 5리터의 피가 있다.)

△딸라로 환산한 총 치료비

약 15만딸라

1984년에 남조선에서 수해가 났을 때 피뢰들의 애걸에 의해 미국과 일본이 수해민구제금으로 던져주었다는 돈이 도합 12만딸라였다.

한 노동자에게 돌려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서 15만딸라.

남조선수해민들에게 주었다는 미국과 일본의 구제금으로서 12만딸라.

이 얼마나 엄청난것인가.

병원의 책임일군은 어리둥절해하는 환자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는 이 종이에 기입된것만이 아니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무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군공군부대에 지시하시여 직승비행기를 띄우게 하시었는데 동무를 태운 직승기가 날아오다가 그만 예상외의 기상변동으로 더 비행하지 못하고 도중에 착륙하게 되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평양민항에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비행할수 있는 대형려객기를 동원하도록 긴급지시를 주시었소.

그런데 그날은 마침 5.1절 명절날이어서 비행사들과 승조원들은 모두 휴식하고 없었소. 그래서 말 그대로 비상조치를 취하여 산지사방에 흩어져 휴식하고있는 그들을 찾아 대형려객기를 띄워보내게 되었소. 정말 그것은 전시 비상소집과 같은 그런것이였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취해주신 이런 비상조치가 있었기때문에 동무는 구원될수 있었던것이요.》

그제서야 모든것을 알게 된 환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아직은 언어장애로 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기의 심정을 표현할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눈물밖에 없었다.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는 1988년에 있는 사실이다.

×

1989년 5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버모내기와 강냉이영양단지모 읍겨심기를 다그치고있는 황해북도의 한 농촌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바로 그 현지지도의 길에서 있는 일이다.

그날 포전들을 돌아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안내하던 현지의 한 일군은 점심참이 지나자 그의 식사준비때문에 마을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였는가고 하시며 집에서 떠날 때 승용차

에 간단히 꾸러가지고 온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아무데서나 식사를 하자고 하시며 그를 불드시였다.

따뜻한 봄날이라 날씨는 더없이 좋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방을 휘돌러보시다가 가까이에 있는 황주천기슭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잠시후 맑은 물이 흐르는 황주천가의 아늑한곳에 자리잡은 그이께서는 풀밭우에 종이를 펴놓으시였다.

식사가 차려지게 되었는데 식사라야 빵과 같은 한두가지 마른음식과 보온병의 물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금방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였다.

저 멀리 양수장쪽에서 기계돌아가는 소리가 바람길을 타고 간간히 들려왔다.

《저기 양수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는것을 보면 양수공들이 지금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잠전에 양수장을 지나시면서 고장난 양수기를 손질하고있는 사람들을 보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수고하는 동무들이 식사를 못하였는데 우리만 식사를 하니 안됐습니다. 그 동무들이 작업중에 있는 양수기를 운전하느라고 여기에 올수 없다면 거기서라도 식사를 할수 있도록 무엇을 좀 준비하여 가져다주어야 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종이우에 펴놓은것들을 한데 꾸리기 시작하시였다.

《아니...》

당황한 현지의 일군이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하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언제인가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식량이 떨어져 10여일동안이나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돌아온 한 인민군군관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동무에게 힘들 때 누구 생각이 제일먼저 나던가고 물으니 그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던 지휘관이 제일먼저 생각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것처럼 배고를 때는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던 사람들 생각이 제일먼저 나고 그다음에 부모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픈것과는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다 꾸린것을 그에게 안겨주시였다.

얼결에 그것을 받아안은 현지의 일군이 어찌할바를 몰라하자 그이께서는 어서 가져다주고 오라고 하시였다.

일군이 할수 없이 음식꾸레미를 안고 몇발자국

옮기는데 《가만》 하시며 그이께서 그를 멈춰세우시였다.

그가 돌아보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낸것이라면 먹지 못할수 있으니 내가 보낸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동무는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먹는것을 보고 오라고 이르시였다.

현지의 일군이 떠나가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허기진 때에는 맹물도 요기가 된다고 하시며 보온병의 물을 고뿌에 따라 수행원들에게 권하시고 나서 자신께서도 마시시였다. 그리하여 이날 점심 식사는 결국 맹물로 에운셈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이 나와 함께 다니자면 이따금 이런 일을 겪게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롱말을 던지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웃으시였으나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

평안남도의 어느 지방에 구두수리공일가가 살고 있었다. 해방전 13살때부터 구두닦기를 시작한 세대주와 그의 안해 그리고 네딸 모두가 구두수리소에서 일하고있는 가정이었다.

네딸들로 말하면 모두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하나같이 대학에 추천받았으나 부모의 뒤를 잇겠다고 자진하여 구두수리공이 된 꽃다운 처녀들이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네딸모두는 한구두수리소에서 누가 보건말건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돌봐주면서 말없이 일하고있었다.

그러던 1989년 1월 어느날이었다.

상급에서 찾는다는 기별을 받고 밖에 나갔던 세대주가 한동안이 지나 돌아오더니 안해에게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여보, 평양에 올라가라누만.》

《평양으로요? 출장갈 일이 생겼나요?》

《아니.》

《그럼 왜요?》

안해는 의아쩍어하였다.

《평양에 아주 이사를 가라누만.》

《예?!》

안해는 너무도 놀랐다.

부모들의 주교받는 말을 엿듣던 딸들도 제귀를 의심했다.

그러는 그들에게 세대주는 젓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글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공훈구두수리공의 명예칭호를 안겨주신 것만도 더없이 과분한 영광인데 오늘은 또 우리식구들이 평양에서 살면서 일하도록 불러주시었다지 않소. 그러구 우리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민을 위해 말없이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세상에 널리 소개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셨다 하지 않소. 나라없던 그 세월엔 〈구두쟁이〉라면 제일 비천한 인간으로서 천한 사람 취급을 받았소.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같은 구두수리공을 이렇게 사회와 사람들 앞에 높이 내세워주시니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의 눈에서도 안해와 딸들의 볼우에서도 뜨거운것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평양에 이사온 그들은 새로 일떠선 광복거리의 구두수리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그들의 보람찬 노동과 행복한 생활이 신문과 텔레비존, 화보에 크게 소개되어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

이것은 중앙기관의 한 일군이 체험한 이야기이다. 1982년 어느 명절날 아침이었다.

얼마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며칠전에 퇴원하여 집에서 안정하던 그 일군에게 전화가 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명절을 경축하는 국가연회장에서 찾으시니 빨리 가라는 전화였다.

그 일군은 영문도 모르고 연회장으로 갔다. 연회장에 들어서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몹시 반가와하시며 자신의 옆자리를 권하시였다.

《동무가 병원에서 퇴원은 하였지만 아직 얼굴에 병색이 남아있습니다. 며칠전에 병원에 전화로 알아보니 동무가 식사를 못한다고 하기때문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곁에 있는 일군을 보시고 내가 준비해두라고 한것을 가져오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가 나간후 얼마안있어 접대원이 웬 요리를 들고왔다.

《어서 식탁앞에 와서 앉아야 하겠습니까. 동무의 병을 치료하는데 좋다고 하는 요리도 일부러 만들어놓았는데 음식을 다 들어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리그릇을 그 일군의 앞에 놓아주시였다.

그 색다른 요리는 바로 상어지느러미요리였다.

상어지느러미요리로 말하면 중국의 최고급요리로서 그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수반들에게나 맛보인다는 진기한 요리였다.

언제인가 서방의 한 통신은 어느 한 큰나라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던 때에 그 요리를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 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은근히 원심을 꼬던중 정작 연회상에 그것이 오르니 너무 좋아 입이 귀릴까지 찢었다는 생활뒤면을 보도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진귀할뿐아니라 상대방의 품격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도 알려진 값진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요리를 받아안고보니 그 일군의 심정은 말할수 없이 뜨거웠다.

그가 목메여 말없이 앉아있자 《어서 드시오. 내가 보는데서...》 하고 다정히 말씀하시면서 거듭 권하시였다.

그 일군은 감사에 겨운 눈물과 함께 요리를 들었다. 그 어떤 음식도 몇순가락 뜨지 못하던 그가 요리그릇을 다 비우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동무가 살았습니다. 동무의 병은 완치될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여간 기뻐하지 않으시였다.

이런 일이 있은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가 식욕이 완전히 회복되는 전기간 그에게 매끼 상어지느러미요리를 보장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

우리 인민들과 일군들이 전하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세상에는 유명한 《천하루밤의 이야기》가 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사랑의 일화들을 하루밤에 한가지씩 야화로 옮기자면 아마도 천하루밤이 아니라 만하루밤을 가지고도 모자랄것이다!

김정일원수

제임스 비쏘비에

일제격멸의 총포성속에서
탄생하신 동방의 태양 **김정일**원수
혁명가들의 앞길 밝혀주시는
젊으신 령도자
작가이시고 철학가이시고
박사이신
조선혁명의 탁월한 령도자
김정일원수
그이는 천재
인민무력의 최고사령관

사회적 진보의 고무자
그이의 명성은 우리의 기쁨
주체사상의 발전풍부화를 위하여
진보적인류의 자주와 미래를 위하여
김정일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는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부위원장임)

인류의 위대한 령도자

나까하라 사유리

20세기초에 태어난
근로하는 사람들의 사회
사회주의를 위하여
세계의 노동자들은 투쟁의 목표를 알았노라

허나 21세기를 앞둔 오늘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의
사회주의 붕괴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절망도 하고
살길 찾아 방황도 하노라

민중사랑의 정신이 굳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김정일비서께서 진두에 서계시는 나라

조선의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된 사회
인류리상이 실현된 사회

김정일비서의 저작연구회
우리도 비서의 뜻을 쫓피워
사랑과 믿음의 사회정치적생명체 꾸려가리라
세계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비서의 령도따라
일본의 새 미래사회 앞당겨오리라

(필자는 일본의 **김일성**주의연구회 회원임)

려명

장동일

1

중강의 객주집은 객주집치고 그리 붐비는 집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살길을 찾아 압록강을 건너 만주땅으로 들어가는 이주민들이 한숨속에 하루밤씩 묵어갔고 아편장사거간꾼들이 밤새껏 바둑을 두며 술추렴을 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했다. 그 수가 날을 따라 늘어가더니 올해 음력설이 지나서부터는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손님들을 치르어야 했다. 이렇게 되자 객주집주인은 하루종일 땀이처럼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날 해질녘에 히어멀쑥한 얼굴에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말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수레에는 새초를 넣은 마대가 실려있었다. 그는 저녁을 부락한 다음 마구간에 말을 매고 마대안에서 잘게 썬 새초를 꺼내어 말구유에 쏟아준 다음 묵묵히 저녁밥을 먹자마자 자리에 누웠다.

이튿날 아침에도 그는 어제저녁처럼 말에게 먹이를 준 다음 아침밥을 먹었다. 그리고나서 그는 토방에 쭈그리고앉아서 담배불을 붙여물고 먼 남쪽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거동을 유심히 살피고있던 객주집주인이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사나이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제야 사나이는 상념에서 깨어난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땅바닥에 던진 담배불을 발바닥으로 비벼끈 다음 공손히 대답했다.

《나두 북간도로 가는 길입니다.》

《요새는 북간도로 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니까. 그래 젊은이 고향은 어디요?》

《평안북도 정주오산이올시다.》

《음-거 이름있는 고장이로군.》

《예, 괜찮은 고장이지요.》

《그런데 왜 고향을 버리구 떠났소?》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시다.》 하고 그는 짝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 어쩐지 생각이 많아보이더라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소?》

《스물다섯입니다.》

《거 나이에 비해 썩 숙성해보이는구만. 그럼 색시가 있겠는데 왜 이렇게 혼자서 먼길을 떠났소?》

사나이는 객주집주인을 부리부리한 눈길로 마뜩지 않게 돌아다보았다.

《거 주인님 너무 친절하게 물으시는구만요.》

그러자 객주집주인은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었구나 하고 몹시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

《이거 안됐소. 버릇이 돼놔서... 좌우간 이름이나 압시다. 요새 숙박계검열을 자주 나온다우.》

《강세진입니다.》

《이름두 좋구만. 그래 임자는 이제 어떻게 하려우?》

《요즈음 북간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선량한 나그네나 만나면 길동무삼아 떠나봐요지요.》

《지금세월에 어디 선량한 나그네가 있겠나? 그저 제 너편네가 제일이지.》 하고 무릎을 꿇고 일어난 객주집주인은 방으로 들어갔다.

강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짚었다. 객주집주인이 꼬치꼬치 묻는 말에 일일이 대답을 하고나니 또다시 마음이 산란해지면서 손귀옥의 얼굴이 선히 떠오른다. 손귀옥은 세진에게 있어서 예나제나 희망의 전부였으며 사랑의 별이었다.

세진은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했고 일찌기 학문에 눈을 뒀다. 마을로인들은 세진이가 남달리 총명한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강규설을 닮았기때문이라고들 말했다. 강규설은 궁중에서 정5품벼슬을 했었는데 원래 대바른 성미여서 대감들앞에서도 비위에 거슬리면 바른말을 서슴지 아니하여 그들의 눈밖에 나 락향하여 고을원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한일합병》의 비통한 소식이 전해지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온 나라가 잠못들던 바로 그날밤에 대들보에 목매달아 순국하였다. 그는 순국하기전에 손자인 세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인재가 되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였다. 하여 강세진은 정주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배재학당에 입학하였다. 그의 가슴에서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큰일을 하리라는 포부가 소용돌이쳤다.

그러나 독립만세의 메아리로 삼천리강산이 진감하던 3.1인민봉기가 실패로 끝나게 되자 세진은 더는 참아낼수가 없어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서울배재학당의 교문을 뛰쳐나오고말았다. 것처럼 온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아무리 큰 포부를 지니고 열심히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고향으로 내려온 강세진은 수정천기슭의 백양나무밑으로 갔다. 백양나무밑에서는 이미 전보를 받

은 손귀옥이가 흰 저고리에 잠장치마를 받쳐입고 기다리고있었다. 동창시절에도 그들은 이 백양나무 밑에서 거의 매일과 같이 만났다. 세진은 개명한 유학자의 말팔로서 살결이 희고 몸매가 고운 손귀옥을 어느 하루도 잊은적이 없었다.

세진은 자기가 어찌하여 학업을 단념하고 교문을 나서 북행렬차를 타게 되었는가를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손귀옥은 후들거리는 세진의 두손을 꼭 잡아쥐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진씨 마음을 진정하세요. 조선의 남아답게 할 아버지의 유언대로 열심히 배워 조선독립의 성업에 이바지하는 큰 인물이 되겠다고 고향을 떠난 세진씨가 어찌면 그렇게도 쉽게 주저앉을수가 있어요? 나는 학창시절부터 신념이 강한 세진씨를 사랑해왔지 이처럼 나약한 세진씨를 사랑해오지 않았어요. 세진씨,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내라구? 민중은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에 잠겨있고 조선의 애국자들은 차디찬 감방에서 죽어가고있소. 왜놈의 군화발에 짓밟힌 조선사람들은 지금 숨조차 바로 쉬지 못하고있는데 누구를 믿고 기운을 내란 말이요?!》

손귀옥은 입을 열지 않고 생각에 잠기었다. 그윽한 눈길로 수정천의 거센 흐름을 주시하던 그는 이윽고 세진의 얼굴을 톡톡히 쳐다보며 말했다.

《세진씨, 세진씨가 서울로 올라가신후 평양 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라는 반일지하조직이 무어졌어요. 이 조직은 평양승실중학교를 다니신바 있는 김형직선생님이라고 하는 뛰어난분이 조직하시였습니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조직이랍니다.》

여기서 잠시 말을 중단한 손귀옥은 믿음이 어린 눈길로 세진을 마주보다가 계속했다.

《조선국민회는 그 산하에 학교계나 비석계 그리고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을 각지에 두었는데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최근에 급변하는 정세에 맞게 국내는 물론 중국동북지방에까지 활동무대를 넓혀나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부터 한 독립운동자의 주선으로 향토계에 자주 나가군한답니다. 세진씨! 세진씨도 저와 함께 향토계에 나가자요. 네?!》

《?...》

강세진은 커다란 두눈을 껌벅일뿐 대답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젖고나서 귀옥에게 물었다.

《그래 귀옥썬 그 김형직선생님을 만나뵈운적이 있소?》

《아직 만나뵈지는 못했어요.》

《그럼 한가지 더 묻지요. 귀옥씨 생각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하시었다는 조선국민회가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구 생각하우?》

《저는 전체 조선민족이 단합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싸운다는것이 마음에 들어요.그렇기때문에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로선을 따르면 목적을 이룩할수 있다구봐요!》

《?...》

세진은 가냘퍼보이고 아릿답게만 보이던 이 녀자의 가슴속에 어느새 저런 신념이 깃들기 시작했을가 하고 귀옥을 유심히 여겨보다가 허구프게 웃어버렸다. 그는 귀옥에게 진지한 어조로 타이르듯 력설했다.

《귀옥씨, 하지만 이 강세진이가 아주 주저앉아버린건 아니요. 요즈음 돌아가는 소문을 들으니 중국상해로 조선을 독립할 큰뜻을 품은 우국지사들이 모여든다구 하더구만. 우리 함께 상해로 가서 그들을 만나봅시다. 난 귀옥씨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소! 그대는 나의 희망이며 별이요! 내 부모님들한테 말하여 로자도 푼푼히 마련할테니 래일이라도 당장 함께 떠납시다!》 하며 세진은 어느새 귀옥의 두손을 잡아 자기의 널뛰듯하는 심장앞으로 끌어당기였다.

《?...》

이번에는 손귀옥이 세진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마주보다가 그의 손아귀에서 자기의 손을 천천히 빼내었다.

《세진씨, 세진씨는 변했어요!...》

《변했소... 이 땅의 유명무명의 충신들이 망국의 한을 참지 못해 스스로 자결의 길을 택하는 목하 시국에 그 어느 우국지사인들 타락하지 않을수 있겠소!》

《뭘라구요??... 이제는 세진씨의 속심을 알만해요. 당신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믿고 사랑해오다니... 분해요! 억울해요!... 이제는 우리의 길이 서로 달라졌으니 세진씨는 자기의 결심대로 갈곳으로 가라요.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겠어요!》

맴맴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마친 손귀옥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버들숲이 우거진 어둠속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그러나 세진은 손귀옥이 말처럼 단호하게 행동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다음날에도 또 다음날에도 손귀옥의 향취가 깃든 백양나무아래로 나왔다. 그러나 이처럼 보고싶은 손귀옥의 모습은 더는 찾아볼수가 없었다.

사흘동안 울분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강세진은 손귀옥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찌서인지 선뜻 자기 딸의 행처를 입밖에 내지 않았다. 세진이 동가슴을 두드리며 사위될 사람도 못믿겠느냐고 하소연을 해서야 귀옥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장백현에 살고있는 제 외삼촌댁에 갔다고 귀속말로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강세진은 자기의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귀옥이를 돌려세워 상해에로의 길에 오르기 위하여 중강의 객주집까지 와닿게 되었다.

2

이튿날아침 강세진은 늦게 잠을 잤다.

그는 먼저 마구간부터 들렀다. 이번의 어려운 북행길을 떠날 때 생사를 같이하자고 약속한 밤색 암말을 세진은 자나깨나 잊은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밤색 암말이 벌써 아침여물을 맛있게 먹고있었다. 언저시 넘겨다보니 김이 문문 나는 여물은 세진이가 말수레에 싣고 떠난 마른 새초에는 비할수없이 좋은 밀과 대두박이 섞인것이였다.

(이상한데?... 누가 남의 말한테 벌써 이렇게 좋은 먹이를 주었을까?)

마구간을 나서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강세진은 마당을 쓸고있는 한 의젓한분앞에서 그만 발걸음을 더 옮길수가 없었다. 눈처럼 희고 정갈한 무명바지 저고리에 대님까지 단정히 맨걸 보면 이분은 벌써 이른새벽에 기침하여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몸단장을 하신것 같았다. 단정히 빗어넘긴 윤기나는 머리아래 넓고 시원한 이마며 진한 눈썹밑에서는 선량해보이는 눈동자가 그윽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리고 선이 끝은 코마루며 가볍게 다무신 입술이며 그 모든 이목구비들은 희고 부드러운 얼굴에 하나와 같이 정갈하게 어울려 신선을 보듯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시켜주었다. 마치도 방금 천궁에서 내려오신듯한 단아하고 청신한 그이의 모습은 꽤볼처럼 환해보였다.

줄곧 발치앞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비질을 하던 그분께서 인격을 느끼고 그제야 허리를 펴며 이쪽을 돌아다보시였다.

《아- 이제야 일어났구만, 말이 배고파하기에 내 여물을 좀 주었소. 주인의 마음에 들겠는지?》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는 어버이인양 다정한 어조이시였다.

《초면의 어른장계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강세진은 그분앞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수고는 무슨 수고이겠소. 피가 뛰는 젊은 시절엔 늦잠을 자기가 일쑤이라오. 객주집주인한테서 들으니 어려운 초행길에 나섰다구 하더군요만.》

《말씀을 낮추십시오. 저는 북간도길이 처음이라 선생님 같으신 길손을 만난다면 저도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리면서 초행길을 헤쳐갈 결심입니다.》

강세진은 점잖고 선량해보이는 초면의 어른께 새벽부터 신세를 진것이 고마왔고 또 이런분과 함께 초행길을 가고싶은 소망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드

렸다.

아침식사를 마치자 그분께서는 《동아일보》를 보시였다. 아마 여러날 밀렸던것인지 그이의 앞에는 여러장의 신문이 겹쌓여있었다.

신문을 다 보시고난 그분께서는 객주집주인과 마주앉아 한식경이나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세진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에 은근히 구미가 동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리잡은 방은 워낙 양지바르고 안침한 동남쪽끝방이여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도저히 가늠할수가 없었다. 보아하니 객주집주인이 그분을 특별히 모시는것 같았다.

그런데 한낮해가 기울어지고 저녁녘이 가까와오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 둘 사람들이 객주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중에는 망태기에 도끼와 톱을 넣어 진 초부도 있었고 목판을 가슴앞에 드리우고 공중에다 가위를 철컹거리는 엇장사도 있었다. 그들은 오는죽죽 객주집주인의 안내를 받아 그분의 방으로 들어가 무슨 이야기나 오래동안 주고받다가 떠나가곤했는데 그때마다 그분께서 친히 나와 배래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루밤도 재우지 못하고 떠나보내는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어 췌기밥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안겨주며 무슨 간곡한 말씀을 해주고나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때까지 오래도록 서계시는것이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데론가 자취를 감추었던 객주집주인이 급한 걸음으로 나타나더니 그분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강세진은 낮에 한 객주집주인의 부탁대로 그분께서 계시는 방에 불을 때느라고 부엌웅덩이에 쭈그리고 앉아있었으므로 방에서 주고받는 목소리를 들을수가 있었다.

《선생님, 제 방금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을 보고 오는 길인데 거기에는 벌써 선생님의 이름이 있고 그밑에 빨간줄까지 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일을 저한테 맡기고 선생님께서는 빨리 자리를 뜨셔야 할것 같습니다.》

객주집주인의 목소리였다.

잠시후 그분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리였다.

《내 이름밑에 빨간줄까지 그어놓았다? 허허... 이 김형직이를 어디에 가나 일본놈들이 지켜주는군, 난 이미 각오했으니 그 빨간줄때문에 겁나할건 없습니다.》

《?!...》

강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울렁거리였다.

(바루 이분이 김형직선생님이시란 말인가!!... 단아하고 깨끗하며 의젓하신 그 모습을 보면 지체 높은 학자같으시고 소박하고 따뜻한 인정미를 보면 못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푸시는 귀인같아보이는 저분께서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겠다고 나선 선각자이시란 말인가?...)

잠시후에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마침 잘되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되었던 동지들을 다 만나보았으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제가 얼른 마을에 내려가서 말수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객주집주인과 의견을 달리하시였다.

《이제 언제 마을까지 먼길을 다녀오겠습니까. 마침 오늘새벽에 마당가에서 만난 젊은이가 내보기엔 혼자서 초행길에 나선것 같은데 내가 그의 길동무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 객주집주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서 그다음엔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아- 그러니 당신두 손님만 치르는 객주집주인이 아니라 김형직선생님을 보좌하는 독립운동자였구나. 그러구 《초부》이며 《옛장사》며 어제밤에 찾아왔던 《손님》들도 모두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조직원들이 었구나.)

강세진은 조선국민회의 산하에 향토계를 비롯한 여러 조직망들이 각지에 있고 거기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는 손귀옥의 말을 상기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세진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김형직선생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다 색안경을 끼고보면 각계각층 민중이 일치단합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자는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를 믿어봅시다!》

그다음 객주집주인의 목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

강세진은 인자하고 뜨거우신가 하면 그가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대담하게 믿고 조선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내세워주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넓은 포용력에 커다란 충동을 받았다.

3

김형직선생님께서 압록강을 건느시는날 아침에도 술가하여 만주땅으로 넘어가는 이주민들이 많았다. 그이께서 평양감옥에서 나오신 다음 활동무대를 옮기기 위해 이 강을 넘으신바 있으시였지만 오늘날따라 피나리보짐과 개다리소반을 지고이고 정든 고향을 하직하는 남녀로소의 행렬이 아프게 가슴을 허비며 내리는것 같으시였다.

강세진은 김형직선생님을 모시고 남보다 먼저 무사히 강을 건너 대안에 닿았으나 (객주집주인이 미리 주선을 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엄격히 검속을

당하였다. 이날따라 평안북도경찰부에서 압록강연안의 국경순찰을 맡아본다는 순찰대장이 중덕나루에 나타나 허세를 부리며 돌아갔다. 작달막한 키에 이마가 좁은데다 코밑에 팔자수염까지 기른 이자는 정치인들 단속보다 마약가간꾼들이나 장사군들을 잡아죽쳐서 금전과 퇴물을 받아먹는데 이골이 난자였다.

이자한테 경기도 파주에서 들어온다는 한 로인의 일가가 걸려들었다. 로인의 일가는 10여명을 넘는 대가정이였는데 로인자신은 물론이고 로친네로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애들에 이르기까지 이불보짐과 함지박이며 바가지짜까지 이고지고 늘어선 모양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순찰대장이라는자는 오늘날따라 장사군을 붙잡지 못했는지 이 로인의 앞길을 막아서서 도강사례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트짐을 걸고늘어졌다.

《도강사례금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하고 로인이 반문했다.

《야 이놈의 두상, 면에서 면을 옮기구 호적등본을 하는데두 사례금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하물며 온 식구가 한나라 지경을 넘어가는데 이 도강순찰대장한테 코아래진상도 안할테냐?》

놈은 크고작은 보짐들을 결눈질해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로인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이발이 다 빠진 입을 하-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개탄했다.

《여보시오 순사나리, 조선속담에 동냥은 주지 못 할망정 쪽박은 깨지말라구 했수다. 털면 먼지밖에 없는 이 가난뱅이식솔들한테 동전 한알 부조해주지 못 할망정 도대체 무슨 퇴물을 바치라우? 아- 하느님두 무심하지. 저런 불한당놈들이 활개를 치니 이 나라 백의민족을 어떻게 건질고?!…》

《뭐, 뭐-라구? 불한당이 활개를 친다구? 에이, 이놈의 두상태기…》 하고 순찰대장놈은 칼집에서 칼을 쭉-뽑았는데 어째서인지 채 뽑아내지 못한 칼 손잡이를 틀어쥔 손을 후들후들 떨다가 비명인듯한 목소리로 소레기를 질렀다.

《야! 뭘 덩청하니 보고만 서있는거야? 저 두상태기한테 이 순찰대장의 맛을 보여라!》

그러자 옆에 서있던 두놈의 순찰병이 일시에 달려들어 총탁으로 로인을 내리치고 발길로 걷어찼다.

로인은 이미전에 피를 흘리며 돌자갈밭에 쓰러졌다. 그는 피묻은 손바닥을 허공에 뻗치며 항거하였다.

《이, 이 짐승만두 못한 악귀같은놈들아아-!》

《웁-다! 네놈의 두상태기 제명에 죽지 못해그러는것 같은데 내 편안히 저승에 보내주지!》

악문 이발새로 이렇게 내어뻘은 순찰대장놈은 어느새 칼집에서 뽑아든 장도를 공중높이 추켜들었다.

바로 이때 김형직선생님께서 순찰대장앞을 막아서시였다.

《당신은 누구요??》

그자는 온몸을 경풍을 만난놈처럼 부들부들 떨며 두눈을 치켰다.

《내 대답을 할테니 우선 그 칼을 내리우시오!》

김형직선생님께서 그자의 두눈을 붙이 펄펄 이는 눈길로 마주 쏘아보시었다.

그자는 팔자수염을 실룩거리더니 천천히 칼집에 칼을 꽂아넣었다.

그제야 김형직선생님께서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주시며 대답하시었다.

《나도 저 로인처럼 정든 고향을 등지고 북간도로 건너가는 조선사람이요!》

《?...》

회색두루마기자락을 압록강바람에 날리며 거연히 서계시는 비분강개한 김형직선생님의 위엄앞에서 놈들은 기겁을 하여 한걸음 두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번에는 내가 물겠소.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찌르는듯한 그이의 날카로운 물으심에 그자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보았다.

《대답하시오.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이께서는 재차 독촉하시자 순찰대장이라는자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조...조선사람입니다.》

《그렇소! 당신두 조선사람이고 나두 조선사람이요. 비록 사대매국노들의 아부굴종과 일제침략자들에 의해 나라가 망했지만 민족의 얼은 빼앗기우지 말아야 하오. 보시오.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저 로인의 가슴속에도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고있지 않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왜놈의 노복이 되어 조선사람의 넋을 제버리고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살길을 찾아 떠나는 죄없는 백성들에게 칼을 뽑아들게 되었소? 당신들의 부친이나 다름없는 저 로인앞에 부끄럽지도 않소?!...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한겨레앞에 뽑아들었던 그 칼을 왜놈들앞에 뽑아드시오! 그것이 바로 조선사람의 넋을 지키는 길이요.》

압록강기슭에 메아리치는 김형직선생님의 추상같은 구중에 방금전까지 허세를 부리던놈들은 그만 어깨를 처뜨리고 묵묵히 서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급히 로인한테로 다가가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늘 듣고다니시는 소가죽가방을 여시고 약솜과 붕대를 꺼내시여 로인의 이마전에 흘려내린 피자욱을 닦아주시고 상처자리에 감아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맥박도 짚어보고 어혈진곳들을 일일이 주물러주신 다음 침착하게 침을 놓으시었다.

그 일이 다 끝나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이쪽을 건너다보며 말씀하시었다.

《세진군, 로인님을 수레우에 올려모셔야겠는데

여기 와서 좀 도와주시오.》

《예?!...》

강세진은 다시 한번 놀랐다. 마치도 깊은 미궁속에 떨어져있다가 그제야 솟아난듯 그는 약간 덤비며 김형직선생님을 도와서 로인을 수레우에 올려놓히었다.

그이께서는 로인의 가족들이 가져온 이불을 손수 깔아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로인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상처가 그리 심하지 않으니 이제 곧 나을겁니다.》

그제야 로인은 감았던 눈을 가가스로 뜨고 김형직선생님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다. 그는 겨우 짜내는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임자는 누구인가? 저 백두산에서 내려온 신령인가? 천궁에서 내려온 신선인가? 어찌하여 나같은 늙은이를 이리도 극진히 보살펴주는가?》

김형직선생님께서 로인의 귀전가까이 상체를 약간 기울이고 친절히 말씀하시었다.

《로인님, 저는 신령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찾으러 싸움의 길에 나선 조선사람입니다.》

《아-니!... 이 나라를 찾고저 싸움길에 나서다니?!... 그런 위인을 내 살아생전에 여기서 만나다니!》 하며 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썼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로인을 그자리에 눕히며 말씀하시었다.

《로인님, 고정하십시오. 지금은 안정하셔야 합니다.》

로인은 다시 맥을 놓고 자리에 누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다.

《내 타향에서 무주고혼이 될 팔자에 하늘을 원망했더니 오늘 하늘이 내려보낸 우국충신을 만났구려! 귀인을 만났단 말이여!... 아 존귀하신 그대여, 부디 이 나리를 찾아 백의민족을 구원해주소서!...》

이렇게 말을 마치는 로인의 주름살투성이 량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내렸다.

드디어 로인을 실은 말수레가 천천히 이국땅의 낮선 황토길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친히 말고삐를 잡으시고 앞에서 걸어가시었고 강세진은 머리를 숙인채 말수레뒤 쾅무니를 잡고 걸어갔다. 낮익은 고향산천은 뒤로 뒤로 더 멀리 멀어져가고 마가울의 늦서리에 황갈색으로 변한 이국의 산발이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세진은 수레채를 잡은채 이끌리듯 길바닥에 나뭇구는 락엽을 밟으며 걸어가고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의 얼을 지켜 겨레앞에 뽑아들었던 칼을 왜놈들앞에 내대라고 준절히 훈시하던 김형직선생님의 숭엄한 모습이 우렷이 떠오른다. 하늘이 내려보낸 우국충신을 만났다고하면서 부디 이 나라를 찾아 백의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

절히 빌던 로인의 목소리가 귀전을 아프게 두드린다. 그 목소리의 여운이 어째서인지 세진의 가슴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4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림강에 돌아오신 다음에도 몹시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댁에 계실 때에는 찾아오는 각계층의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여 가르치심을 주시고 다시 압록강을 넘으시여 국내의 여러곳에 다녀오곤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밥상에 마주앉은 강세진은 그만 깜짝 놀라 수저를 들지 못했다.

《뭐 놀랄건 없소. 요즈음 세진군이 나를 돕느라 구 몸이 쇠약해진것 같아 우리 집 사람이 댁품을 한마리 한 모양인데 어서 드시오.》

《선생님, 제가 무슨 선생님일을 도왔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저의 길동무가 되여주시고 도와주지않으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였을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선생님의 몸이 축가시였으니 이 댁품을 어서 드십시오.》

《허허... 댁품 한마리가 무슨 큰 보약이겠소. 세진군이 림강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자주 앓아누울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저 마음뿐이었소. 그런데 마침 이게 한마리 생겼소. 앓고난 몸을 추세우는데는 조선토종감장닭이 제일이요. 그러니 이 댁품을 고향에서 보내온 보약이라구 생각하구 들어주면 고맙겠소.》

(!!... 그러면 김형직선생님께서 그 바쁘신 걸음에도 나를 생각하여 이 조선닭을 구해오시였던말인가?!...)

강세진은 목이 짹 메여오르고 뜨거운 물기가 눈앞을 가리우는것을 막을수 없었다.

방금 그이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세진은 림강에 도착하자 쓰러졌다. 중강에서 림강까지 그 멀고 험한 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 그때 그는 중덕나루를 떠나 50리도 채 못가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 김형직선생님의 《성냥불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로인이 누웠던 수레우에 올라앉아야만 했다. (로인은 노루목고개주막집에서 쉬어가려고 내리였다.) 결국 세진은 김형직선생님을 모시려던 수레우에 자기가 타고 그이께서 친히 수레채를 잡으시고 험한 길을 앞장서 걸으시였다. 이 나라의 이름난 우국충신들처럼 희세의 인물로 명성을 떨쳐보겠노라고 피끓는 가슴을 두드리던 남아가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는 흔들리는 수레우에 몸을 맡긴채 머리를 쳐들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싶었다. 하지만 한번 다진 남아의 명세를 지켜 잃어버린 손귀옥의 사랑을 찾아 끝까지 가야 할 길이였다. 하기에 그는 림강에 도착해서도 지칠

대로 지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수레를 끌어 샅전을 벌여들이었으며 땀나뭇을 땀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뜻밖에도 조선의 토종감장닭 품이 밥상우에 오른것이다. 찹쌀과 환기를 가득채워넣어 노란 기름이 찰찰 도는 조선토종감장닭 품은 김형직선생님댁에서 애용되고있는 웅배기에(그것은 만경대고향집에서 가져온것이라고 했다.) 담겨져있었다.

감장닭 품을 보느라니 손귀옥의 생각이 또다시 못견디게 가슴을 파고든다. 손귀옥은 세진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배재학당으로 떠나기 전날저녁에 바로 오늘과 똑같은 조선토종감장닭 품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왔었다. 다른것은 닭 품을 담은 그릇이 연청색바탕에 대나무그림이 새겨진 도자기단지였다. 그날저녁 손귀옥은 수정천의 물결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이 닭 품을 달게 잡수시고 열심히 배워 장차 나라를 찾는 성업에 한몫바치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말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선듯 수저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강세진을 자애로운 눈길로 건너다보며 나직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 식기전에 어서 들라구. 난 세진군이 손귀옥씨를 꼭 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너무 걱정말라구.》

림강으로 오는 로정에 세진이한테서 들으신 사연을 회고하며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때 세진은 자기를 혈육처럼 믿어주며 보살펴주시는 김형직선생님께 이제 무엇을 숨기랴 하고 할아버지의 비참한 순국과 그가 남긴 유서이야기며 우국의 큰 뜻을 품고 서울배재학당으로 올라가던 때의 심정 그리고 손귀옥이와 결별하던 날밤의 고통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였다.

세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금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중에는 허리에 권총을 두자루씩이나 차고 국내와 만주 일대를 종횡무진하며 조선국민회조직을 도와주는 녀걸도 있다고 하시면서 손귀옥이도 그 어디에선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강세진이 식사를 끝내고 상을 물리였을 때 밖에서 《의원선생님 계십니까.》 하는 녀자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리였다.

림강에 자리잡으신 선생님께서는 《순천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거시고 무시로 찾아오는 병자들을 보아주시였기때문에 밖에서 《의원선생님》을 찾는것은 하나도 이상할것이 없다.

그러나 세진은 녀자의 목소리를 듣자 마치도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놀라 피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것은 손귀옥의 영상을 눈앞에 그리며 밤마다 잠 못드는 세진의 심리와 잇닿은 조건

반사였다.) 그러나 마당에 서있는 너자는 그렇게 애 타게 찾는 손귀옥이가 아니라 갓난애기를 등에 업은 너인이었다. 광대뼈가 두드러진 너인의 얼굴에는 수심과 병색이 한데 어울려 질게 어려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너인을 옷방으로 친절하게 맞아들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집은 어디에 있고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가고 자상히 알아보신 다음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오게 되었느냐고 물으시었다.

그러자 너인은 대답을 못하고 웃고름을 얼른 눈가에 가져갔다. 그는 자기네 가정은 강원도 문천에서 들어왔는데 남편은 만주로목주식회사에서 벌목한 나무를 끌어내리다가 나무에 치워죽은지 1년이 되고 자기가 남편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는데 젖이 모자라서 아이가 밤마다 보챌다고 말씀드렸다. 너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등에 업혀있던 아이가 제 어미의 설음에 합세라도 하듯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너인이 아이를 끌러내려 젖을 물리었으나 정말 젖이 나오지 않아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비분에 찬 표정을 지으시고 방문쪽에 눈길을 주신채 굳어지신듯 앉아계시었다. 그러시다가 묵묵히 너인의 손맥을 짚어보시고나서 두가지의 한약가루를 따로따로 손수 봉지에 싸기 시작하시었다.

너인이 아이를 겨우 달래여 다시 업은 다음에야 선생님께서는 두개의 약봉지꾸레미를 너인의 앞에 밀어놓으시며 다심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이 약은 아이한테 젖을 먹이기전에 따뜻한 물에 풀어서 한술가락씩 먹이십시오. 그리고 이 초약은 약탕판에다 한시간쯤 달이여 물을 발아낸다음 그 물을 아주머니가 하루에 세번씩 잡수십시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장농문을 여시고 그안에서 무슨 조그마한 자루를 꺼내시었다. 그 자루를 너인앞에 가까이 밀어놓으시며 그이께서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아주머니, 이건 참쌀암가루인데 저한테는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젖이 안나올 때 이 가루로 암죽을 쑤어서 아이한테 조금씩 먹이십시오.》

그러자 너인은 어쩔줄을 몰라하다가 암가루자루를 도로 선생님앞으로 밀어놓았다.

《선생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건 댁에서 쓰실 비상식량같은데 어떻게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간절히 말씀드린 너인은 반쯤 돌아앉아 웃고름매듭을 풀더니 거기에서 동전 몇잎을 꺼내여 김형직선생님앞에 두손으로 받쳐드리었다.

《선생님, 약값으로는 저한테 이 돈이 전부입니다. 회사에서 너자로력이라고 남편의 절반밖에 주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흘안으로 구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너인을 마주 보시었는데 그이의 눈가에도 물기같은것이 얼른 거리는듯했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아주머니, 그 돈을 살림에 보태여 쓰십시오.

그러구 이 암가루도 비록 적지만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아주머니한테 이것밖에 도울 길이 없습니다. 어서 그 돈을 간수하십시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이 은혜를 어떻게...》

너인은 말을 채 맺지 못하고 또다시 눈가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남편이 나무에 치워 세상을 떠난것도 그리고 아주머니가 갓은 천대를 받으면서 고통에 시달리는것도 그 누구의 불찰이나 팔자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를 빼앗은 일본놈들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심을 먹고 살아서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아주머니, 그 약을 다 써도 차도가 없으면 어느때든지 또 오십시오. 그러구 내 은혜를 정 갚겠으면 조선이 독립된 다음에 갚으십시오. 허허...》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대범한 표정을 지으시고 웃으시었으나 그이의 음성은 아직도 갈려있었다.

《!!...》

강세진은 지금 한 신령의 은총을 받아안고 환신하는 너인을 환각속에 그려보고있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그 어떤 불길한 징조로 마음이 괴롭거나 집안에 불행이 닥쳐오면 신령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였으며 시집간 녀인들이 잉태를 하지 못하면 깨끗한 불공미를 이고 절간으로 찾아가 목탁을 두드리는 주지앞에 엎드려 제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었다.

했지만 그네들의 불행과 고통은 나날이 더해만갔으며 마침내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고 땅속에 묻히고마는것이였다.

강세진은 환각의 세계에서 깨어나 김형직선생님의 준수하신 모습을 다시금 우러러보았다. 지금 그이께서는 신령도 구원하지 못한 인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넋을 주시며 힘을 주어 소생케 하고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이께서 이름없는 조선의 남녀노소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힘이 장차 조선독립의 원천이 되는것이 아닐가...

너인이 돌아간지 이속하여 이번에는 석십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선생님을 찾았다.

강세진은 선생님을 찾아온 사나이가 중강의 객주집에서 얼핏 띄여본바 있는 《초부》임을 인차 알아보았다. 아마 선생님께서 주신 무슨 중요한 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급히 오는길인지 그의 온몸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있었다. 얼굴표정도 사뭇 긴장되어있었다.

세진은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모든 활동이 지하

에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조용히 미닫이문을 닫았다.

옷방에서는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오랜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잠시 조용해졌다.

이윽고 미닫이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김형직선생님께서 《초부》와 함께 아래방으로 내려오시였다. 자리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나직한 어조로 《초부》를 소개했다.

《세진군, 이분은 우리 일을 도와주는 조직원동지인데 서로 알고 지내시오.》

그러자 《초부》가 먼저 강세진의 앞에 손을 내밀며 자기를 소개했다.

《박동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

《강세진입니다.》하고 세진은 짝막하게 자기 명함을 대고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며 그의 손을 가볍게 마주잡았다. 마디지고 장알이 박힌 역센손아귀의 감각이 전류처럼 가슴에 마쳐왔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올방자를 고쳐 틀어올리신 다음 어째서인지 띄창문쪽을 바라보시다가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세진군, 내 사실 오늘 군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주앉았소.》

《?... 예,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하십시오.》

《세진군이 그동안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었소. 중강에서 여기까지 멀고 험한 초행길을 걸어왔구 산설고 물설은 타향에서 고생이 많았소.》

《무슨 말씀을...》

《세진군, 요즘 우리앞에 또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일을 함께 의논해봅시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이께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할때 대한 관전회의방침을 내놓으신후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의 각지에서는 각이한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었다. 열혈청년들이 왜놈경찰들의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찾아와 당장 무슨 일을 낄듯이 펄펄 뛰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의병투쟁을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어떤 민족주의자는 왜놈들의 탄압이 더 심해지기때문에 조선사람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싸워도 승산이 없다고 하면서 민중의 단합을 저해하고있었다. 그러한 실태를 방금 박동길이라고 하는 《초부》한테서 보고받으신 선생님께서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결심을 하시였던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침착한 어조로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세진군, 팔도구에서 약 100여리 북쪽으로 올라가노라면 상고부락이라고 하는 조선인마을이 있소. 80호가량되는 이 마을에서는 주로 통나무를 찍어

내리는 처서군들이 사는데 워낙 깊은 산골이다보니 마을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뒤떨어져있다고 하오. 그래서 그들을 계몽시키자고 야학을 하나 내왔는데 거기까지 밀정들과 사복경찰놈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방해하고있다고 하오. 이러한 형편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있겠소.》

여기서 말씀을 마치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세진의 번거로운 심리를 헤아려보시는지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세진을 미더웁게 바라보며 계속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세진군과 같은 지식인들이 민중을 각성시켜 반일구국에로 불러일으키는 성업에 앞장서야 할 때라구 생각하오. 나는 세진군이 학창시절에 지녔던 우국의 정의감과 민족적량심을 믿기때문에 이번에 상고부락민중의 계몽사업을 군에게 맡기고싶소. 우리두 곧 여기를 떠서 팔도구로 자리를 옮기려구 하오. 그러니 세진군이 상고부락에 가서 일을 보다가 나를 만날 필요가 제기되면 팔도구로 찾아와주오.... 하지만 이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니 여기에 대한 군의 의향을 서슴지 말고 말하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강세진이 아직 조직성원이 아니었으므로 마지막말을 이렇게 맺었다.

《...》

강세진은 입을 꼭 다문채 방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는 김형직선생님을 모시고 중강의 객주집을 떠나 오늘까지 그이의 뛰어난 친절과 뜨거운 인덕 그리고 담대한 의지를 체험해왔다. 날이 갈수록 그이에 대한 존경심과 선망의 감정은 세진의 가슴속에 더 깊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성급하고 열렬한 세진의 시점으로써는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을 독립한다는 로선을 신봉하던 손귀옥의 리념이 아직 아득한 미래로 생각될뿐이였다. 그 미래란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인가?... 손귀옥이가 도담하게 결렬을 선언하고 자기 리념의 길로 떠나갔지만 그가 과연 김형직선생님께서 믿고계시는것처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몸을 바치고있다고 어떻게 믿겠는가? 그가 지금쯤 외삼촌택에서 은둔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바람부는 만주벌판을 방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일이 있든지 손귀옥을 찾아 데리고 상해로 가리라는 결심을 품고 떠난 이 몸이 아닌가...

(...그래 너는 두 리념의 갈림길에서 어느 리념의 길을 택하겠는가?) 하고 세진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순간 그의 뇌리에는 수정천의 백양나무아래서 손귀옥에게 자기의 리념을 력설하던 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 우국충신들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감정을 담아 손귀옥에게 한 그 열렬한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실 얼마나 뜨거운 민족적정의감이 굵아쳐 흘렀던가!...

(…선생님께 이 마음을 말씀드릴까?…)

여기까지 생각한 세진은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그는 김형직선생님의 강직한 모습을 우려보는 순간 감히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것처럼 자부하던 마음이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다는 모르고있었다.

다시 머리를 숙이고 생각을 거듭하던 강세진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민중을 계몽시키시려는 그 뜻은 제 십분 이해할만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5천년동안 잠들었던 이 민중을 이제 어떻게 그 깊은 잠에서 깨울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뒤떨어졌습니다.…》

《아니요!》하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오른손으로 허공을 힘있게 그어내리셨다. 그이께서는 준절하신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한나라의 왕비가 궁궐안에서 외국테로단의 칼에 맞아죽은 1895년의 〈을미사변〉이며 임금의 당아버지가 외국에 랍취되어가서 귀향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죄를 해야 하는 민족수치의 역사를 빚어낸것은 민중이 아니라 부패무능한 사대매국노인 통치배들이었소. 우리 민중은 예로부터 근면하며 지혜롭고 용감한 민족이었소. 이런 민중을 어떻게 각성시키고 단합시키는가? 여기에 바로 조선독립의 열쇠가 있소!… 세진군, 나는 정의롭고 총명한 군이 민족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오. 이것은 무서운거요!》

김형직선생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오래동안 드리워져있었다.

강세진은 이 무거운 침묵의 중하를 혼자서 받아안은 사람처럼 그자리에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이 나라 망국사의 근원을 력대사대통치배들한테서 찾으시는 예리하고도 함축된 그이의 론거앞에서 세진은 대답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만큼 나라를 위한 감정이 열렬하고 자기만큼 민족적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없다고 자처해왔었다. 손귀옥이도 바로 사내다운 그 열정이 마음에 들었기때문에 사랑해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오늘 강세진은 김형직선생님의 가슴속에서 불타고있는 조국애의 열도는 이 나라에서 그 누구와도 비길수 없이 뜨겁고 열렬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세진군, 내가 좀 지나친것 같았는데 널리 량해하랴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형직선생님의 표정은 언제 격렬한 감정의 교차가 있었느냐싶게 따뜻하고 자애로와보이시였다.

그이를 우러러보느라니 세진이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저는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나쳤어. 우리 일이 바쁘다구 세진군

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보지 못했소. 그건 사실이에요.》하고 그이께서는 머리를 알릴듯말듯 좌우로 흔들시였는데 정말 자신을 자책하는 표정이시였다.

《세진군, 상고부락일은 걱정말구 어서 래일아침 장백현으로 떠나랴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귀옥씨의 삼촌택을 찾으랴구.…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박동길 동지.》

선생님께서 얼마나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는지 세진은 어리둥절해서 그저 두눈만 습벅이고있을 뿐이였다.

마침 이때 여직껏 잠잠히 앉아있던 박동길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그곳 상황을 너무 엄중시하여 보고드려서 일이 이렇게 되였습니다. 상고부락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그곳 실정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겸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머리를 크게 한번 끄덕여보이시였다.

이리하여 강세진은 김형직선생님과 작별하고 장백현으로 떠나갔다.

5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갔다.

이날 저녁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황혼이 깃들무렵까지 강세진은 《광제의원》이라고 쓴 간판이 걸려있는 기둥에 기대어 앉은채 움직일 줄 몰랐다. 그는 지금도 생각하면 장백시가의 잡화상점 바로 뒤에 있는 손귀옥의 외삼촌택을 찾아갔다가 랑대를 받고 돌아서던 때의 환멸감을 잊을수 없었다.

그날 손귀옥의 외삼촌은 조카가 하루밤을 자고는 어디론가 떠나갔다고 대답하고는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였다. 아마도 조카때문에 자기한테도 그 무슨 화가 미칠것이 겁났던 모양이였다. 이렇게 되여 손귀옥을 찾아데리고 상해로 가려던 세진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집저집 문전 걸식하며 돌아다닌 방랑객이 되고말았다. 하여 세진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팔도구로 다시 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랑루한 옷차림에 허기진 창자를 그러안고 차마 선생님께서 계시는 집마당으로 선듯 들어설수 없어 한시간이나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다가 강반석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리어 방에 들어섰었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상고지구로 가신지 닷새가 넘었다는 것이였다. 림강을 떠나시기전에 뒤떨어진 민중의 계몽과 반일선전때문에 그토록 심려하시던 바로 그 조선인부락으로 그이께서 몸소 가시였다는 것이

다.

(...내가 왜 그날밤 김형직선생님의 믿음과 권유를 마다했단가? 손귀옥이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온 내가 선생님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수 있단 말인가....)

세진은 뼈를 에이는듯한 자책감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백번을 후퇴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선생님께서는 밀정들과 사복경찰놈들의 삼엄한 경계를 피하여 어느 산전막이 아니면 깊은 동굴에서 벌목로동자들을 모아놓고 사업하고계실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의 신상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수있단 말인가. 날이 어두웠다.

세진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이제나 오실가 저제나 오실가 안타깝게 기다리며 그이께서 계시는 방에 불을 때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돌아오시지 않는다.

이제는 밤도 자정이 넘어 세진은 술곳이 잠에 들었다.

바로 이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

세진은 벌떡 일어나 뛰창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눈섭같은 상현달이 떠있었는데 그 희미한 여광을 받으며 김형직선생님께서 웬 사람을 등에 업고 들어서시고 그뒤로는 림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바 있는 박동길이라고 하는 그 《초부》가 급히 뒤따라 들어와 대문에 빗장을 지르는 모양이 얼른거렸다.

(...분명히 총기를 휘두른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세진은 당장 김형직선생님을 마중하여 달려나가려고 하다가 심사숙고하였다. 림강에서 그이의 간곡한 말씀을 수락하지 않고 장백으로 떠난 죄책감이 마음을 괴롭히는데다가 더우기 그이께서 지도하시는 조선국민회조직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조직원들의 활동에 뛰어들겠는가, 이럴 때 신중하게 처신해야 조직의 비밀을 지켜주는것으로 될것이며 선생님을 도와드리는것으로 될것이 아니겠는가...

김형직선생님께서 계시는 밤에는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주사기와 침통이며 부항단지를 다루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소독수냄새가 문사이로 새어나왔다. 환자가 중태에 빠졌는지 아직까지 신음소리 한번 들리지 않는다. 선생님을 보좌하여 나타났던 박동길은 그길로 돌아갔는지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마 그곳의 후파가 더 엄중한 모양이었다.

세진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선생님께서 환자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계실가, 저러시다가 선생님께서 쓰러지면 어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그만 앓은채로 잠박 잠들고말았다.

세진이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벌써 아침상이 들어오고있었다. 그는 급히 세수를 하고 옷매무시를 바로 한 다음 마당에 서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낼가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방문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때 방문이 열리면서 김형직선생님께서 나오시었다.

《선생님!!...》

세진은 목메여 부르짖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세진의 두손을 꼭 마주잡아 주시며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그이의 눈길에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있는상싶었다.

그이께서는 어쩌서인지 들릴듯말듯한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하시었다.

《세진군, 장백에 갔다온 소식은 후에 듣기로 하고 빨리 아침식사를 하자구.》

《??...》

아침식사가 끝나자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잠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그렇게 한식경이나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그이께서는 자신의 조끼주머니에서 늘 애용하시던 회중시계를 줄에서 떼내시는것이였다.

《??...》

세진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것을 내드시며 아까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세진군, 이제 곧 급한 걸음을 해주어야겠소. 이 시계를 전당포에 가져다주고 그 돈으로 아편과 응담을 사와야겠소. 아편과 응담을 약방에서 사되 뒤문으로 들어가 주인을 찾아 이 편지를 주시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회중시계를 편지봉투와 함께 세진이한테 넘겨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환자가 이제는 급한 고비를 넘기였지만 어혈을 뽑아내고 수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데 그 약이 필요하니 실수없이 다녀오라고 채상 당부하는것이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세진은 지체없이 자리를 일었다. 그는 오늘아침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에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생활해오면서 체험한 감각이기도 했다. 그는 대문밖을 나서자 속보로 달렸다. 비록 늦게나마 선생님께서 주신 부탁을 실수없이 해드리리라는 성실한 감정을 안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도대체 어떤 환자이기에 선생님께서 이처럼 귀중히 애용하시던 회중시계까지 전당포에 맡길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그냥 자리를 뜨지 않고있었다.

세진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먼저 전당포에 갔다. 전당포주인은 회중시계가 낡았다고 값을 낮추려들었지만 세진은 그 시계는 한푼도 낮출수 없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세웠다. 그러느라고

전당포에서 시간을 지체했다. 그러나 약방주인은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보더니 친절하게 의자를 권한 다음 아편과 응답을 따로따로 정성껏 싸주었다.

세진이 선생님택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벌써 한낮이 되었다. 그의 이마와 등골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세진은 선생님의 부탁대로 약을 가져왔다는 그 한가지 보람으로 하여 힘든줄도 몰랐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벌써 그 발자국소리를 들으셨는지 방문을 여시고 마루에 나오시었다.

《아, 왔구만! 그래 어떻게 되었소?》

세진은 아편과 응답을 포장한 두개의 종이봉지를 선생님께 드리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저런, 땀을 흠뻑 흘렸구만. 역시 세진군은 패기가 있다니까. 자, 어서 땀을 씻으라구.》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쾌활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친히 손수건까지 꺼내주시었다.

《?...》

강세진은 의아한 눈길로 선생님을 우러러보았다. 아침에는 누가 들을세라 속삭이듯 말씀하던 그이께서 지금은 너무나도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었다.

《세진군! 이제는 됐소! 자,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구. 어서.》

그이께서 다심하신 어조로 곱씹어 말씀하시었다.

《예!...》

그제야 세진은 땀을 씻고 옷매무시를 바로 한 다음 조심히 선생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향기로운 한약냄새가 짙 차있었다. 피창문아래에 놓여있는 약탕관에서는 지금도 무슨 초약인가 보글보글 끓으며 흰기를 내어뿜고있었다. 그 맞은편벽에는 《志遠》(지원)이라고 쓴 김형직선생님의 친필축자가 걸려있었다. 그 친필을 보며 세진은 조선독립의 확고한 앞날을 내다보시며 그 원대한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으시고 곳곳이 걸어가 고계시는 선생님의 위업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축자가 걸려있는 바로 아래에 서랍이 없는, 오동나무로 만든 중국식책상이 있었는데 그우에는 선생님께서 밤새 정성껏 준비해놓으신 초약봉지묶음이 여러개 겹쌓여있었으며 그옆에는 주사기, 침통, 부항단지, 청진기와 같은 간소한 의료기구가 질서있게 놓여있었다.

또한 책상우에는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보》 최근호며 고대명인들의 전기집이 놓여져있었다.

세진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거처하시는 작은 방에

한순간을 서있으면서도 그이께서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계시는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책상앞에서 돌아서니 그 맞은편 아래목에 바로 어제밤에 선생님께서 친히 업고 들어온 환자가 누여져있었다. 환자의 머리맡에는 미음그릇과 꿀단지며 지어 이국땅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조선사과도 놓여있었다. 그 사과접시만 보아도 이 환자에게 선생님께서 얼마나 극진한 정성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짐작할수 있었다.

환자는 두눈을 감은채 조용히 누워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환자의 숨결은 고르로왔다. 아마 이제는 아픔도 벗어 안정된 모양이였다.

(어떤 사람일까?) 하고 환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세진은 그만 깜짝 놀라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머리에 두텁게 감겨진 붕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였다. 그 붕대밑으로 처녀의 까만 머리태가 흘러내려 베개우에 드리워있었다.

세진은 처녀의 희고 동그스름한 얼굴을 넋을 잃고 내려다보다가 그만 리성을 잃고 부르짖었다.

《귀옥씨! 귀옥씨!...》

《...》

처녀가 눈을 떴다. 쌍까풀진 처녀의 오른쪽눈밑에는 까만 기미가 있었다. 학창시절에 눈밑에 기미가 있는 녀자는 눈물이 헤프다고, 애인을 잘못만나 젊은 시절에 고생이 많겠다고 동무들한테서 놀림을 받곤하던 그 기미가 분명한 손귀옥이었다.

《귀옥씨! 나요, 나!!... 세진이요! 나를 모르겠소?!》

세진은 마른침을 삼키며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그제서야 처녀의 쌍까풀진 두눈동자가 커졌다. 그는 두팔을 이불밑에서 가까스로 꺼내어 이쪽으로 내뻗치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이!... 세진씨가?!...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귀옥씨! 나는 그대를 찾아 수백리를 헤매이었는데 그대는 어디에 가있다가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어느놈이 귀옥씨를 이렇게 만들었소, 어느놈이?!...》

세진은 귀옥의 량쪽어깨를 부여잡아 자기앞으로 일으켜당기였다.

순간 귀옥이도 리성을 잃었는지 《흑!》 하고 흐느끼며 세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두사람을 자애로운 눈길로 굽어보다가 세진의 어깨우에 한손을 가버이 없으시였다.

《세진군, 진정하오.》

《...》

그제서야 세진은 리성을 다시 찾았다. 그는 천천

히 김형직선생님앞으로 돌아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세진은 걱정으로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무슨 말부터 할지 몰라 그저 선생님을 우러러볼뿐이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세진의 손을 잡으신 다음 귀옥을 미더운 눈길로 지켜보며 침착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귀옥씨는 장백을 떠나 박필너라는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상고마울로 들어왔소. 그후 귀옥씨는 상고마울벌목부들이 거처하는 함바집에서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밤에는 그들에게 조선말과 우리 나라 역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소. 말하자면 이것이 상고지구야학의 시초였소. 그런데 귀옥씨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경력을 말하지 않고 꾸준히 야학을 운영해왔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는 벌써 밀정놈들이 뉘새를 말고 귀옥씨를 주시하기 시작했소. 그러나 귀옥씨는 조선사람이 자기 나라 글과 역사를 배우는데 무엇이 겁날게있느냐고 하면서 야학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소. 이렇게 되자 악에 받친 놈들은 야학을 불의에 폐쇄하려고 달려들어 총기까지 쏘아댔던거요.》

《선생님!...》

지금까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있던 손귀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친히 그 멀고 험한 길을 오시여 저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고 힘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것처럼 중대한 민중의 계몽을 중도에서 그만두었을것입니다. 선생님의 지도의 손길아래에서 저는 참된 투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손귀옥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조용히 흐느끼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손귀옥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귀옥씨는 이번에 민중을 열렬히 사랑할 때만이 이 나라를 구원해낼수 있다는 진리를 자신의 보람찬 투쟁으로 보여준 우리 민족의 한송이 꽃으로 더 아름답게 피어났소!》

세진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달려가고싶은 심정이였다. 한때는 열혈청년의 붉은피를 나라에 바친 우국충신들을 숭상하며 그들처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몸을 비치겠노라고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조선독립운동의 주추돌파도 같은 민중의 단합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미지의 세계에서 헤매이며 깊은 잠에서 깨지 못한것은 민중이 아니라 바로 강세진-자기가 아니란 말인가.

드디어 용단을 내린 강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

《선생님! 저를 상고마울에 보내주십시오! 이 나

라 민중의 단합을 위해 제 비록 늦었으나 한몸바치게 해주십시오. 제 진정 손귀옥씨가 썼던 그자리에 한시바빠 서고 싶습니다.》

《고맙네! 나는 세진군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믿었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강세진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었다.

×

강세진은 동창이 푸름푸름해지자 압록강과 팔도강의 합수목으로 나갔다. 그는 뒤떨어진 리념의 세계에서 깨어난 이 아침 조국의 맑은 물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존경하는 김형직선생님앞에 나서고싶었다.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선 세진은 두눈을 습벅이며 그자리에 굳어졌다. 그것은 깨끗이 거두어진 방바닥에 새로 지은 흰 옥양목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가 차곡차곡 개여져있었기때문이었다.

강세진은 이 옷을 지으며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시였을 강반석어머님의 수고를 헤아리며 찌릿하고 뜨거운것을 목구멍으로 삼키었다.

강세진은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조선옷과 두루마기를 승엄한 마음을 안고 천천히 입었다. 그는 옷고름과 대님을 단정히 매고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에 나섰다.

새벽공기를 마시며 잠시 서있던 그는 기다란 땀싸리마당비로 조용조용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강세진은 늦게나마 존경하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조국애의 대의와 고결한 천품을 따라 인생의 첫걸음을 새롭게 내딛고싶었다.

아침식사가 끝나자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강세진과 함께 상고지구로 들어가는 갈림길까지 나오시었다.

강세진은 김형직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큰절을 드린 다음 두손을 가슴아래에 합장하고서서 절절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갈길을 몰라 헤매이는 저에게 조선민족의 녀을 안겨주시였고 잃어버렸던 저의 사랑을 지펴주시었습니다. 제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 해도 선생님의 좌우명이신 <지원>의 뜻을 받들어 민중속에서 배우고 민중을 이끌어 이 한몸 조국광복의 성업에 바치겠습니다!》

《고맙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수건을 손수 풀어 드시여 강세진의 목에 둘러주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날이 찬데 먼길에 몸조심하라구. 내 손귀옥선생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세진군한테 보내겠네. 그때엔 서로 한마음한뜻이 되어 더욱 잘 싸워나가리라 고 믿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후 강세진이 탄 말수레가 동터오는 려명의
붉은 빛발을 받으며 기운차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강세진은 자기가 지금 상고마울로 간다고만 생각
지 않았다. 그는 이 길이 바로 조국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압록강너머 조국땅우에서
숫아오르는 그 붉은 려명을 온몸에 받으시며 거연
히 서계시였다.

전우들의 상봉

류정형

혼장과 혼장들이
심장과 심장들이 부둥켜안는다
친애하는 그이 마련해주신
로병들의 상봉이여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느냐
서로 가슴을 치며
아프지 않은 꾸중속에
불덩이같은 눈물이 불을 데인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속에도
한번도 잊어본적이 없는 전우들

흘러간 그 세월
서로 까마득히 잊고 살았거나
아니면 제마끔 사는 처소가 멀어
쉬이 오갈수 없었거나

아니여라
서로 잊고 산것도
서로 가까이 있지 못한탓도
더우기 제 한살림에 분주해서도...

나어린 전우의 무덤에
더운 흙 한웅큼씩 더 얹어주고
푸들푸들 떨리는 입술 피나게 깨물며
혈전의 고지를 내려
고향으로 향하던 그날

조국은 지켰으나

잃은것이 너무도 많아
걸음걸음 밟히느니 아픈 채무지
한가슴에 실리느니 상실의 눈물덩이

하기에
제 집 문턱 넘기 먼저
쓰러진 전우의 살불이를 안아왔고
그밤으로 또다시
포연스민 배낭을 메고
복구대로 건설대로
서둘러 떠나야 했던 그들...

아, 장장 40여년 세월
조국을 위해 당을 위해
묵묵히 피와 땀을 바치며
뒤로 미루기만 했던 로병들의 상봉이여

상봉이란 무엇이랴
만나면 상봉인가
위혼없이 한일없이 자주 만남들
그것은 한갓 허울의 마주봄
링빈 가슴의 궁글은 웃음...

오,
친애하는 그이의 축복속에
온 나라의 큰 경사로
궁지높은 승리자의 상봉이여

전우들의 상봉이란
바로 이런것이구나

혁명시인 리찬과 그의 창작

최형식

리찬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하는 빛나는 공적을 이룩한 혁명시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작품은 오직 혁명적세계관이 철저히 선 작가, 예술인들만이 창작할수 있다.》

리찬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불변의 신념과 랑심으로 간직하고 온 심장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뜨겁게 불태움으로써 수령송가를 비롯한 사상에 숭성이 높은 시가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주체의 시문학건설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혁명시인이다.

1. 《들어 목메던 그 빛》을 그리며

리찬은 야만적인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르고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을 열렬히 동경하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시들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였다.

1910년 1월 15일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에서 출생한 리찬은 홀어머니의 지성에 의하여 경성제2고보를 졸업한후 일본 와세다대학에 가서 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나 학비난과 일제의 박해로 1년도 못되어 중퇴하였다.

1930년 정초에 고향으로 돌아온 리찬은 고보때부터 나섰던 사회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리찬은 고보에 다닐 때 벌써 《오티》, 《봄》, 《용광로》, 《아침》, 《잃어진 화원》 등 애국의 깊은 뜻을 담은 시들을 출판물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들에서 그는 일제에게 빼앗긴 강토를 불안고 몸부림치기도 하였으며 새 세상에 대한 갈망과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으려는 확고한 결의 그리고 《위대한 열과 힘을 가진》, 《새것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고싶다는 불같은 애국적열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리찬은 1930년을 전후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선 선각자들을 찬양하고 자신의 투쟁결의를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고 호소하는 시들을 련속 창작하였다. 《고향에 돌아와서》, 《일군의 노래》, 《그대들을 보내고》, 《잠 안오는 밤》 등을 그 대표적실례로 들수 있다.

리찬은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카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었다. 그가 1932년 4월 서울에서 윤기정, 송영, 리기영 등을 비롯한 7명의 《카프》작가들과 함께 그 발기인이 되어 《카프시인집》 재판기념의 밤을 조직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있다.

리찬은 무산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지향하는 문학활동을 벌리고있다는 죄안인 《죄》로 1932년부터 1934년까지 령어생활을 하였다. 옥중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감방에서 나온 리찬은 그날밤에 백두산이 가까운 고향으로 떠났다.

고향에서 생활하던 그는 어느날 조국광복회 북청지구위원회가 발간한 교양자료, 즉 백두산에 빛나는 태양과 삼천리금수강산을 그린 그림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 《금란지계전》이 실려있는 선전문을 읽게 되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광복전선에 한몸 바쳐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담은 《금란지계전》은 시인을 몹시 흥분시켰다.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면서 조국광복의 신심을 안고 살며 싸우는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진정 지금껏 어느 가수도 시인도 부르지 못한 빛나는 태양의 노래가 힘있게 울리고있지 않는가. 가자, 백두산으로, 설사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 해도 백두의 총소리를 들으며 참된 삶의 노래를 짓자. 이렇게 결심한 리찬은 백두산이 더 가까운데로 사는 곳을 옮기였다.

삼수, 혜산 등지에서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시를 쓰던 리찬은 보천보전투소식에 접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와 신뢰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놈들을 무리로 녹여냈다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으면서 장군님께서 반드시 조국을 해방시켜주시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념은 그로 하여금 《국경의 밤》, 《눈 내리는 보성의 밤》과 같은 시를 쓸수 있게 하였다.

강가에 한개 비투로 선 장명동
희미한 등빛아래 웅성거리는
무장 삼엄한 순경들
오늘밤은 그 몇이나
전설의 대오가 쳐든다 하드나

...

이제 머잖아 충천하는 화염으로
밝아올 이 마을처럼
애끓는 고국에의 그 길은
마침내 휘연히 열리리라 열리리라

시 《국경의 밤》에서는 이와 같이 《전설의 대오》-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조국은 머지 않아 해방되리라는 확신을 암시적으로 그러나 강렬하게 토로하였다.

시 《눈 내리는 보성의 밤》에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열렬히 동경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은근하게 노래하였다.

오, 동만의 15도구 말없는 산천이여
어서 크낙한 네 비밀의 문을 열어라

여기 오다가다 깃들인 설음많은 한 사나이
들어 목메던 그 빛, 그 소리로 한껏 즐겨워보려
노니

《들어 목메던 그 빛, 그 소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일제수비대의 삼엄한 경비망에 눌려온 15도구의 말없는 산천을 향하여 어서 크낙한 비밀의 문을 열라고한것은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커다란 신뢰와 기대를 노래한 것이다.

《들어 목메던 그 빛》을 그리며 《전설의 대오》-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시를 쓰고싶은 충동은 강렬하였으나 일제의 야수적탄압을 피할길이 없었던 리찬은 검열에 통과될수 있는 한계안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비극적운명을 보여주면서 암시적인 방법으로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는데로 시적지향을 돌리었다. 그러한 작품으로 《대망》, 《출범》, 《백산평상에서》 등을 들수 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던 당대현실의 본질에 침투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전에 나선 선각자들을 레찬하는 작품들을 많이 썼다. 《만기》, 《목읍방초》, 《등대》, 《새바람 휩쓸뉘》, 등의 창작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시들에서 울리고있는 시대의 선구자들에 대한 레찬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시인이 것처럼 동경하고 신뢰하던 《전설의 대오》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로 들려오고있으며 서정적주인공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를 보는 독자들의 눈앞에는 《들어 목메던 그 빛》-항일혁명투쟁에 고무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세계가 펼쳐지고있다.

해방전에 시집 《대망》, 《분향》, 《망양》을

내놓으면서 많은 시를 쓴 리찬에게는 이러한 높이 에 오르지 못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제의 파썸적탄압이 극도에 이르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우리르며 항일혁명투쟁을 열렬히 동경하고 신뢰하면서 《국경의 밤》, 《눈 내리는 보성의 밤》을 비롯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방법으로나마 당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시들을 수많은 창작한 리찬의 해방전시문학은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르고있었다는것을 우리모두는 확신하여마지 않는다.

2. 위대한 래양을 우러러 불태운 심장

리찬은 조국광복의 새 아침을 안아오고 은혜로운 해발로 새 조국을 찬란히 빛내여주는 위대한 래양을 우러러 온 심장을 뜨겁게 불태운 열정의 시인이었다.

끝없는 환희와 감격, 흥분과 격동 속에서 해방을 맞이한 리찬은 1945년 8월부터 해산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얼마후부터는 《함남인민일보》 편집국장으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적극 받들어나갔으며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민주주의적현실을 긍정옹호하는 시들을 정력적으로 창작하였다. 그가 현실궁정의 시창작으로 위대한수령님의 정치를 높이 받들기 위해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불태웠는가 하는것은 1946년에 벌써 《화원》이라는 시집을 내놓은것만보고도 알수 있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리찬을 해산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때버린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제때 공부한 지식인이어서 믿을수 없다면서 그에게 계속 박해를 가하였다. 리찬은 자신의 앞날을 깊이 우려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1946년 4월 어느날 리찬은 뜻밖에도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옥을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에 참가하는 더없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연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지금까지 가지고있던 오해를 말끔히 가시고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모두 영원히 변함없이 손잡고 나아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뜨거운 사랑과 철석같은 믿음이 어린 그 말씀에 연회참가자들은 기입가, 상인, 종교인, 지식인 할것없이 모두 감격의 흐느낌을 터트리였다.

번개치듯 시상이 떠올랐고 분출하는 심장의 웨침을 누를길이 없었던 리찬은 경애하는 수령님께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나서 《김일성장군 찬가》라고 웨치면서 즉흥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이렇게 시인은 인민들의 환영을 굳이 사양하시고 밤차로 소문없이 오시여 낮과 밤을 인민들과 함께 보내시며 인민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는 한없이 겸허하고 친근하신 인민의 수령 **김일성** 동지를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끝없이 흠모하는 열화같은 심정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우렁찬 박수갈채가 계속 터져올랐으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듯 시인의 열기띤 목소리는 연회장을 계속 울리었다.

그는 파사로운 해발로 민족의 새봄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 버림받고 갈길을 몰라 헤매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고 새 생활의 참된 길우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시인은 지금 읊고있는 즉흥시가 저 혼자만의 심장속에서만 흘러나오는것이 아니라 고동치는 온 겨레의 념원이며 시대가 부르는 송가라는것을 절감하면서 자신을 외람되다고 돌이켜볼 마음의 여유조차 못가지고 양양된 감정 그대로 불을 토하듯 높이 뽐냈다.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충족적감정을 격동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토로하고있는 헌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만민의 령장이시고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불타는 심장의 웨침이다. 시는 그 누구의 청탁을 받아 쓰거나 미리 준비한것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매혹된 한 인간의 즉각적인 감정의 토로이며 항일대전의 나날에 뿌리내리고 새 조국 건설의 우렁찬 행진속에서 역세계 자라난,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혁명적 신념과 량심이 뿜어올린 열정의 폭발이다. 그런것만큼 여기에는 사소한 꾸밈도 가식도 없고 뜨거운 진정만이 차넘치고있다. 하기에 헌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르는 우리 인민모두의 깊은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던것이다.

연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저마다 흥분된 목소리로 헌시는 은혜로우신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자기들의 심정을 신통히 그대로 담았다고 하면서 시인을 축하하였다. 하지만 리찬의 가슴 한구석

으로는 그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무거운 생각이 파고들었다. 그래서 열띤 흥분을 가라앉히며 고통스럽게 생각에 잠겨있는데 눈곱에 이슬자욱이 축축한 한 로인이 와서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해님이시라고 거듭 말하면서 우리 만백성이 늘 부를수 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이어 김책동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당중앙위원회로 보내온 수많은 편지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칭송하며 천만년 대를 이어 부르고 또 부를 혁명송가를 지어달라는 청원을 담은 편지들의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시인에게로 다가가 인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는 소원을 풀어줄수 없느냐고 말했다.

순간 시인은 만장을 격동시킨 시를 읊고도 마음이 후련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리찬은 그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노래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수령님께서는 누가 그런 노래를 쓰라 했는가, 그런 노래를 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며칠후 리찬을 찾아온 김책동지는 물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털끝만큼도 어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무가 하는 일은 사정이 좀 다르다, 수령님은 끝없이 겸허한분이신데 자신에 대한 노래를 지으라고 허락하실것 같은가, 이번 일만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결심한대로 창작을 계속하라고 말하였다.

리찬은 잠시나마 신념이 없이 행동했던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리찬을 찾아주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요즘은 어떤 글을 쓰는가고 물으시였다.

리찬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노래를 하나 쓰자고 하는데 항일혁명투쟁시기와 관련한 자료들을 잘 몰라 애로를 느낀다고 말씀올리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일제를 반대하여 간고한 싸움을 벌여오시던 일들을 들려주시면서 장백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의 굽이마다에는 투사들의 피어린 자욱이 찍혀있지 않는곳이 없으며 만주광야와 백두의 천고밀림에는 투사들의 애국의 녀이 어디 가나 고이 깃들어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부르시던 혁명가요들도 알려주시였다.

순간 시인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고 장백산 줄기마다 압록강 굽이마다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며 조국으로 진군하시는 장엄한 화폭이 생동하게 펼쳐졌다.

시인은 뿜어오르는 격정을 누를수 없어 붓을 들

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대밭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시상은 끝없이 하늘에 날고 노래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흘렀다.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가사가 완성됨으로써 대를 이어가면서 부르고 또 부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가지고 싶어하던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은 빛나게 실현되었다.

시인은 사람들이 것처럼 훌륭한 송가를 어떻게 지었는가고 물을 때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우리 인민모두가 지은 노래라고 대답하곤 하였다. 참으로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조국 광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게 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뜨거운 감정의 정수를 그대로 담은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혁명적수령관을 심오하게 구현하고있는 이 송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온 겨레의 절대적인 숭배심과 열렬한 칭송, 열화같은 흠모와 다함없는 긍지의 숭고한 감정을 최상의 경지에서 집약하고 극치의 예술적형상으로 부각한 명작중의 명작이다.

혁명송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불타는 열정의 응결체이며 정화이다.

가사의 구절구절에는 칭송의 열정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송가의 2절에서 시인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짧은 시줄로 다 표현할길 없어 항일혁명투쟁과 깊이 련결된 자연적대상이며 력사의 증견자인 만주벌의 눈보라와 밀림의 긴긴밤을 불러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이며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라고 호소하였다.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예술적사색과 뜨거운 열정, 고조된 흥분이 뜨겁게 물결치고있다. 이 뜨거운 열정과 정서적 흥분을 타고 우리앞에는 고난의 행군길을 가로막던 그 세찬 눈보라며 조국진군의 위대한 구상으로 유독 사령부의 창가에만 불빛이 꺼질줄 모르던 밀림

의 긴긴밤들이 숭고한 형상으로 솟아오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영상이 숭엄하게 안겨온다. 송가는 뜨거운 열정을 타고 숭엄하게 안겨오는 이 시적형상을 통하여 만고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고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송가에서 활화산마냥 분출하는 송축적열정은 설명을 철저히 없애고 시적함축과 간명성을 보장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송가는 머리를 짜내서 쓴것이 아니라 끓어번지는 심장에서 뿜어오르는 격정을 글로 표현해놓은것이기에 하나의 설명도 사소한 꾸밈도 없이 고도로 함축되고 간명하게 되어있다.

가사의 구절마다에는 깊은 뜻이 깃들어있고 한두 줄의 시행속에도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심오한 사상이 담겨있다. 가사의 절들은 그 시구의 수와 길이에 비할바없이 폭넓고 심오한 사상정서적내용을 담고있다. 1절에서 보면 24자밖에 안되는 첫 두행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을 훌륭하게 시화하였으며 다음 두행에서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새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된다는 거대한 사상을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2절은 총체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눈보라 수심만리를 헤치시며 걸어오신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생동하고 깊이있는 시형상으로 보여주면서 수령님께서 높이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에 대한 찬양의 감정을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송가의 구절마다에 얼마나 깊은 뜻이 깃들어있는가 하는것은 1절에서 반복되고있는 《피어린 자옥》과 《거룩한 자옥》을 음미해보아도 잘 알수 있다.

혁명송가에 흘러넘치는 뜨거운 열정은 음악성을 함있게 담보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혁명송가에서 시인의 뜨거운 송축적열정은 사상정치적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형식의 완벽성, 사상정서적감화력을 튼튼히 담보해주고있다.

혁명송가의 사상에예술적 풍격과 감화력은 출렁이는 송축적열정을 정교한 가사형식에 응결시키기 위한 감정조직과 운률조성, 세련된 시어구사 등에서 발현된 높은 형상기교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민의 념원을 담아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창작한 리찬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의 별》을 창작한 혁명시인 김혁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창작의 시대를 개척한 뛰어난 선구자로 되었다.

그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창작함으로써 항일혁명투쟁시기 백두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여왔으며

해방직후에는 수령님의 사상과 경도를 변함없이 받아들여나간 참된 충신, 혁명적인 신념과 광심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의 시인으로서의 개성적인 얼굴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온 심장을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불태운 리찬은 한두편의 송가를 짓는것으로만 시대와 인민의 가수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인은 얼마후 송시 《더욱 굳게 뭉치리 그이의 두리에》를 창작하여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수립 1주년기념대회에서 랑독하였다.

감격과 환희와 불안과 초조와
저마다 제 길을 닦는 혼돈의 격랑우에
빛나는 조국창건의 대도를 뚜렷이 밝혀
도도한 그 흐름을 오로지 민주의 대해로 이
끌어가는
그이야말로 위대한 우리의 수령, 우리의 령
도자!

이 하나의 시편을 통해서도 시인은 해방직후의 것처럼 복잡하던 우리 나라 정세와 터진 화산마냥 들끓던 현실을 폭넓고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인민을 오로지 민주의 대해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흠모의 감정을 격조높고 웅심깊게 형상한데 기초하여 오직 수령님만을 높이 우러러받들며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철석같은 의지를 힘있게 노래하였다.

우리 우러러반드오리 오직 그이를
우리 더욱 굳게 뭉치리 그이 두리에
그이는 참으로 새 조선의 자랑
그이는 참으로 삼천만의 자랑

아아 그 이름도 휘황한
김일성장군!

이렇듯 시는 송축적감정을 격동적이고 격조높은 시형상에 담아 노래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아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었다. 여기에 이 시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있으며 열정의 시인으로서의 개성적인 모습이 새겨져있다.

열정의 시인으로서의 그의 얼굴은 위대한 장군님 이시야말로 조선인민의 진정한 령도자이심을 시적형상으로 강조하면서 그이를 정부수반으로 높이 모시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을 뜨겁게 노래한 송시 《3천만의 화창》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화적건설시기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누구보다도 많이 지은 리찬은 그 이후에도 아니, 생의 마지막까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송가를 적극적으로 창작하였다.

《수령님의 광망 일월과 함께》, 《그 손길 이르는 곳마다》, 《수령님 기어이 떠나시여라》, 《무심히 거닐지 말라, 보통강쪽을》, 《어버이수령님 이시여 부디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 《풍막의 등불》, 《몸과 마음 다 바쳐 우리는 받들리》, 《우리는 수령님만 따르렵니다》 등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해방후 리찬에게는 창작에 열중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못했다. 그는 1946년부터 20여년간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 한 중앙기관의 부책임자, 문화선전성 국장,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검사위원장, 문예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중임을 맡고 사업하였다. 허나 그는 그 어느 시인 못지 않게 작품을 많이 썼다. 민주건설시기에 《승리의 기록》을 비롯한 3권의 시집을 출판했으며 1957년에 《리찬 시선집》을 내놓는데 이어 또다시 창작적양양을 일으켜 우수한 시가들을 수많이 창작함으로써 시집 《태양의 노래》에 1958년이래의 성과작을 40편가까이 수록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창작적양양을 가져오도록 그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워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부여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의 한생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5월 24일 북조선 각 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 리찬을 불러주시고 연단에까지 세워주시였다.

리찬은 그날저녁 한가슴을 건잡을수 없이 격동시킨 보다 감격적인 소식에 접했다. 한 일꾼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찬동무가 토론을 잘했다고 치하하시면서 함흥에서도 좋은 시를 열정적으로 읊어 연회를 더욱 인상깊게 하였다고 회고하시였으며 그를 평양에서 일하게 하며 인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시를 많이 써내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가족도 인차 데려오도록 하자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받은 시인은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리찬은 자기앞에 넓게 열린 새 삶의 길을 내다보며 드높이 고동치는 심장속에 오로지 수령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일할 신념을 깊이 아로새겼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리찬에게 북조선예술총동맹 서기장의 중책을 맡겨주시는 한편 평양시선교리의 경치 좋고 조용한곳에 자리잡은 아담한집 한채를 배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옥백미 다섯가마니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며칠후에는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 그의 집을 찾으시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였다.

1947년 4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리찬에

게 국가표창을 안겨주시면서 그에게 건국사업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친 진보적인 지식인이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로서 우리 인민정권이 주는것 표창을 받을만하다는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믿음과 사랑의 빛발은 뜻하지 않게 들쭉은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모대기던 시인의 가슴에 소생의 봄빛을 비쳐주기도 하였다.

1947년 10월 어느날 나쁜놈들이 한 출판물에 《시인 리찬의 시를 평함》이라는 평론을 써서 그를 《반동》으로까지 몰아댈 때 그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찬동무는 반동작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산주의까지 변함없이 갈 우리 당의 작가이며 애국적인 지식인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리찬은 이렇듯 그 깊이와 뜨거움을 헤아릴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았기에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있을수 있었으며 조국이 시련을 겪던 준엄한 나날에도 오로지 수령님만을 따르는 한마음으로 천리길을 걸을수 있었던것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기 직전 중앙과견강사로 강선에 나가있던 리찬은 뒤늦게 후퇴하게되였다. 순천에서부터 산발을 탄 그는 발이 물집투성이가 되었으나 걸음마다 뒤따르는 위험과 밀려드는 피로를 이겨내며 걸고 또 걸었다. 험한 산길에 굴러떨어진적이 그 얼마였고 아슬아슬하게 넘긴 위기도 몇번인지 몰랐으나 그는 오직 한길만을 즐기치게 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0년 11월 어느날 리찬이 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당을 따라 난관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최고사령부까지 들어온 그야말로 애국적인 작가이며 우수한 당원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리찬동무가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확신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리찬동무와 같은 작가, 예술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며 아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리찬의 건강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에 의하여 리찬이 새로 결성된 문예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던 1961년 3월 어느날 수령님께서서는 새로 선거된 문예총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을 부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찬의 얼굴을 보시고 몸이 더 축간것 같은데 아직도 위탈을 고치지못했는가 물으시였으며 오찬석상에서도 리찬동무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몸이 허약하다고 걱정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거듭 이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리찬의 건강때문에 마음쓰

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해방직후 어느해에는 리찬의 위탈엔 삼방약수가 좋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가 폭 쉬며 치료를 받도록 친히 조직해주시였고 전후의 어느해에는 외국에 가서 병을 고치라고 어느 한 대표단성원명단에 일부러 그의 이름을 넣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끊임없이 안겨주시는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바로 리찬으로 하여금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주옥같은 시작품들을 런이어 창작해낼수 있게 하였다.

3.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의 숨결을 뜨겁게 감수하고

리찬은 열정적인 시인이면서도 주로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의 숨결을 뜨겁게 받아안고것을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생활적정서로 감명깊게 노래하는 특기를 가진 시인이다.

시적감각이 예민한 리찬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어난 력사적전변들을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그가 조국이 해방된 다음날에 조국광복을 맞이한 온 민족의 감격과 새 조국 건설에 대한 지향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 《조국이여》를 창작하였으며 토지개혁병령이 발포된 순간에 이 소식에 접한 감격과 흥분을 열정적으로 토로한 시 《새소식》을 써낸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한 실례로는 보통강개수공사가 벌여질때 《흘러라 보통강 새 력사의 한복판을》이라는 시를 써서 그의 력사적의의를 밝혀낸것을 비롯하여 무수히 들수 있다.

리찬은 언제나 당정책에 민감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자 곧 전투성과 호소성이 높은 가사 《건설의 아침》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애국적 건국열의를 앙양시켰으며 수령님의 통일전선로선을 받들고 시 《화원》을 창작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시키는데 기여한 사실 등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리찬은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그것을 주로 평범한 생활속에서 발견하고 생활적정서로 노래하였다. 그러한 특성은 현실주제작품을 비롯한 여러 주제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다. 임의의 실례로 시 《조국 만세》를 보기로 하자.

아침마다 푸르러오는 창앞에서
레사로이 듣다가도
의례 숨죽이고 귀기울이게 되는
우리의 라지오보도

이것은 참으로 평범하고 레사로운 우리의 생활이

다. 한데 시인은 여기에서 시적계기를 포착하고 시적환상의 나라를 펼쳐 커다란 혁신의 소식으로 차 넘치는 라디오보도를 나라의 위대한 전변, 새 인간들의 우람찬 탄생을 아뢰는 대교향악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 황홀한 선율속에서 서정적주인공은 그 모든 난관을 제 힘, 제 지혜로 끝까지 뚫고나가는 줄기찬 투쟁을 감수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우리 혁명의 불멸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의 기치라는것을 지적으로 강조한 다음 이렇게 시를 끝맺고있다.

막지 못하리라 원쑤의 그 어떤 발악도
이 땅 깊이 뿌리박은 자랑찬 그 줄기에서
갈수록 커가는 승리와 영광
천리마조선의 이 눈부신 전진을

랑랑한 라디오소리 흘러가는
푸른 하늘에 우련히 떠오르는 휘황한 내 나라
아, 사무치는 내 가슴 한 바닥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 만세!
만세소리 저절로 융տ아오른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의 숨결과 지향을 뜨겁게 체험하고 깊이있게 형상한것은 《창문을 열면》, 《전변》, 《생각》, 《고향》, 《맹세》, 《천지개벽》, 《물지계》, 《더없는 행복》, 《첫대답》, 《성장》 등을 비롯하여 그의 대부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게되는 특징이다.

리찬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정신을 포착하고 노래하면서 주로 체험된 감정을 직접 토로하는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감성적인 생활화폭에 담아 독자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고있다. 따라서 그의 시는 흔히 회화성이 강하며 때로는 극성까지도 안고있다. 시 《밝은 세월》, 《첫잔》, 《행복》, 《북청사과》 등은 그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리찬은 순결한 우리 인민의 사고방식과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정서의 바탕우에서 시적사색을 무르익히고 다정다감한 우리 인민의 감정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나가면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있다. 그리하여 그의 시들은 민족적인 생활의 체온을 후덥게 간직하고있으며 소박하고 섬세하며 다정다감한 생활적정서로 충만되고있다.

시 《달과 딸과 어머니와》를 보기로 하자.

마당 가득히 우거진
강냉이잎을 흘러, 대싸리잎을 흘러
기름대우 어른거리는 새로운 판자마루
열일곱 분이의 귀여운 량태머리를
어깨를, 가슴을, 달빛이 흘러

어머니에게 딸은

발그레한 다리야처럼 비치는데
고을중학교 신입학의 래일을
잠 못이루는 딸을...

시는 이처럼 중학교에 입학할 달빛받은 딸의 모습과 그 잠 못드는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선히 떠오르게 그려보이며 그들의 교감이 다치면 분출할듯 고도로 양양되어있음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섬세하고 정겹게 노래한 다음 이렇게 계속하였다.

《분아!》
딸을 껴안은 어머니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에게 안기는 딸의 어깨가 물결쳤습니다

울긴 왜
울긴 왜... 하면서도
속으로 더 운것은, 더 운것은

어머니는 외로운 모녀의 골수에 사무친
행랑살이 십오년을 울었습니다
...

아, 지금 제 땅에 제 집 짓고
딸자식 공부까지 보내는
꿈같은 오늘이 고마와 울었습니다

모녀의 북받치는 감정을 후더운 눈물로 터친것은 참으로 진실하다. 그 후더운 눈물은 행복을 한껏 누리는 모녀의 뜨거운 심정의 거울이며 그들의 운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비쳐내는 거울이다. 그 눈물은 땅의 주인으로, 자주적인 인간으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의 감정을 비쳐내는 마음의 빗발로서 한없이 맑고 깨끗하고 령롱하다.

시는 이처럼 민주개혁으로 조선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혁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감정을 딸과 어머니의 교감세계를 섬세하고 선명하게 펼쳐보이면서 소박하고 다정다감하게 노래함으로써 감명깊고 특색있는 작품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리찬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의 숨결을 뜨겁게 감수하고 그것을 회화적인 생활화폭과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생활적정서로 소박하고 진정 이 어리게 노래함으로써 열정적이면서도 생활적이고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시인으로서의 자기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주체시문학의 화원을 다채롭게 하였다.

×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혁명적 신념과 광심으로 시를 쓴 리찬은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 우리 당의 참다운 작가였다. 또한 그는 열정적인 시인, 생활적이고 섬세하며 다정다감한 시인으로서의 자기 얼굴과 목소리가 뚜렷한

시인이었다.

리찬은 1974년 1월 4일 병환으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이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능있는 작가를 아깝게 잃었다고 하시면서 리찬동무는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일을 많이 하였으며 당을 위해 충실히 일한 동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깊은 은정이 어린 조의품을 보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의 부고를 신문에 크게 내도록 친히 조직하여주시였으며 그의 장례를 평양에서 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리찬은 해방후 우리 문학을 건설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로장들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김혁과 같은 혁명가라는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1년 11월 어느 날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시들을 많이 창작한 리찬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묘지를 《애국렬사릉》에 옮기도록 하시고 화강석비문에 《혁명시인》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새겨넣도록 하시였으며 그가 생전에 쓴 시들을 묶어서집을 출판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2년 2월 리찬의 사진과 함께 해방된 조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읊은 송시 《**김일성**정군 찬가》를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널리 볼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92년 9월과 1994년 3월에 또다시 리찬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심장의 고동은 멈추었으나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혁명시인 리찬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랑속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행복을 누리고있으며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대오와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세월이 밋어선곳에서

박창화

세월은

90년대 언덕을 넘고있는데

마음은

50년대 언덕을 걷고있구나

간절한 추억을 안고

내 전승기념탑앞에 서니

못잊을 그날의 전우들이

두팔 벌려 달려오는듯

이름만 남기고 떠나갔던

모습들이

여기에 다 와있구나

표비도 없이 남녘에 묻힌 전우도

적의 땅크밀에 육탄으로 날아든
그 전우도...

보고싶던 모습들

안아보고싶던 그들이

포연내 배인 군복차림 그대로

달아오른 총을 틀어친채 여기에
서있어

내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말

낮에 밤을 이은들 끝이 있으랴

습격전에서 돌아 못한 그사연이
있고

40년나마 쌓여온 그리움이

있기에

콩나물국을 곱배기로 칭한

병사들

양키놈들을 곱배기로 죽친

병사들

그때는 누구나 쓸어놓힌 적을

동태처럼 두름으로 계산했지

직사포를 고지대로 끌어올린

이야기

월미도를 목숨바쳐 지켜싸운

이야기

나예젠 해설원이 없이도

그 이야기들 기억속에 생생해

아, 심장과 심장이 주고받는

격전의 날의 이야기들

귀전엔 멸적의 총포소리 들리고
승리의 함성소리 쟁쟁해

그래서 석양이 붉게 비낀 탑앞에
서서

락동강전투의 그 아침을

생각하고

기발을 높이 든 병사앞에서

목숨처럼 귀중한 조국을

생각하나니

전승기념탑이 높이 솟은곳

여기서는 오늘도 그날의

함성소리 드높구나

언제나 승리한 그날의 50년대가

이 땅에 흐르는 세월속에

영원한 승리자의 기상을

이어주고있구나

이름없는 산마루에서 외 2 편

안성수

권양탑이 솟아있는 언덕우
금빛으로 불타는 노을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계시여라

산이여! 봉우리여!
너희들은 알았는가
처절한 전투의 포연서린 전연고지에
우리 수령님 소문없이 오시였던 그때처럼
사회주의건설의 이름없는 전투장
그이께서 광산지구에 오실줄을-

그 무슨 생각을 담아 그리시는가
우리 무심히 바라보던 봉우리를
한팔 높이 들어 가리키시다가
철의 의지로 결단을 내리시는듯
몸을 급히 돌리시며
련련 산발을 짚어나가시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 동지!

이 산마루에도 사나운 바람 불어치고있으나
둘러선 일군들 긴장한 눈길에는
순간 신심의 해살이 비끼고
격정에 설레며 우러르는 전사들을
우리의 령장 그이께서
해빛처럼 웃으시며 굽어보시여라

아, 그이 걸으시는 길은 언제나
조국의 운명을 판가르는 최전선
서계시는곳은 언제나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돌파구

폭풍속에 밤길 새벽길을 이으시며
준전시의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여

원췌의 기도를 짓부셔버리시고
강군의 열병대로 지축을 흔들며
포위의 쇠고리를 끊어버리시더니

오늘은 여기
사회주의를 지키는 무명고지
거치른 산마루에 오르시여
대세를 역전시키시는
또 한차례 건설작전을 펴시나니

그이께서 오시여
범상하던 지하초소는
혁명의 사령부를 모신
친위전사들의 전호로 변하고
그이의 의도가 설계되는 이 지점에서
력사의 한장이 시작되여라

령장의 명령을 가슴에 안으라
그이께서 혁명적경제전략의 화살표를 그으시여
쇠돌로 돌파구를 열라시면
땅밑을 모조리 뒤흔쳐서도 퍼내리라
봉쇄를 조이는 원췌의 머리우에
쇠돌의 불비를 퍼부으리라

포연에 묻힌 고지에서 맹세문을 올리고
끝까지 기발을 날린 그날의 전사되여
두렵없이 암벽을 폭파한 우리
해뜨는 아침 쇠돌더미우에서
무릎 꿇고 엎드린 원췌들 지르밟고
누리를 향하여 웃으리라
온 나라를 품안으신 강철의 령장
우리곁에 서계신다

만아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굴길을 걸어갔다

수직갱 인차를 내려
전차갱도를 지나

굴진막장 번쩍이는 암벽앞에
나를 멈춰세우고 무겁게 말하였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뚫고나가야 한다》
돌아보니
갱구에서 수직갱까지는
준엄한 50년대부터 할아버지가 뚫고
수직갱에서 여기까진
다난한 70년대부터 아버지가 뚫은 굴길

땅우에선 몇걸음 몇초에 내짚는 길을
용근 하루 암벽을 들부시며
한치한치 뚫아나가는 지하의 길에
오늘은 내가 90년대의 표말을 박고
암벽에 기계를 내몰아야 한다

지하로
더 깊은 지하로
뚫고내려가는 광부들은

대를 이어 청춘을 여기에 묻나니

광석!
그것이 없으면
용광로가 숨을 거두고
생활의 박동이 더디여지고
우리의 땀을 틀어잡는
원쑤의 터럭손도 비틀수 없는
결전의 활력소!
폭풍을 맞선 내 조국의 피!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의 심장에
끓는 피방울을 더해주려고
지하에서 조국을 떠받드는
광부의 책임을 깨우치려
아버지가 막장까지 온것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라의 맡아들
친애하는 그이께서
여기를 언제나 지켜보신다》

쇠돌은 왜 소리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것이
크게 또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태어나건만
무엇때문인가
쇠돌만은 고향치며 뛰쳐나온다
분노를 터뜨리며
요란한 폭음을 울리면서-

지구의 중생대부터
땅속에 묻혀 입 다물고있던 쇠돌이
무엇이 노여워서 고향치는지
그 언어를 가려듣는 사람
어디 있거든 말해보라

용광로앞에서
쇠돌을 맞이하는 용해공도
선반기앞에 선 기대공도 들을수 없다

다른 사람은 알수 없는 저 부르짖음

하지만
폭파직전 심지에 불달기전에
앞벽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쇠돌들이 격분에 아우성치며
저주를 터치는 저 고향소리
진심을 준 광부에게만 들리는
저 웨침소리

심지가 타들어가
폭파소리 땅을 진동할 때 똑똑히 들린다
《조선땅을 우습게 알고
넘보는놈이 어느놈이나
나서라
로동당시대 쇠돌
여기 있다!》

명제해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려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아야 한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정성이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라는것을 밝혀주신데 기초하시여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는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시에서 서정을 단순히 감성의 산물로 보아서는 안된다. 서정은 감성과 사상적인 지향을 결합시킨 형상적사유의 산물이다.

감정과 사상은 뗄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서는 언제나 일정한 사상과 함께 생겨나고 드러난다.

시문학의 생명으로 되는 서정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은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한 감정이기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이 포괄되어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감정과 주체사상을 신념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려는 뜨거운 지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끝없는 긍지와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빛내이려는 열정,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으려는 온갖 원수에 대한 증오심과 조국을 통일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비롯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는 전형적인 감정이 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으로 될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의 감정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대적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장군님의 품은 우리모두를 안아키워주는 참된 삶의 요람이라는 확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혁명의 밝은 미래가 있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신심, 이것이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감정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존함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담보되고있는 안정된 사회주의 행복한 생활, 언제 어디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투쟁,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하게 감행되는 오늘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끄떡없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배심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락관하고있다.

우리 시문학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서정성을 높이려면 위대한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따르는 우리 시대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린 리인모동지의 현시와 가사들인 《나의 운명을 두고》, 《사랑에 대한 생각》, 《신념과 의지의 찬가》,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가 것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뜨겁게 메아리치는것은 바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았기때문이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현시기 당과 수령의 의도와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안고 제때에 풀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바로 시대의 주도적인 지향으로 되고있다.

우리 시문학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신념드높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우리인민의 지향세계를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참으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는것이 시의 생명인 서정성을 높이는데서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밝혀준 이 명제는 주체적인 시문학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높이기 위한 지침으로 되는것이다.

전승의 새벽이 밝아오는곳에서

최진이

새벽

분명 나를 부른듯싶어
단잠깨여 현관문 나섰구나
저도 그 부름 들었다는듯
하늘이 밤이불 거뒀가누나

마당끝을 돌아서며 보니
열린 창문은 하나둘이 아니구나
3층복도 창문엔 맨머리의 로병 한분
전승기념탑쪽을 바라보누나
승리의 환호성 귀전에 들려오는...

청신한 가로수 잎새사이로
첫 뻘스 보인다
젖빛안개 헤가르며 소리죽여 가는
이 새벽 길옆의 대기념탑앞을
뻘스는 선잠 보며 지나고픈듯

어제저녁 울던 매미 한마리
어느 이슬 젖은 가지에 숨었나 하여
저기 목을 빼든 총각에 하나

제키보다 더 큰 살구나무 올려다보는데
그 뒤로 비자루 쥐고 렬을 지은 처녀애들은
전승기념탑문을 향해 가누나

신성한 이 새벽 벽찬 이 거리에
핵전쟁의 불구름 순간인들 밀려들게 하라
결사의 선언인양 전승탑 우뚝 솟아오르니
새벽아, 너를 맞는 얼굴들
희망은 넘치고
믿음은 썸처럼 솟구치누나
수호자의 기상 승리자의 의지를
사람들 가슴마다 한껏 채워가누나

내 발끝에 밟히는 이른 락엽 몇잎...
벌써 가을이 기척 알리나보다
머지 않아 겨울은 다가오리라
나는 추위가 겁나지 않는다
날마다 밝아오는 전승의 이 새벽이
너인의 작은 내 가슴에
바위도 녹일 용암의 열정을 치솟구어주거니

승리한 전사 웨치고있다

-기 본주제 《승리》상앞에서-

결코 승리의 함성만이 아니다
탑문을 들어서서 나를 마주 향하여
승리한 전사의 입에서 울려나오는
웨침소리는

기발 권 전사 승리를 웨치는 모습이라 하기엔
얼굴빛 너무도 준엄하다
피젖은 기발 넘겨주다 눈앞에 쓰러진
전우들 그 모습 밝혀와서만이 아니다...

그날에 피땀히던 전우들의 부탁은
지구의 마지막 한놈 원썬마저 총알박아
없앤다 해도
풀길이 없어 풀릴길 없어
병사여, 고지우에 승리기발 날리던
그날의 자세로 여기에 굳어졌는가

이슬 젖은 환호의 꽃뭉침들 발아래 놓여진대로
승리한 전사 웨치고있다
이 땅 마지막 한사람까지 불려세우는
그 부름 그 웨침을 엄숙한 맹세로 안으며
내가 다가선다
가슴 더운 젊은이들 다가와 선다

그날의 원썬 세상에 숨붙어있는 한
어깨우에 총 내리우지 않을
새 세대의 억척같은 그 의지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계시여
밝아올 영원할 승리의 그 새벽을
오, 오 지금 동상의 저 전사가
그것을 목청껏 웨치고있다

한 밤

수령님 걸음 멈춰 바라보시던
공화국기발 켜 전사의 동상을
로병 한분 지키며 밤 새웠다

온밤 눈 못떼던 동상의 전사는
총탄의 비발속을 뚫고 마지막 돌격로 열어주던
함께 못온 그의 옛 전우인듯
서있으면 서있으면

그리운 전우 살아 다시 오는듯

밤이슬에 군복어깨 축축히 적시며
자꾸만 낮익은 전사의 동상을 지키며
로병 한분 말없이 지새운
이 한밤속에
천년이 가도 못잇는 전우들의 더운 피로 바꾼
내 조국의 귀중함이 사무치게 담기여있다!

부러웁구나

-부주제군상 《월미도의 영웅들》앞에서-

앞에선 가렬한 싸움이 한창인데
너전사 그대는
무릎우에 머리맡긴 전우의 얼굴
안타까이 들여다보누나
그 전사 혹시 남모르게 사모하던
그대의 가슴속 편인은 아닌지...

귀한이야 그 하나였으랴
고향집 아버지벌 취사원전사도
맡오빠마냥 엄한 대학생전사도
소중하였으리 친혈육처럼! 애인처럼!

무너진 전호벽에 등 기대채
지친 전우들 쪽잠든 새벽이면
피터진 손에 윤나는 바늘 쥐고
총탄에 찢겨진 해군모 해병복들을
알뜰히도 기우던 그대

식어가는 전우의 몸에
제몸의 맑은 피로 생을 다시 안겨주고
온 얼굴에 밝은 미소
남몰래 함뱍이 머금던 너전사!

잠없이 이어지는 전투와 전투로
두눈에 피발 섰어도

피곤을 알았으랴 사랑에 가득찬 마음
지휘부와 마지막 통신 끊어지고
적들속에 끝내 들었음을 느꼈어도
외로움을 알았으랴 미더운 심장들과 함께 사는
그 가슴!

짧게 살았어도 그대 아쉬움 몰랐으리,
불속에서 사랑을 배운 그 심장을
죽음이 감히 손대일수 없었으리
무수한 세월의 락엽들도 묻지를 못하였으리

오, 엄혹했던 시련의 날
조국이 못내 잊지 못하는
천금같은 전사들 위해
누이와 애인과 어머니들의
모든 사랑 홀로 대신해준 너전사여!

내 아직 지너보지 못한
불같은 사랑 하늘같은 사랑
애어린 가슴에 한껏 안고 산
너전사-그대가
너성인 나는 그지없이 부러웁구나
그처럼 큰 사랑을 그대 심장에 부어준
그대결의 전우들이 한없이 고마웁구나!

나 홀로 있으면

깨어버릴 정적이 아니다
너나없이 귀기울여야 할 정적이다
방아쇠에 손 걸고 사격명령 기다리는
그 정적이
가득히 흘러드는 마당끝에 나는 조용히

앉아있구나

지평선우에 살며시 돋는 노을빛으로
고운 화장 시작하러
우유빛 안개에 말끔히 얼굴씻는 하늘을

결눈질해보며
가만히 귀기울이니
총포탄소리 구렁소리
무한궤도소리 돌격의 웨침소리

전쟁의 크고작은 소음이 귀에 들려오누나
숲을 헤치는 소리, 물건드는 소리, 말소리,
기침소리...

코를 메우는 화약내와 함께
날보고
아무개 전우의 만팔이 아닌가
물어보는 소리-

또 보여온다
담가든 위생병도 긴장한 정찰병도
기관총 멘 사수도 기발든 기수도...

내앞에 빼곡이 서서
소리없이 다가오는 얼굴들은
하나도 낮설지 않구나 반갑기만 하구나
한치만 움직이면
그 소음은 끊기일듯
발끝으로 짚는 발자욱소리에도
귀한 그 모습들은 사라져버릴듯

어머니 손잡고 군상앞을 지나는 꽃같은 저 어린애
내 다가가 앵두불 다독이기 삼가하며
홀로 잠긴 이 정적은
정적이라도 고요한 정적이 아니구나
제몸바쳐 이 땅을 살린 얼굴들을
다 만나는, 다 알아보는
상봉의 정적이구나 감격의 세찬 파도로
심장이 끓는 정적이구나!

강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일요일의 낚시군들 새벽부터 붐비는
안개자욱한
보통강기슭을
나는 지금 생각에 잠겨 걷는다
경치 아름다운 보통강옆에
또하나의 강을 나는 나란히 놓아본다-

원췌의 폭격에 방금 다리 부러진
그 강은 끊어진진다
비발치는 총탄에 여기저기 쓰러지는 전사들의
피로
강물이 붉어진다
무기를 머리위에 저저마다 처든 군복의 사나이들
피터진 팔로 피의 강-락동강을 헤쳐나간다...

그날에 바친 뜨거운 피의 뜻은
이 강옆에 승리의 탑으로 높이 솟고
그날의 병사들
전승의 탑 감돌며 흐르는 맑은 물에
추억의 낚시대 드리우고 앉은
오, 이 새벽의 보통강!

강은 무엇을 속삭이는가
새로 세운 승리다리, 그 세멘트기둥들을
물결이 물결이 쓰다듬으며

고요한 물위에 은빛 물고기들
저마다 살오른 잔등을 번갈아 번쩍여보이며...

겉을 잇고 물위에 뛰노는 물고기들을
원췌의 포연기로 놀래우지 말라고
낚시대 다투어들고 물따라 하얗게 앉은
저이들, 자손들 귀한 피가
이곳 강변 적시는 일 없게 하라고

속근심처럼 싸늘한 물안개 피워올리는
이 강물이
전승의 나이만큼 자라온
무수한 저 강변 가로수들이
못견디게 못견디게 속삭이누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이 세상 마지막 한놈의 원췌마저 쳐없애는
새 전승일
어서 이 새벽에 이르라고
어느때나 어느때나
불안을 모르는 완전한 평화의 물결이
착한 우리 사람들 마음에 흘러들게 하라고
오, 오 보통강은
이 새벽과 더불어 나에게 너에게 속삭이며
흘러흐르는구나!

빛나는 한세기

김익철

단군의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장장 반만년을 헤아린다. 이 기나긴 민족사의 년대기에서 100년을 일컬으는 한세기란 극히 짧은 한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로부터 거슬러오르는 최근 한세기동안은 기원전시기로부터 시작된 삼국시기와 고려시기 그리고 조선봉건왕조를 거치는 수십세기라는 장구한 기간을 다 합쳐놓아도 대비할수 없는 거대한 사회력사적변혁을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세기이다.

장구한 기간 락후한 봉건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일제발급 밑에 짓밟혔던 식민지 반봉건사회로부터 민족해방, 계급해방혁명을 비롯한 각이한 혁명단계들을 거쳐 자주적이고도 강유력한 우리 식 사회주의로 전변되는 거창한 변혁이 불과 이 한세기사이에 이루어졌다.

금세기에 이룩된 사회력사적변혁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시작된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보느라니 자연 김형직선생님께서 탄생하시던 력사적년대로 거슬러오른다.

1894년 7월 10일,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세기 우리 나라가 거처온 력사적로정과 민족사이에 이루어놓은 변혁들은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며 선생님께서 쌓으신 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혁명활동과 업적에 대하여 되새겨보는것은 우리 인민들, 특히 새 세대들의 사상정치적수양에 귀중한 자양분으로 된다.

푸른 소나무의 기상

소나무는 사철 푸르다. 하지만 땅에 뿌리박고 사는 온갖 식물이 한껏 무성하는 이 여름철엔 그것이 푸르다 못해 검푸러진다.

이때파라 만경대의 소나무는 례년에 없이 더욱 정정한 기상을 떨치며 설레인다. 김형직선생님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별한 감회를 안기며 끝없이 설레이는 소나무들...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묘소로

오르는 계단을 짝 메우고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 그 누구의 가슴에나 한결같이 선생님에 대한 잊을수 없는 가지가지 사연들로 뜨겁게 가슴을 적시고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의 묘소를 찾을 때마다 파고드는 생각은 나라를 잃었던 탓에 조선의 아버님을 너무도 일찍 잃었고 조국이 광복된 뒤에야 거친바람 불어치는 이국땅에 모셨던 묘소를 내 나라의 만경대로 옮겨모셨다는 백성된 죄책감이다.

올해는 선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00돐이면 아직도 생존하실수 있는 나이이다. 지금 좋은 세월을 만나 당의 은정깃은 100돐상을 받는 늙은이들이 만사람의 감동을 불러내고있지 않는가.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불과 서른두살이라는 아까운 청춘나이에 고귀한 생을 마치시었다. 조국의 광복과 2천만겨레의 해방을 위하여 찬이슬 덮인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며 것처럼 열렬히, 것처럼 견결히 싸우신 선생님이지였다.

먼 후날에 빛을 뿌리게 될 오늘의 조국을 위해 그리고 참된 삶을 누리갈 오늘의 후대들을 위해 선생님께서 바쳐가신 로고를 생각할 때 뜨겁게 가슴이 젖어오른다. 실로 선생님의 한생은 나라와 민중을 위한 투쟁과 헌신의 한생이었다.

선생님의 걸음은 만경대로부터 시작된다. 고향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 연안과 남만주일대로 잇닿은 간고한 로정은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끝없는 헌신의 정신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가신 간고한 투쟁의 길이었고 독립된 조선을 위한 불굴의 투지, 완강한 기개로 쉽없이 벌리신 영광으로 빛나는 투쟁로정이였다.

선생님께서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싸우시었다. 《지원》의 사상에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 있다는 투철한 인

생관과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담겨져있다.

일찌기 숭실중학교시기부터 반일투쟁을 위해 동지규합과 민중계몽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선생님께서는 성천, 강동, 순천, 대동 일대의 반일운동자들과 련계에 유리한 봉화리로 활동무대를 옮기신후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었다. 그리하여 장일환, 배민수, 백세빈 등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1917년 3월 23일 평양학당골의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 결정을 선포하시었다.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의 목적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다고 밝히시고 조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를 무으시었다. 선생님께서는 계의 《불망비문》에서 계의 투쟁목적을 이렇게 쓰시었다.

《...여름날에 땀을 흘리면서 호미와 낫을 벗으로 삼고 전원에서 잡초와 씨름하는 농민들과 망망대해서 풍파가 한번 일어나면 고기의 배속에 장사지낼줄 알면서도 한척의 쪽배에 의지하여 고기떼를 탐색하는 어민들과 충암절벽에서 한발울 비뚝하면 승냥이의 밥이 될줄을 뻔히 알면서도 약초캐기와 벌목에 종사하는 그네들도 수고와 위험을 모르는바 아니지만...생명의 위험을 조금도 주저치 않으니 그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영원불후하는 생명을 요구함이다.》

여기에는 근로하는 모든 민중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목숨바쳐 싸워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의 뜻이 깃들어있다.

선생님의 눈부신 활동에 겁을 먹은 일제놈들은 교단에서 글을 가르치고있던 선생님을 어린 학생들의 면전에서 체포해갔다.

1918년 가을 어느날 선생님께서는 1년나마 령어생활을 마치고 출옥하게 되시었다. 일가분들이 선생님

을 감옥앞에서 맞이하였다. 김보현 선생님께서는 운신조차 할수 없게 상하신 아드님의 모습에 억이 막혀 하시며 들것에 누우라고 권하시였다.

이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버님, 저는 제발로 걸어가겠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제가 어떻게 원썬놈들앞에서 들것에 들리어가겠습니까.》

원썬놈들이 보란듯이 제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숨이 지어도 꺾이지 않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선생님께서는 몸을 추세우실 사이 없이 다시금 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어느날 봉화리를 다녀오시던 길에 도덕리에 들리시어 동지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일을 하자면 반드시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력, 인력, 합심, 단결 이 네가지가 바로 사대비요라고 하시면서 그중에서도 중요한것은 정력이라고 하시였다.

정력이란 어떤 사업에 립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립장 즉 정신상태인데 그 정력 여하에 사업성과가 달렸다고 하시며 고구려의 한 청년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한 젊은 무사가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활을 메고 먼길을 떠났다. 한고개를 넘어서니 큰 범 한마리가 웅크리고있는것이 보이였다. 흠칫 놀란 무사는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온 정력을 다하여 겨냥한후 활을 쏘았다. 화살은 영낙없이 범의 복부에 들이박히며 푸르르 떨어졌다.

무사는 너무도 기뻐 단숨에 달려가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범이 아니라 범모양으로 생긴 바위였다. 첫순간 바위에 속은것이 분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놀람기도 하였다. 지금껏 천하명장이라는 무사들의 무훈담을 많이 들어왔지만 화살이 바위에 박혔다는 이야기는 들은적이 없었다.

무사는 자기의 궁술에 스스로 탄복하면서도 미타한 생각이 들어 처음자리에 돌아와 다시한번 쏘았다. 그러나 화살은 바위에 부딪치고 땅에 떨어지고말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무사는 곰곰히 생각던 끝에 그 이유를 찾았다.

처음 화살은 범을 잡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필사의 각오로 쏘았

지만 두번째 화살은 바위를 쏜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쏘았던것 이다...

선생님께서는 반일투쟁에도 정력이 있어야 성공할수 있다고 깨우쳐 주시였다.

만경대에 돌아오시어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먼길을 떠나시게 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정력을 더욱 굳게 하시려고 소나무 우거진 남산으로 오르신였다. 양지바른 바위틈에 소나무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시있었다.

오랜세월 모진 바람과 눈서리를 이겨내며 거연히 서있는 푸른 소나무의 싱싱한 기상은 선생님의 가슴속에 뜨거운 격정이 끓어오르게 하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사철 비바람과 눈서리에 시달리면서도 언제나 푸르청청한 빛을 뿌리며 새봄을 맞는 역센 기상, 그것은 선생님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상징하였다.

선생님께서는 그후 중강과 립강, 팔도구와 무송으로 옮기시며 《순천의원》, 《광제의원》, 《무림의원》의 간판을 거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칠성관에 오른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 한순간의 방심도 없이 불변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후파로 많은 일을 남기신 체 운명의 시각을 맞으시게 되였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둘러앉은 어린 자제분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을 하시였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일찌기 혁명을 하자면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을수도 있다는 3대 각오를 지니시고 투쟁해오신 선생님께서는 혁명가란 어떤 자제로 살아야 하는가하는데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아버지는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갔다. 거둬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고통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고 공리들을 찾아가던 아버지였다.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잡고 배가 고프면 생는을 움켜잡키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가던 아버지였다.》

참으로 선생님의 한생은 푸른 소나무와 같이 변함없는 혁명가의 한 생이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 땅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선생님의 유산을 물려받아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빛내이시고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시어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제도를 세워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내세우시던 푸른소나무의 기상, 그것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기상을 그대로 상징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밀려온다 해도 끄떡없이 솟아 푸르싱싱할것이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 새봄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대를 이어서

참으로 좋은 계절이다. 그 어데나 록음이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하여 벌나비떼가 날아댄다. 봉화산 골짜기에서 불어내리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명신학교뜨락에 서있다. 마당가에 서있는 향나무들과 꽃나무들에서 향긋하고 상큼한 냄새가 풍겨온다.

어디서나 흔히 보는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네모반듯하게 꾸린 토방, 매혹으로 정갈하게 바른 벽과 청석기와를 올린 지붕, 활짝 열어젖힌 창문들, 창문 사이의 기둥에 붙인 학교명판 어데를 보나 옛모습 그대로이다. 토방우에 올라서서 교실안을 들여다보니 첫눈에 뜨이는것이 《지원》이라는 글발이다. 그밑에 수수한 교탁과 지시봉, 백목통과 종, 뒤벽에 걸린 자그마한 칠판... 김형직 선생님께서 금시 칠판에다 백두산, 금강산, 압록강, 대동강 이런 글발을 새겨나가시는것만 같다. 종이 있는 데로 눈길을 옮기니 봉화마을 아이들을 학교에 부르느라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는것만 같다.

선생님께서는 낮에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농촌청년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여시고 민족의 일을 키워주시는 한편 손수 노래와 시를 지어 보급하셨다고 생각하니 숨엄해지는 마음 누를길 없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불요불굴의 반일투사이실뿐아니라 위대한 교육가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가시는곳마다에서 후대교육을 잠시도 멈추신 일이 없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후대교육에 관한 투철한 신조를 지니신분이였다. 후대교육에 관한 이러한 신조는 혁명투쟁과 후대문제에 대한 확고한립장에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겨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김형직선생님의 이 말씀속에는 혁명에 대한 굳은 신념과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불타는 의지가 담겨져있다.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그 어느곳에 가신대도 후대교육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의 기초라고 하시면서 혁명의 후비를 육성하는 사업에 한생을 바치시였다.

일찌기 만경대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천자, 소학, 론어, 맹자나 배워주던 서당교육의 틀을 깨버리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너희들이 공부를 왜 하는가.

그것은 왜놈들앞에서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또 왜놈들의 개가 되려고 하는것도 아니다. 오직 나라를 찾기 위해서이다.

지금 왜놈들은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금은보화를 마음대로 빼앗아가고있다.

왜놈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없다.

우리는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여기에는 일제의 노예교육을 배격하고 청소년들을 민족해방의 투사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사상이 담겨있다.

1916년 3월중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족을 만경대에 두고 혼자 봉화리로 가시였다. 그날 저녁무렵에야 대동강을 건너 백전나루에 닿으시였다. 선생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반갑게 마중하였다. 마을에 도착하신 선생님께서는 시당부터 찾으시였다. 텅 빈 집은 공부하는 흔적이 없었다. 원래 훈장이 한사람 있었는데 다른데로 가버린후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이튿날부터 학교를 꾸리신 다음 조국광복의 앞날을 당겨올 후대를 키우는 학교라는 뜻에서 《명신학교》라는 간판을 손수 쓰시여 내거시였다.

불과 며칠후인 3월 20일에는 뜻깊은 개교식을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학교에서 반일애국사상교양에 힘을 넣으시여 우리 글과 함께 우리나라의 력사와 지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시였으며 《청신가》, 《전진가》, 《명신학교교가》를 지어 보급하시였다.

이와 함께 케케묵은 봉건유교교육을 반대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실생활과 결부된 지식을 주었고 튼튼한 체력을 갖추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학생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극진히 사랑하신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못다니는 끝사등이소년도 데려다 공부시키시였고 비오는 날이면 통학거리가 먼 학생 형제를 집에서 재우기도 하시고 성격이 떨어진 학생들의 학습지도까지 해주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평안남도 도청 《시학》으로 있으면서 명신학교

를 방문한바 있는 한 일본사람은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후날 감회깊은 회상을 하였다.

《나는 1910년대초기부터 30년 남짓한 기간 조선의 평양에서 살다가 패전후 일본으로 돌아왔다.

조선에서 살던 초기기에 나는 평양선교리에 있는 〈성동보통학교〉의 교장을 하였으며 후에 평안남도도청 〈시학〉을 하고있는 관계로 비교적 각지를 자유로이 돌아다닐수 있었다.

한번은 평양에서 아주 가까운곳에 있는 자그마한 사립학교를 시찰하였다. 학교라기보다 서당과 같은 감을 주었는데 학생수는 20명가량 되었다. 건물도 극히 평범한 농가와 같았다. 이 학교이름은 기억할수 없으나 평안이 대단히 좋았고 마을사람들은 이 학교선생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찾은 것이다.

나는 것처럼 마을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는 선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풍채좋은 채수업을 기르고 길다란 대통을 쥔 로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학교문을 들어섰다.

그런데 스물대어섯 되여보이는 림름한 청년이 나왔다. 침착한 태도, 정열에 빛나는 눈매, 자신심이 가득한 말쑥, 어딘가 상대방을 크게 포용할듯한 그러한 품성을 가진 청년교원에게 비록 초면이었지만 나는 완전히 끌려들어갔으며 마음속 어디선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공감하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되었다는것을 기억하고있다...

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청년교사인즉 위대한 령도자로서 인민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이 하나의 실례만으로도 교육자로서의 선생님의 인품이 얼마나 높았는가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주고있다.

이 시기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도처로 다니시며 교육사업을 추켜세우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황해도 봉산군 서인면 선산리에 가시여서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싶어하는 마을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노력있는 사람은 노력을 내어 학교를 짓게 하시면서 학교터전을 잡아주시고 《기양학교》라는 이름까지 달아주시였다.

강동군의 승덕학교, 순천군의 덕립학교, 대동군의 신성학교, 개천군의 보성학교...

선생님께서 전국 각지를 찾으시어 학생교육요양과 학교 건립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신 이야기는 허다하다.

외형상 교육자와 의원의 신분을 지니시고 반일운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가셔야 할곳, 하셔야 할일이 얼마나 많았으랴만 언제나 후대교육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들리시었다.

봉화리를 떠나 중강과 림강, 팔도구와 무송으로 투쟁무대를 옮겨가시는곳마다에서 선생님께서 후대교육에 힘을 넣지 않으신 때란 없었다.

선생님께서 무송으로 가셨을 때만 하여도 거기에는 조선인학교가 없어 동포들이 자녀교육을 못하고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백산학교》를 세우시고 동포들의 의사로 병에교장이 되시였으며 바쁘고 불편하신 몸으로 《국어독본》을 비롯한 교재집필까지 하시였다. 집필한 교재는 삼원포에 가지어 인쇄해다가 만주 각지에 배포하시였다.

한편 안도, 화전, 돈화, 장백 등지에 사람들을 파하여 조선사람이 사는곳들에 학교와 야학을 세워주시였다.

이렇듯 선생님께서서는 대를 이어 혁명해나가는데서 후대교육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참다운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채 이루지 못한 뜻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 땅에 활짝 꽃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교육에 관한 사상을 밝히시고 해방후 참다운 인민적교육제도를 세우시어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 9년제기술의무교육과 11년제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교육의 나라로되게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후대들은 지덕체를 훌륭히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세대, 당의 위업의 계승자로 훌륭히 준비하고있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후대들이 혁명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여 혁명을 배신하고 패륜패덕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고있을 때 우리의 후대들

속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높은 정치도덕적품모를 보여주고있다.

김철진, 김경철 군인들은 뜻하지 않게 적들의 손에 들었을 때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싸워이기고 조국의 품으로 당당히 돌아왔고 당이 부르는 어려운 초소에 수많은 남녀청년들이 달려나가고있다. 또한 수많은 남녀청년들이 영예군인의 배우자가 되어 한생을 바쳐갈 각오로 나서는가 하면 800만의 청소년들이 당을 옹위하는 총폭탄필것을 결의해나섰다.

일신의 안락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바쳐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할 때 지나는 나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후비가 굳건하고 건전하게 자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된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하에 우리민족사에서 금세기에 이룩한 업적 가운데서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한 귀중한 결실의 하나로 된다.

무장을 들고

성스러운 반일투쟁의 새벽길을 걸으시던 그날의 모습으로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서계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앞에 서고보니 마음은 더없이 경건해진다.

선생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여 삼가 올린 꽃바구니와 화환, 꽃다발로 동상주변이 차고넘친다. 찾아오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물결 또한 그칠새없다.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거연히 서계시는 선생님의 동상을 우러르노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회상하신 하나의 구절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이룩한 업적 가운데서 또 하나는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성과였다.》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하기 위하여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으며 슬기로운 애국전통과 유구한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날뛰었다. 그리하여 정치적무권리와 문화적암흑이 드리우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였다.

한편 이 시기에 강도 일제의 강점을 전후하여 전개되던 반일의병운동은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한때 《애국자》, 《우국지사》로 자처하던 사람들가운데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의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구걸하려고 하였다.

《청원》이나 《외교》의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시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모색하시던 선생님께서서는 산과 들이 가을빛으로 질어가던 어느날 명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봉화산에 오르시어 수수대들이 줄지어 선 맥전밭을 가리키시며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학생들! 저것을 보라. 마치 군대가 사열을 받기 위해서 줄지어서있는것 같지 않는가. 여기서 보니 봉화산은 장군 같고 저것은 조선의 군대 같다.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있다면 왜놈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무기를 가진 원수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을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을 열어놓은 관전회의에서 새로운 무장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를 해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이미전에 벌써 무산민중을 위한 새로운 무장대오가 필요하다는것을 간파하시고 군사간부를 새롭게 양성하는 한편 당시 도처에 산개해있던 독립군무장단을 쟁취하고 단합시킬 구상을 하시였다.

이를 위해 림강에서 100여리 떨어진곳에 자리잡은 독립운동자들이 설립한 학교안 사회명령학교에 나가시어 교원들을 만나시고 군사간부를 양성할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던 1920년 여름 어느날 중강진에서 청년들이 선생님을 찾아와 당장 싸우게 해달라고 하였다. 무장단준비를 착실히 하실것을 구상하시던 선생님께서서는 이들을 진지하게 타이르시였다.

《너희들은 총을 메고 왜놈들과 싸우는것도 좋지만 공부를 더해야 한다.

우리는 강대한 일제와 싸워이기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자고 한다.

우리 한사람한사람의 힘은 약해보이지만 그 모든 힘을 합치면 어떤 원쑤도 쳐물리칠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물어둔 한점의 불씨로 넓은 들을 불사르는 전술로써 그 힘을 키우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크게 준비하고있다.

우리가 땅속 깊이 묻은 이 불씨는 조만간에 막을수 없는 큰 불로 타번질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학교에 가서 조국광복에 이바지할 쓸모있는 인재로 자라나야 한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부르겠다.》

그러시고는 이들을 사회중명학교와 여러 학교에 보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무장을 갖추는 준비사업도 착실히 해나가시였다. 국내외의 각지에 널린 반일운동자들에게 무기구입을 위한 과업을 주시는 한편 손수 조선국민회 성원이었던 경상남북도의 리씨, 조씨들을 통하여 많은 권총과 탄약을 구입하시였다. 그당시 《순천의원》앞으로 오는 의약품이 든 소포들에는 비밀리에 보내는 무기와 탄약들이 들어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구해들인 무기로 무장당들의 훈련을 조직지휘하시는 한편 실지 전투행동도 지휘하시였다.

1920년 여름 어느날인가는 국내에 들어가시여 천마산무장당의 활동을 지도하시였다. 그때 거기에는 최시흥을 비롯한 무장당 지휘성원들이 있었다.

그해 8월중순 의주군 옥산면 당목동에 대한 습격전투를 벌리였다. 습격조는 3개로 나뉘어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불사르고 일본군사를 비롯한 적을 처단하고 많은 무기, 탄약을 로획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군사간부 육성과 무장을 준비하시는 한편 독립운동단체들을 쟁취하고 단합하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당시 간도와 연해주지방에는 독립군부대와 독립운동단체들이 많았다.

남만주에만 하여도 20여개의 독립운동단체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반목질시하며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부대들중에 관전에 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이 있었는데 세력다툼으로 서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알룩상태가 격화되어가고있었다.

이 사실을 련락원을 통해 아시게 된 선생님께서서는 몸소 관전으로 가시여 두 단체 책임자들을 만나 거듭 설복하여 마침내 《대한청년연합회》로 통합을 실현시키시였다.

그후 선생님께서서는 혁명활동 전기간 관전, 림강, 장백, 무송과 국내의 여러곳에서 무장대오를 조직지도하시였으며 장차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지반을 축성해나가시였다.

1926년에 들어서면서 선생님의 병환은 더욱 악화되어 몸져눕게 되시였지만 반일운동자들을 부르시여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그러시던 선생님께서서는 자신께서 품으셨던 조국광복의 뜻을 이루시지 못한채 최후의 시각을 맞이하게 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강반석녀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갈것 같소. 나라가 독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세우고 가오. 독립의 날은 아침해돋이처럼 밝아오고 있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놓ियो. 성주를 부탁하오... 내가 쓰던 권총을 고이 건사했다가 성주가 커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도록 하오...》

선생님께서서는 것처럼 소중히 다루며 간수하시던 두자루의 권총을 배개밑에서 꺼내여 강반석녀사에게 맡기시였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고 마침내 무장투쟁의 기치를 들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 두자루의 권총을 높이 드시고 동지들앞에서 하였던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나는 이 두자루의 권총을 물

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두자루를 밀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 0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 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수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두자루의 권총을 밀천으로 마침내 안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조국광복의 성업을 이룩하시였다.

그것이 해방후에는 정규무력으로 발전하여 조선인민군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무력은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타승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오늘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그 위력이 비할바없이 막강해졌다. 령장중의 령장이신 **김정일**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의 국방력은 최신군사기술장비로 무장되고 일심단결된 무적의 대오로 성장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사회주의조국을 철통같이 지키고있다.

지난날 일제의 발골밑에 신음하며 세상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은 오늘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라고 떠드는 미제와 당당하게 맞서나감으로써 세상에 그 존엄을 위엄있게 떨치는 위력한 강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탄생하시여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기간 이땅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혁은 령도자를 잘 만난, 수령복을 타고난 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으로 된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우리 인민은 문무를 겸비하신 정치대가이시고 천하명장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철석같은 각오로 충만되어 있다.

새로운 신화-불패의 힘

정창운

우리가 미제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지 벌써 41년이다.

전화의 그 시절엔 흥안의 청년병사였던 내가 오늘은 머리흰 로병이 되었다.

세월도 인생도 빠르게 줄달음치면서 많은 일들을 망각의 물결우에 띄워보냈다.

인제는 병사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죄다 기억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지나갔던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이었던지 내가 차지하고있던 고지의 정면과 후면의 지형적특징들은 어땠던지조차 잊혀지고말았다. 기억하고있어야할 이 모든것들이 아쉽게도 시간과 함께 가버린것이다.

허지만 41년이 지난 오늘도 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는 화폭들도 있다. 그것은 잠시도 안정을 모르고 덤벼들던 강도 미제야수들이다.

어마어마한 장갑차와 탱크들을 앞세우고 달려들던 미제침략군들이었다. 하늘을 덮은 비행기, 바다를 덮은 군함, 숲을 이룬 포신, 그 모든것들의 배태기엔 《U. S. A》라는 흰글자가 백골과 함께 섞여져있었다.

이것이면 우리를 굴복시키는데 족하다고 믿었던 미제였다. 항복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하는것이 미제와 전쟁한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였다. 우리에게도 미제는 이 둘중 어느 한쪽을 택할것을 강요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도 들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해방된지 5년밖에 안되는 인민이 더우기는 갓 태어난 청소한 정규무력으로 미국을 위시로 한 15개의 추종국가와 맞서싸워 놈들의 철면피한 면상을 정면으로 후려갈겼다. 그렇게 놈들을 이 땅에서 꺼꾸러뜨렸다.

그것이 벌써 41년... 나는 종종 전쟁의 그 나날들을 회상한다. 그리고 전쟁과 힘에 대하여 생각한다. 전쟁에서는 어느때나 승리자와 패자가 있다. 그들은 다같이 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힘 이외의것

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니면 적들이 죽어야 하는것이 전쟁이다.

힘... 명백하고 또 명백한것은 승리한자가 패한자보다 힘이 더 센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이 전인민적인 영웅적투쟁을 벌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자기 조국을 수호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났을 때 전장 일선에서 사단들을 지휘하던 미제침략군 살인장군들과 사령부에서 작전막대기를 흔들어대던 우두머리급 《장군》들은 쓴잔을 들이키면서 계산할수 없는 조선의 힘에 대하여 떠들어대었다.

전쟁에서 힘... 아직도 미국의 《장군》들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다. 미국의 군사대학들과 사관학교교사들에서는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힘의 계산법에 대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힘은 화력이며 아군이 소유한 화력과 적군이 소유한 화력의 파괴력과 살상력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곧 승과 패의 대답으로 된다고 서술하였다.

10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이 계산법에 의한 작전으로 《런승》을 달성했던 미제이니 이 《기술적우세》론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어찌 힘의 원천을 소유한 화력의 파괴력과 살상력에서만 찾을수 있랴.

전쟁에서 적을 타승할수 있는 힘을 계산하는데서 우리는 우리 식의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것이다.

그것은 원자탄의 파괴능력에 기초한 힘의 계산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날 미제침략군을 타승한것도 원자탄이나 초고속비행기가 있었기때문이다.

전승 41돐을 맞으며 로병인 나는 다시한번 미제를 타승한 조선의 힘

에 대하여 말하고싶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우리 인민의 고무적힘으로 될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은 이 호소를 받들고 한마음한뜻으로 침략자들과 싸웠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승리한것이다.

미국이 《기술적우세》와 야만적인 포악성으로 《강대성》의 신화를 낳았다면 조선은 불패의 힘에 대한 신화를 낳았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인민의 단결된 힘은 무한대하며 원자탄이나 그 어떤 화력수단들보다 더 강하다는것을 말해주는 신화다.

나는 이 신화가 창조되던 나날을 기억하고있다.

수천수만의 작은 신화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힘-불패의 힘에 대한 큰 신화를 낳았다.

나는 우리 중대 3소대 전투원들이 영웅이 되던 이야기 하나만을 여기에 적으려고 한다.

1951년이였다. 전선에서 어려운 장마철을 지낸 사단은 후방으로 들어왔다. 후방에서의 임무는 적들이 상륙할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해안방어를 강화하는것이였다. 한편 사단의 일부 역량으로는 적들의 항공록전대가 내릴수있는 지대를 장악하고있는것이였다.

우리 중대는 절편덕이라고 부르는 경사진 등관지대에 배치되어있었다. 절편덕은 적들의 항공록전대가 노릴수있는 지형조건이였다.

중대는 경사를 이룬 밋밋한 둔덕을 따라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소대들을 배치하였다. 3소대 초소가 맨 아래고 2소대가 중간, 1소대가 맨 윗등판이였다.

절편덕에서는 마을들이 멀지 않았다. 종종 마을 사람들이 우리 중대의 초소들을 찾아주곤하였다.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떡이나 엿을 가지고

을 때가 많았다. 너멍에서 조직한 위문대가 방문할 때도 많았다.

이런 날이면 초소들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성거리는것은 아래쪽 초소를 차지하고 있는 3소대 병실이었다. 그리로는 매일이다싶이 마을 인민학교의 꼬마배우들이 다채로운 연예종목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왔다. 이 꼬마배우들은 자기들도 노래나 춤을 추었지만 전사들에게도 춤이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그다음은 전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다가 돌아가곤하였다.

3소대보다 높은 위치의 초소들을 차지하고있는 2소대나 1소대 전사들은 그들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몹시 부러워하였다. 꼬마들은 노래나 춤외에 복숭아광주리나 사과광주리도 들고와서 병사들과 함께 먹었다. 그때마다 꼬마들을 인솔하고 오는것은 마을학교의 처녀선생이었다. 흰저고리에 감장치마를 입고 손퐁금을 등에 메고 오는 처녀선생은 단발머리였다. 그 처녀선생은 능하게 손퐁금을 타면서 꼬마들과 병사들의 노래나 춤도 지휘하였다. 그러다가는 꼬마들과 병사들이 군데군데 둘러앉아서 사과추렴을 하면서 자유스럽게 놀 때는 소대장 리도명과 함께 병실 주변의 풀밭을 헤치며 산책하기도 하였다.

산책하면서 그들은 꽃도 함께 꺾곤하였다. 그러다가는 풀밭 한가운데 마주서서 무슨 애긴지 정중하게 주고받았다. 두사람이 무슨 애기를 할가? 웃쪽에서 내려다보고있는 2소대나 1소대병사들에겐 시샘때문에 견딜수 없을 정도였다. 중대병사들 속에서는 3소대장과 마을학교의 처녀선생사이에 야릇한 관계가 맺어지고있다는 여론이 돌았다. 그러나 2소대병사 두명이 대대부가 있는 마을쪽에 가서 후방물자를 타가지고 오다가 풀밭에서 휴식한 일이 있는 다음부터는 이런 여론이 없어졌다.

그날 두 병사는 휴식하던 풀밭에서 3소대장과 처녀선생사이에 주고받는 속삭임소리를 들었던것이다.

처녀선생-우리 학생들도 인민군대 아저씨들을 따라 전선에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저자신도 꼬마들과 같은 심정이예요.

3소대장-그건 안됩니다. 전선은 군사놀이를 하는데가 아니니깐요.

처녀선생-그건 꼬마들도 압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려는 심장의 뜨거움은 병사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3소대장-우리들도 그것을 압니다. 병사들은 선생과 꼬마들이 매일 우리를 찾아주는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처녀선생-어제 작문시간이었습시다. 학생들전원이 3소대아저씨들과 전선으로 나가겠다고 썼습시다. 탄약운반수가 되겠다는 학생, 련락병이 되겠다는 학생, 위생병이 되겠다는 학생, 지어는 한 아저씨가 부상당하여 후송되면 그자리를 메꾸는 보충수가 되겠다고 쓴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다음번 올 때 그 작문용지들을 가지고와서 병사동무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3소대장-고맙습시다. 그 꼬마들의 작문은 우리 병사들을 크게 고무해줄것입니다.

약속대로 마을의 처녀선생은 다음번 올 때에 꼬마들이 쓴 작문용지를 가방에 넣고와서 한장한장 읽어주었다. 그때 병사들의 감동은 컸다. 그 자리에서 병사들은 일어나서 결의들을 발표하였다.

...안심하라 꼬마동무들, 우리는 동무들의 그 마음만으로도 힘을 얻기엔 충분하다. 우리 3소대 병사들은 어느 전선, 어느 고지에서 싸운다 해도 여기서처럼 꼬마동무들과 함께 있는 심정으로 싸울것이다. 꼬마동무들도 우리가 싸우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들도 함께 싸우고있다고 생각해달라. 지난날 우리 소대는 영웅들의 소대라는 영예를 쟁취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영웅소대라는 영예를 쟁취하고야말겠다...

그날 병사들의 결의는 한결같이 이러하였다.

얼마후 사단은 다시 전선으로 나갔다. 떠나는 날 처녀선생이 인솔한 마을학교의 꼬마들은 멀리까지 따라나와 병사들을 전송해주었다. 그러고는 돌아서지 않고 아직 굳어지지 않은 손을 흔들며 병사들의 대렬이 보이지 않을때까지 서있었다.

그때로부터 석달이 지나서 우리

중대의 3소대 전투원들은 전선동부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된 413고지를 단독으로 방어할 임무를 받고 싸웠다.

적들은 좌우린접이 산맥으로 이어지지 못한 저지대에 위치한 이 독립고지를 두겹세겹으로 포위하고 주아로 공격하였다.

적군 비행대와 포병대는 약간의 틈도 없이 이 고지에 불을 쏘아부었다. 응원군이 나갈 길조차 포위한채 413고지의 3소대 병사들을 굴복시키려하였다.

그러나 3소대 전투원들은 온몸이 불에 타면서도 고지를 3일간이나 지켜내었다. 우리가 적들의 포위를 뚫고 413고지에 당도했을 때는 성한 몸으로 싸우고있는 전사는 한사람도 없었다.

머리가 아니면 팔, 팔이 아니면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두툼하게 봉대를 휘감고있었다.

응원군을 지휘하여 포위선을 돌라고 413고지에 나갔던 대대장은 그때 울음섞인 목소리로 리도명소대장을 부르며 힘있게 포옹하였다.

《동무는 영웅들의 소대를 지휘한 영웅소대장이요.》

그때 리도명소대장은 두눈을 봉대로 감고있었다.

《저희들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시다. 우리와 함께 싸운 또다른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 영웅들은 절편덕마을의 꼬마들입니다.》

그때 그 고지로 나갔던 우리모두는 울었다. 우리가 절편덕에 있을 때 찾아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꼬마들, 마을너멍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생각해서였다.

불타는 고지에서도 언제나 함께 살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있는 후방의 혈육들이었다.

나는 지금 오래전에 흘려간 옛일들을 생각한다.

텔레비존 화면들에서 초소의 병사들을 찾아가는 후방인민들을 볼 때면 더욱 그때의 일들이 생각난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이때를 생각한다.

조선이 낳은 새로운 불패의 힘, 그 불패의 힘에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의 이 신화는 영원한것이다.

혁명의 미래는 어떻게 자랐는가

주광남

교단

생각같으면
울분에 뛴는 생각같으면
당장이라도 총칼을 틀어잡고
왜놈의 가슴팍 푹푹 찌어넘기며
피어린 결전마당 달리고싶건만

서계시였다
총이 아닌 하얀 분필을 드시고
결전장 아닌 조용한 교단에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서계시였다

침략자는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원쑤
우리 민족은
집도 빼앗기고 어버이도 없어
쫓겨나 흩어진 고아의 처지...

창밖에 무성한
수수밭의 설레임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군사가 저렇게 많다면!...

소원이 간절할수록
정거이 굶어보시였다
책상에 마주앉은 더벅머리 아이들을

제힘을 제가 키워
독립의 위업 이룩해야 하거니
그래서 내세우신 《지원》의 뜻 안으시고
배워주시였다, 우리 글 한자한자
《백두산》 《압록강》... 읽어주시며
가슴가슴에 조국을 안겨주시였다

이렇게 키우시는 한사람 한사람
천백의 원쑤 족칠 투사가 되려니
교육은 다름아닌 혁명이였다
교단은 광복성업의 성스런 무대였다

...조용한 교단우에
하얀 분필을 드시고
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혁명을 하고계시였다!

강물은 흐르고 배는 오르고...

그저 즐겁기만 하였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물결우엔
만경봉이 그림처럼 비껴 춤추고
물결따라 배는 절로 흐르고

물장구 치며 웃고 떠들며
순화학교 학생들 배놀이 즐길 때
이윽히 지켜보시던 김형직선생님
배머리를 돌리라 말씀하시였네

강흐름 거슬러 머리 돌린 배는
노 저어도 물결따라 떠내려가고
땀흐르는 얼굴들은 눈이 둥그래
마주보며 어쩔바 몰라하는데

말씀해주셨네 김형직선생님
떠내려가는 이 배와 우리 나라가

다들바 없다고, 꼭 같다고
놔두면 험한 바다로 영영 내려간다고

가르치시였네 더 힘껏 노를 저으라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저으라고
기울어진 우리 나라 운명도
단결의 그 힘으로 견져내야 한다고

짜-영!
가슴벽을 두드리는 격정의 파도
선생님 우리러 눈정기 반짝이며
다 함께 노대를 굳게 틀어잡았네

강물은 흐르고 배는 오르고
땀은 흘러도 기세높은 학생들
마음속엔 빼앗긴 조국을 안고
헤쳐가고있었네 광복의 길을

둥근달이 웃소

불빛 없어 더 어둡던 오막살이마을에
하나 둘 창문마다 등불이 밝더니
그 등불 보고싶어 솟아올랐나
이밤엔 하늘에도 둥근달이 웃소

등불앞엔 붓을 드신 김형직선생님
한자한자 적으시는 우리 글 자모표
글자밑에 손수 그림도 그리시니
신기한듯 둥근달도 못떠나고 지켜보오

《가》자밑에 휘휘 붓을 돌리시면
어느새 귀벌쭈한 개가 그려지고
《나》자밑에 몇번 붓이 오가면
금시 베일듯한 낮이 그려지고

그러시곤 《가, 나, 다, 라》 친히 읽으시며
차근차근 배워주시는 우리 글 읽는법
더벅머리 총각은 웃음이 병실
그림 보며 병실병실 쉽게도 익혀가오

아, 나라를 찾자면 배워야 한다고
야학을 세워주신 김형직선생님
품팔이 고생속에 글 한자 모르던
까막눈 환히 띄워주시는 그 모습

하늘에 솟아올라 수천년 세월
온 세상을 비쳤어도 처음 본다고
둥근달도 기쁜듯 병글써 웃소
밤깊어도 못떠나며 환히도 웃소

봉화산의 나팔소리

봉화산에 찌렁찌렁 울리는 나팔소리
우리 마을 내동마을 메아리친다
새날의 시작이다 명신학교 동무들이
어서어서 오르자 아침체조시간이다

봉화산 저 마루엔 김형직선생님
흰옷 입고 서시여 우리를 부르신다
하문들 어길세라 일본인들 어길세라
아침 일찍 제 시간에 나팔을 부신다

학교에선 글공부로 애국정신 배워주시고
아침마다 체조시간 규률도 세워

광복의 투사될 몸 억척같이 키워주시는
그 뜻 어려 나팔소리 가슴을 흔드누나

억쇠야 서분야 어서 나와라
대렬지어 씩씩하게 함께 달리자
걸음도 함께 마음도 함께
선생님 따르는 맘 다져나가자

아침마다 봉화산을 오르고 또 오르면
광복투쟁 험한 령도 문제 없단다
어서 가자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생님의 구령인듯 나팔소리 울린다

총이나? 붓이나?

너무도 격하고 눈물에 겨워
흐느끼며 어깨를 들먹이며
와락 안기였다 김형직선생님품에
반일시위에 나섰던 애국청년들

안기여 아뢰었다
3.1의 거리거리에
피흘리며 쓰러진 겨레의 원한을
검거의 선풍속에
은신의 팔목 헤매던 아픔을...

고국 떠나 이국땅에서
애국청년들을 만나는 감회이신가
민족의 수난에 저려나는 아픔이신가
그들모두를 짝 그리안으신채
말없이 서계시는 선생님

총을 달라고
총칼 든 일제놈들 총칼로 복수하겠다고
불을 토하는 목소리
불을 뿜는 눈길들을
정거이 지켜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모두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오!

(공부를 하다니?!)
놀라워 선생님을 우러르는 청년들-
일제와 당장 결판을 내자고
사선을 헤치며 부르친 주먹
돌처럼 굳어진채 풀어지지 않거니

총이나? 붓이나?

들먹이는 어깨들을 다정히 쓰다듬으시며
조용하나 마디마디 힘을 주시여
선생님께선 말씀하시였다
강대한 일제와 맞서 싸우자면
강대한 힘을 키워야 한다고
땅속 깊이 묻은 불씨는
막을수 없는 큰물로 타버진다고

땅속깊이 불씨를 묻자!
가슴속깊이 큰물을 품어안자!
아, 그래서이시구나
《지원》의 높으신 뜻 펼치시고
혁명의 첫걸음을
교육으로, 인재육성으로 시작하신것은

오늘도 시련많은 혁명의 먼먼길

가시는곳 어데서나
학교를 세우시고 야학을 세우시며
교재도 쓰시고 교단에도 서시며
그리도 심려와 로고 다 바치시는것은...

총이나? 붓이나?
...

청년들은 갔다
희망과 신심에 부른 가슴 들먹이며
학교로, 붓을 쥐러!
붓-그것이 바로
선생님 주여주신 성장의 무기이기에
조국광복의 대업 펼칠
혁명의 무기였기에

고향벌의 하늘

리영일

발동소리 경쾌한 새벽
앞내벌 마지막 초벌김 매고
프락포르 보퉁에 대이니
아, 벌우에 하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온통 하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재령이라 나무리 넓은 벌
수정같은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가쁜한 흰이를 드러낸 처녀인양
별이 웃고 달이 웃고
청제비가 날아옵니다

단꿈 꾸던 푸르른 벼포기들은
보폭넘어 슷스러이 결눈질하고
신비로운 그 넓은 하늘물우에
시원히 발잠그고 고개만 흔듭니다

진정 나도 신기해
머리를 들어 쳐다봅니다
그러면 분명 하늘은
머리우에 고요히 펼쳐져있습니다
논물은 발목에 찰랑입니다

볼수록 고향벌에 펼쳐진 하늘은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눈뿌리 아득한 이 하늘이
내 작은 가슴에 다 안기고

내 이 손으로 이끌어 내린것만 같습니다

흘러간 지난 세월엔
온갖 자연의 횡포 거머쥐고
언제나 으시대던 하늘입니다
두손모아 빌고빌며
물을 달라 빛을 달라
쳐다보던 하늘입니다

이제 잠시후면
이 물바다 하늘우에
내 고향 처녀들 선녀가 되어
머리수건 팔랑 기계를 타고
노래를 뿌리며 두벌김 땀테니

그러면 다정히 웃을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두손을 잡고
우리를 반기며
행복한 이 땅의 주인들을 향해
고운 웃음 펼칠것입니다

아, 수령님 보내주신 서한의 빛발타고
이 땅에 펼쳐지는 사랑과 은덕이여
아마도 김매는 이 계절을 기다려
하늘도 땅에 내리어
복받은 이 땅과 우리모두를
높이 하늘우에 받들고픈 모양입니다

남산의 소나무와 더불어 푸르른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

리수립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나라 반 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탄생하신 10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반 일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애국자, 선구자로서 시가문학을 인민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의 무기, 투쟁의 힘있는 수단으로 보시고 전민족을 조국광복대업에 불러일으키시는 불멸의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작품들은 주체혁명문학사의 첫머리에 영광으로 빛나 그 역사적시원을 긍지높이 전하고있으며 우리 문학을 영원히 애국과 혁명의 한길로 이끄는 투쟁의 기치로 휘날리고있다.

1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지원》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시대정신이 투철한 시세계를 창조함으로써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전민족을 불러일으킨 투쟁의 노래였다.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는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가치로 되여야 한다.》

시가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는 그 서정적형상이 참다운 인생관에 바탕을 둔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으로 시대와 역사의 물음앞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데 따라 결정된다.

인민의 운명이 도란에 빠지고 민족이 구원을 갈망하는 절박한 시기일수록 시가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문제는 전면에 제기된다.

위대한 애국자,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시가문학에 《지원》의 애국적인 인생관을 관통시키고 시대정신을 투철히 구현함으로써 매 편의 작품들을 명실공히 창경과도 같이 버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을 관통하는 사상정서적지향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불타는 애국의 열정이다.

조국의 광복위해 불타오르는 애국의 시적열정, 이것은 김형직선생님

의 혁명관이자 인생관이었던 《지원》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솟아오른 위대한 심장의 불길이고 메아리였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서는 뜻을 원대하게 품고 비록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미래를 사랑하며 앞날의 승리를 확신하고 곳곳이 나아가야 한다는 《지원》의 애국사상은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의 기초를 이룬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의 대표작인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지원》의 혁명관, 인생관에 뿌리박고 타오르는 애국의 숭고한 시적열정을 정수적으로 선명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1.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보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2.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3.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게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모진 풍상에도 끄떡없이 역세게 서있는 소나무,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청청한 빛을 뿌리면서 끝끝내 새봄을 맞고야마는 소나무의 곳곳 기상한 김형직선생님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감명깊이 안겨주는 서정적형상이다.

사시장철 푸르러 변함없는 소나무는 김형직선생님의 굳은 혁명적 절개와 투쟁정신의 상징이며 천신만고를 이겨가며 기어오르고야마 봄을 그리는것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 랍관주의정신의 강렬한 표현이다.

바로 여기에 《지원》의 애국사상과 인생관의 감명깊은 정서적개방이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타는 애국

의 열정을 조선의 기상과 향취가 넘치는 소나무의 비유적형상으로 훌륭히 구현하면서 시적정황과 서정적체험간의 대조로써 심화발전시킨 형상수법과 감정조직의 우수성, 서정구조의 완벽성과 시어구사의 묘지를 두고 우리는 이 작품을 주체혁명시가의 첫머리를 빛나게 장식한 기념비적작품으로 자랑한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이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전반에서 차지하고있는 핵심적인 위치와 역할도 응당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백절불굴의 투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이 하나로 얹혀 세차게 타오르는 열정, 이것은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전반을 관통하는 애국의 혈맥이다.

투지와 신심이라는 두줄기 정신적 흐름이 하나로 얹혀 굽이치는 조화로운 련관속에서 애국의 열정은 외적인것과 내적인것, 현실적인것과 미래적인것의 통일속에 다각적으로 령체적으로 웅심깊이 천명된다.

실로 《지원》의 인생관에 뿌리박은 독특한 시적열정은 시세계를 혁명적으로 강렬하게,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그리고 주제적으로나 양상적으로 다채롭게 부각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시의 사상은 이처럼 당대 시대의 참다운 인생관에 토대하여 열정으로 굽이치고 시대정신의 첨단을 찌를 때 인민을 깨우치며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날릴수 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에 관통되어있는 애국의 웅심깊은 세계가 《지원》의 인생관의 터전에서 용융히 우러나오는것이라면 선생님의 시가문학의 예리한 문제성은 투철한 시대정신의 첨단에서 빛발치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역사의 새벽길을 앞장서 헤치신 위대한 선각자의 예지로운 안광으로 시가문학에 현대정신을 예리하게 구현해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 전장에 울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와의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을 가지게 된것은 현대정신을 시가문학의 생명으로 여기신 투철한 혁명적시학관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창작의 첫걸음에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온갖 진부한 사상조류를 배격하고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구원할수 있는 시대의 선진사상을 모색하시였으며 그것으로 시세계를 뚜렷하게 부각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정신가》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일제에게 짓밟힌 당대의 비참한 현실을 가슴아파하시면서 독립의 그날을 투쟁으로써 쟁취하리라는 강렬한 의지를 토로하시였다. 이처럼 견결한 투쟁정신은 역사철사로 결박한 나를 동무들의 손으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민족의 단합된 투쟁력량에 대한 확신과 결부되어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그 첫걸음에서부터 조국의 광복을 결사의 투쟁으로 이룩하려는 혁명정신과 그것을 민족의 대단합으로 담보하려는 철저한 자주사상을 담은것으로 하여 시대의 선도자적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순수한 《제물》만으로 국권회복을 설교하거나 《내수의학》으로 외세의존적인 근대문명을 추구하던 부르조아 《애국주의》 시가의 세계에서 볼수 없는 새것이다.

실로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당대의 반일애국문학이 가지고있던 사상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시대정신의 앞장에 나선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시가문학이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시대의 선진사상을 탐색하시고 시세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지였다.

우리는 시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에서 1910년대말 압록강연안지대로 투쟁무대를 옮기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에 무르익히신 새로운 리념, 새로운 시세계를 찾아 본다.

달밝은 완월루에 높이 올라서
동주성 바라보니 감개 깊어라
북변강 배사공의 구슬픈 저 노래
구봉산 기슭에 메아리치네

네 모습 예로부터 아름다와서
길손의 시흥을 불러줬건만
왜놈의 학정아래 눈물지으니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었네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관가리싸움에 이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온다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나가지
여기에는 끝없이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잃은 서정적주인공의 비분강개한 심정우에 기어이 조국을 광복할 역센 의지가 펼쳐지고있다.

여기에는 근로하는 무산민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될 새 나라를 세울 숭고한 이상이 새롭게 맥박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투쟁의 의지는 원수들과 총검을 잡고 싸울 무장투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정신의 나래칩과 결합되어있다.

이렇듯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전진하는 시대의 첨단에 서시여 탐구한 그이의 선진사상의 정열적인 개방이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철학적으로 웅심깊을뿐 아니라 문제성이 예리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일제침략자에게 짓밟힌 조국을 두고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며 싸울것인가 하는 시대의 심각한 물음에 가장 높은 삶의 위치에서 가장 뚜렷하게 시적해답을 주시였다.

선생님의 불후의 시가작품들은 실로 인민대중을 조국의 광복을 위한 성전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킨 참된 삶의 노래였고 투쟁의 기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친필하신 시가작품들은 혁명적시가문학에서 사상의 위력이 그 철학적집오성과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을 튼튼히 결합함으로써 마련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준다.

참다운 인생의 관점과 태도를 깨우쳐주는 생활철학과 투쟁의 진로를 밝혀주는 예리한 문제성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시세계는 시문학으로 하여금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는 사상적담보이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이 사상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험의 귀중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2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위력과 감화력을 가지게 된것은 또한 혁명적서정성을 높은 경지에서 실현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서정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서정성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다.》

혁명적시가문학에서 서정성은 혁명투사의 숭고하고 영웅적인 사상감

정을 생활적으로 주정화한 혁명적서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창작하신 시가문학은 혁명적서정의 본도를 밝혀주는 참다운 서정적형상으로서 혁명적시가문학의 정서적 기능과 감화력을 최상의 높이로 끌어올렸다.

선생님께서 천명하신 혁명적서정, 그것은 전투적기백과 랑만적열정, 민족적정서의 3자가 결합된 독특한 정서세계, 서정적성격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조선의 아들, 조선의 애국투사의 영웅적형상을 정서적으로 빛나게 부각하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형상의 정서적특질은 무엇보다도 전투적인 기백과 랑만적인 정서의 결합으로 일관되어있는데 있다.

...

청년들이 가는 앞길 태산과 같이 험하다

고생함을 락심 말고 나아가갈 때에
청년들이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문명부강계

선생님의 여러 작품들이 다 그러하듯이 《진진가》만 보아도 크고 험한 산악을 헤치고 넘어 애국의 한길로만 나아가는 불굴의 정신이 문명부강할 미래에 대한 랑만적감정과 연결되어 발랄하고 약동적인 행진의 음조를 날고있다.

선생님의 시가문학에 주어진 시적정황은 일반적으로 엄혹한것이 특징적이다.

앞길을 가로막는 험산, 전진을 굽혀보려는 사나운 눈보라, 역사철사로 결박한 침략자의 죄사슬 등은 일제강점하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예리하게 반영한 시적정황이다.

서정적주인공은 바로 이처럼 간고하고 준엄한 정황을 불굴의 의지와 승리의 신심에 넘쳐 맞받아나아가는 영웅정신과 랑만적열정의 체현자이다.

몸이 찢겨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혹한 압제를 짓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광복하며 내가 못다하면대를 이어서라도 해내고야말리라는 혁명가의 불굴의 투지와 자기 희생정신, 고난이 제아무리 앞을 막아도 그를 뚫고 용기백배 승리의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만 나아가는 전진의 기백 등은 이 시가문학으로 하여금 전투적열정과 랑만적정서로 충만되게 한 주되는 요인이였다.

특히 선생님의 시가문학에서 랑만적열정은 필승의 신념과 승리에 대

한 열렬한 지향에서, 조국광복의 미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감정에서 강렬히 발현되었으며 그것은 낭만적인 어조와 격조, 시적과장과 상징, 비유적수법들의 활용, 호소적이며 낭만적인 시어, 사색적이고 여운적인 표현 등에 의하여 인상깊이 부각되고 있다.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
하해의 티끌같이 떠서 다니나
잃었다고 울지 말아 우리 민족
우리 나라 회복할 날 멀지 않으리

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서정적형상은 조국광복의 신념에 기초하여 하해의 티끌같이 떠다니는 동포들을 향하여 비판없이 곳곳이 살아가자고 호소하는 혁명적 낭만으로 넘치고 있다.

양춘이 오랜 소생할것이니 새봄맞이하는 그날 독립만세를 불러달라고 절절하고 환희롭게 웨치는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낭만적열정은 또 얼마나 강렬한것인가.

이처럼 강렬한 낭만적열정은 애국투사의 거대한 영웅적성격을 부각하는데 이바지한다.

선생님의 시가형상은 애국투사의 영웅적성격으로 특징적이다. 그것은 중요적성격을 띤 작품의 경우에도 예외로 되지 않았다.

레를 들어 《자장가》와 같은 시가들에서의 시적형상을 보아도 요람속에서 아기를 잠재우는 어머니의 안온하고 순수한 사람의 정서와 구별된다. 이러한 시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빨리 성장하시어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건져줄것을 바라시는 열렬한 지향과 그러한 민족의 영웅을 안아키우시는 조선의 어머니로서의 높은 리상과 포부, 그 사랑속에서 자라는 아기의 위대한 영웅적성격이 뜨겁게 노래되고 있다.

낭만적열정은 바로 이러한 영웅적성격들을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의지적인 각도에서 더욱더 거대하고 강렬한 형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이러한 영웅적성격을 또한 짙은 민족적정서로써 조선적인 형상으로 전환시킨다.

선생님의 시가형상에는 발랄하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며 그리면서도 은근하고 부드러운 맛을 주는 민족적정서가 넘친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자주적인 존엄을 묵숨처럼 소중히 여겨온 기개높은 민족으로서 하늘이 무너진대도 비판을 모르고 생기에 넘쳐 명랑

하게 살아왔으며 어둡고 침침한것을 싫어하고 밝으면서도 부드럽고 은근한 정서적느낌을 즐겨왔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선생님의 시가문학에서 혁명적인 열정, 전투적기백과 낭만적정서에 튼튼히 유착되어 서정적형상을 외유내강한 조선의 애국투사의 민족적성격으로 부각하게하였다. 이것은 혁명적서정의 인민적바탕을 강화하는 주되는 조건이다.

푸른 소나무에 상징된 기개있고 씩씩한 기상과 《전진가》에서 노래된 약동적인 정서 그리고 《자장가》에 담겨진 부드럽고 은근한 정서와 같은것은 진한 민족적정서로서 혁명적인 시세계, 영웅적인 서정적 주인공을 조선적인 성격으로 부각시킨 뚜렷한 실례들이다.

이러한 민족적정서는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사랑하며 즐겨 써온 생활적비유와 인민적인 형용어, 순탄한 시문장조직과 전통적인 음수들 등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참으로 민족적향기 짙은 생활서정의 바탕위에 전투적이고 낭만적인 기백과 열정을 펼친 선생님의 시가형상은 혁명적서정의 본도를 실천적으로 명시하는 귀중한 본보기형상으로 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친필하신 시가작품들은 혁명적시가문학에서 형상성의 높이가 전투적기백과 낭만적열정, 민족적정서의 3자를 튼튼히 통일시켜 혁명적서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담보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준다.

혁명가-투사의 영웅적성격은 생활에 대한 정서적태도에서 전투적기백과 낭만적열정을 기본으로 내세우며 그것은 또한 투사의 민족적성격으로 하여 조선적인 정서적바탕위에 구현되어야한다.

혁명적서정이 전투적기백만을 추구하고 낭만적열정을 잃는다면 그것이 외궂으로 단순화될것이며 기백과 낭만이 민족적인 정서적색갈로 안받침되지 않는다면 혁명적서정의 인민적성격이 허약해지게 된다.

우리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서정성의 추구에서 그 어떤 범박한 정서세계가 아니라 전투적기백과 낭만적열정, 민족적정서가 결합되어 넘쳐나는 혁명적서정의 참다운 세계를 적극 탐구함으로써 대중을 정서적으로 수양하며 조선의 영웅투사로 준비시키는 수단으로 높이 발전하여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이 서정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험의 귀중함은 바로 여기에 있

다.

3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위력과 감화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것은 또한 시가형식의 대중성, 통속성을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시가작품들을 광범한 대중의 소유로 전환시킨데 있다.

시가작품이 수천만의 광범한 대중을 장악하고 동원하려면 사상적내용과 서정적형상에서만이 아니라 그 형식이 인민의 요구와 기호를 구현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선생님의 시가문학에서 형식의 인민성은 주로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간결성, 인민의 기호를 반영한 생동성을 실현함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시가작품창작에서 웅대한 구상을 간명한 서정구조형식에 담기 위하여 애쓰시였으며 심오한 서정세계를 참신한 생활적언어표현에 담기 위하여 노력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실 서정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양양되고 승화된 격정을 터치는 시가문학은 간결하기마련이며 대중은 짧고도 짙은 시작품을 요구한다.

선생님의 시가문학작품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가슴에 안고 유구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를 부감하며 터치는 웅건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담으면서도 서정구조가 지극히 간명한것으로서 특징적이다.

이것은 형식의 대중성, 통속성을 지향한 창작적탐구의 결과이다.

시형식의 간결성을 위하여 선생님께서서는 민요와 국어시가의 간명한 민족적형식을 살려나가는데 힘을 넣으시였다.

민요의 절가형식이 창조한 7.5조를 기본음수물로 삼은 4행시가작품들이며 특히 중세문학이 개척한 단시형식인 시조의 형상적특징을 창조적으로 살린 작품들이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시조의 우수한 형상적특징을 살리어 웅건한 구상을 간결한 서정구조에 담은 훌륭한 서정시작품이다.

이 작품에 구현된 시조의 간결한 형식미는 무엇보다도 초, 중, 종, 장장의 3부분 형식에 감정발전선의 기승전결과 론리전개방식의 3단론법을 조화롭게 통일시킨 묘미에서 볼수 있다.

나아가서 그것은 시형식의 간결성

과 시형상의 《맛》과 《멋》을 동시에 얻어내기 위하여 시조의 형상적특징 가운데서 비유적형상수법, 종장의 결속부에서 굴절된 표현으로 주장을 감칠맛있고 여운있게 터치는 수법들을 적극 활용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조 형식이 격식화된 운물구조로 하여 내용표현에서 구속이 많은 약점은 있지만 간결하고 함축된 시구에 깊은 뜻을 담을수 있는 우점도 있다고 하시면서 시조의 형상적특징을 살린 우리 시대의 새로운 단시와 서정시를 창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그 간결한 형식미를 보아 시조의 우월한 형상적특징을 살린 짧은 서정시라고 말할수 있다. 이 시가 보여주는 창작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한 시인들의 창작적노력에 실천적경험을 주는 귀중한 의의를 갖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심오한 정서적내용을 생동한 언어표현에 담아냄으로써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깊은 정서적여운을 주는것으로서 특징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시는 몸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할수 있는 실지 생활이 비껴있고 친숙한 생활감정이 담겨질 때 비로소 사람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선생님께서는 시와 노래들에서 상징적수법들을 널리 리용하시면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생활에 친숙한 자연풍물과 생활현상에 의탁하여 창조하시였다.

암운이 뒤덮인 당대의 비참한 현실에서도 선생님의 가슴에 끓어넘친 애국의 열정과 혁명정신, 원대한 뜻은 조국의 승업하고 아름다운 천태만상의 자연을 통하여, 대중자신이 몸가까이에서 체험하고있는 생활현상들을 통하여 가장 친숙하게 진정 뜻이 깊게 표현되고있다.

이것은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사철 푸르러 변함없는 조선의 소나무에 의탁하여 노래한 《남산의 푸른 소나무》, 새 세대의 기상을 장엄하게 솟은 봉화산의 메부리와 기세차게 흐르는 열화강의 물결에 비유하여 노래한 《명신학교교가》, 거메의 비운을 강과 바다에 떠다니는 티끌의 신세에 비유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 등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본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전진가》의 비유적형상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이요
우리들의 적은 지식 발달하기는 천신만고 지난후에 능히 하리라
...

2. 오고가는 바람형세 맹렬한것은 무형무색 공기들이 회합함이요
우리들의 적은 사업 성취하기를 뇌심초사 힘써함이 이것 아닌가
...

여기에는 산곡간의 적은 물이 모여 무한한 대양을 이루며 무형무색 공기들이 뭉쳐 맹렬한 바람을 일구는 지극히 평범한 자연현상이 지식의 축적과 사업의 성취에 기울어야 할 천신만고와 뇌심초사를 비유적으로 인상깊이 새겨주는 형상적수단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 자신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으로 인민대중을 깨우치고 부단히 미래에로 지향시키기 위하여 시의 매 글줄과 말마디들을 그들의 생활적 감정과 기호에 맞는 친숙한 표현들로 다듬고 또 다듬으시였다.

그리하여 선생님의 작품의 언어들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하며 누구에게나 다 이해되는 간결한것이면서도 시적사상을 가장 뚜렷하고 깊이 있게 안겨주는 인민적인 시어들이다. 이러한 시어들은 또한 청소년들과 일반대중 등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택적으로 씌여지고있다.

선생님께서는 고유한 우리 말을 널리 쓰시면서 당시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던 말들을 작품에 옮겨 시적사상을 적중하게 부각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에 담긴 사상과 시정신은 매우 심오하고 거창한것이면서도 형식은 언제나 간결하고 평이한것이었다.

선생님의 시가작품들은 혁명적시가문학에서 시가형식을 철저히 인민적인것으로 창조발전시킬데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광범한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즐겨받아들일수 있는 형식의 간결성과 생동성은 혁명적시가문학이 가져야 할 대중적인 형식의 기본특질이지만 그것이 결코 웅건하고 심도깊은 사상정서세계의 구현을 저해하거나 시형상의왜소화, 비속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되여서는 안될것이다.

우리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웅건한 형상을 담아낼수 있는 간결한 서정

구조, 심도깊은 정서를 천명할수 있는 생동한 언어표현의 탐구에 힘쓰므로써 인민적인 시가형식이 시형상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담보가 되도록 그것을 높은 경지에서 창조하여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이 형식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험의 귀중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에서 이룩된 혁명적인 사상, 서정적인 형상, 인민적인 형식은 우리 나라 시가문학에서 새로운 높은 발전을 이룩한것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그 사상예술적높이에서 항일혁명가요 이전시기 시가문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자랑하는 불멸의 시가문학이다.

이 시가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창시의 문학적전으로 된 영광스러운 문학이며 우리 나라의 시가문학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가문학으로 혁신시키는 선구자적역할을 담당수행한 의의깊은 문학이다.

선생님의 시가문학에 충만된 애국에 불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시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가요예술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불후의 사상예술적가치를 가지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작품들은 우리 나라 혁명적시문학이 대를 두고 물려줄 귀중한 재부로 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불멸의 작품들은 오늘 선생님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과 작가들에게 생활과 창작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시가사의 첫머리에서 남산의 소나무와도 같이 영원히 푸르러 그 청청한 빛을 만대에 길이 전할것이다.

력사의 그 봄날 외 1 편

리동후

봉화산 봉화산
키를 솟군 너의 기상
장엄하여라
타오르는 봉화인양
아아히 하늘가에 닿았구나

언제나 그리움속에 안아보던
유서깊은고장
마음 앞서 한달음에 달려왔건만
숲속의 오솔길에
선뜻 발걸음 옮기기 저어하노라

어디나
압제의 검은 구름 한몸으로 밀어내실듯
헐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김형직선생님 봉화산에 오르시던
그날의 자옥어린 그 오솔길은

어디메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함은
민족지상의 과업!
회원들을 부르시여
결사의 각오를 피로써 다지자고
흰 무명천을 펼치셨던 너력바위는

《지원》의 원대한 뜻으로
국민회투쟁방침 밝히신 선생님
결연히 앞을 나서시여
심장의 붉은피로
무명천에 새기신 불멸의 혈서여

《조선독립》

한몸 반일성전에 바치여
나라의 독립을 기어이 성취하자고
심중에 다지신 철의 신념
불굴의 녀은
글발마다 력력히 살아숨쉬여라

그 신념 그 녀은
그대로 회원들 가슴에 새겨져
불사의 용맹과 슬기를 가다듬고
광복전에 펼쳐나섰거니

아, 력사의 그 봄날
국민회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쓰신
《조선독립》은
무산민중의 영원불멸할 좌우명으로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기치로 되었어라

종소리

걸음걸음 마음 경건히
명신학교 프락에 들어서니
정결한 교정에 고요는 깃들어도
추녀밑에 매달린 무쇠종은
은은한 메아리로 이 가슴을 흔드는듯

들려와라
눈물에 얼룩진 아이들
키낮은 교실에 불러앉히고
무산혁명 기동되라 키우시며
김형직선생님 올리시던 그날의 종소리

저 종소리
봉화리 하늘가를 넘어
해방된 조국땅 해빛밝은 교정에

사회주의 내 나라 과학의 전당에
오늘도 끝없이 울려퍼지나니

저 종소리 울려가는 메아리속에
나는 듣노라
축복받은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 노래소리
선생님의 원대한 뜻 피어나고있음을

끝없이 물결치며 찾아오는 사람들 가슴속에
애국의 참뜻을 깨우치며
문명의 새 세계에 불려이끌며
배움의 영원한 선언처럼 울려오는
아, 종소리 혁명의 종소리여!

특색있는 시형상으로 노래한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

신경애

신념이 강하고 정서가 짙은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기 마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최근에 창작하여 형상한 좋은 노래입니다.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곡도 좋지만 가사가 더 좋습니다. 이 노래가사에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굳센 기상과 모습을 소나무에 비유하여 잘 형상하였습니다.》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정성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더욱 억세여가는 내 조국의 기상과 모습을 푸른 소나무에 비유하여 절절하게 형상한것으로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미학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우리 시대의 명가사이다.

가사가 비상한 감화력과 깊은 정서적여운을 가지고 만사람의 심장을 한순간에 휘어잡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소나무의 기상에 비유하여 진실한 시형상속에 소박하게 노래한데 있다.

한세대에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은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올때면 수천만의 총폭탄이 되어 당과 수령, 사회주의제도를 결사옹호하고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철의 신념과 의지에 충만되어있다. 이런 신념과 의지에 떠받들려 날에날마다 새 기적을 창조하는 우리 조국, 거창한 이 현실을 뜨겁게 체험한 시인의 불타는 심장속에서 소나무와 조국에 대한 독특한 비유가 창조된 바로 여기에 이 가사의 형상적매력이 있다.

소나무와 조국! 얼마나 끝없는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비유인가.

세상만물에도 때와 철이 있지만 소나무는 흰눈이 온 강산을 뒤덮는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푸르려 설레인다. 하여 우리 인민은 오랜 옛적부터 굳세고 변함없는 기상을 소나무의 기상에 비유하여 전해왔다.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 모진 추위속에서도 푸른 잎새 변치 않는 소나무, 흰눈을 머리에 이고서도 푸른 기상을 떨치는 소나무는 우리 조국의 도도한 기상이고 영원불멸한 모습의 상징이다.

우리가 흔히 보아오는 소나무이지만 시인은 소나무의 자연적현상을 시대적요구, 사회적문제성속에 고찰하고 그것을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으로 전

환시켜 가사전반을 관통하고있는 사상적알맹이를 해명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가사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보느라하면 그 내용을 잘 알수 있다.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띄이고서
푸르려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세상이 변한대도 제모습 잃지 않을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잎이 진 수림속에 앞날을 그려주며
희망의 등대처럼 푸르려 설레이는 소나무여
드넓은 이 세상이 모두다 우러르는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가사의 1절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에도 끄떡없이 날로 튼튼번영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장한 모습을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띄이고도 푸르려 설레이는 한그루의 소나무에 비유하면서 세상이 열백번 변하여도 언제나 한모습으로 솟아있을 우리 조국의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또한 가사 2절에서는 잎이 진 수림속에 앞날을 그려주며 희망의 등대처럼 푸르려 설레이는 소나무의 형상을 통해 동방일각의 사회주의보루로 높이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집약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소나무의 역셈은 추위를 통해 알게 되고 조국의 참모습은 역경을 통해 알게 된다.

잎이 무성한 수림속에서는 소나무의 푸른 기상에 대하여 다는 알수 없다.

지구상의 여러곳에서 사회주의기치가 휘날리던 때에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진가에 대하여 다는 알수 없었다. 그리니 지구촌의 어느 한곳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오늘의 현실태를 부감하면서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성새인 우리 조국의 위용을 생활의 순간마다 심장으로 체득하고있다.

오늘 우리 사회주의는 인류희망의 등대이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혁명적당들을 재건하고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가사의 이런 사상정서적내용이 고조를 이루며 우리 조국이 어떻게 그처럼 억세고 존엄높은 인류의 희망봉으로 되고있는가를 형상한 가사의 3절.

태양이 안기여준 푸르른 그 기상을
 곳곳이 보여주는 억세인 소나무여
 우리 당 손길아래 천만년 길이 빛날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태양의 빛을 받아 소나무가 사시장철 푸름을 자랑하듯 우리 사회주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와 괴뢰들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핵사찰》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말살하려 하였을 때 지구도 멈춰세울 명장의 지략과 대응단으로 《세계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제를 조미회담장에 끌어내어 철퇴를 안기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제국주의강적들도 감히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한치도 건드리지 못하였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복잡한 세계정세속에서도 푸르른 소나무와 같이 제 모습 잃지 않고 더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굳건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백두의 기상은 곧 조선의 넋과 기상, 조선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하나의 대가정》,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등 사회주의조국을 노래한 훌륭한 가사들이 이미전에 수없이 나왔지만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처럼 소나무에 비유하여 조국의 억센 모습과 기상을 형상한 생활철학적인 가사는 없었다.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이처럼 소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 조국의 기상을 시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것이라는 가사의 사상적알맹이를 민족적정서가 짙은 서정속에서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함축되고 세련된 시형식속에 시대정신이 비친 사상적내용을 담음으로써 생활철학적인 가사를 창작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이 철저히 구현된 명가사로 되었다.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가 오늘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가사로 되는것은 또한 민족적 정서와 구미에 맞는 시적 표현과 운율을 탐구활용한데 있다.

우리는 가사에서 소나무와 조국에 대한 비유적형상이 비슷비슷하면서도 각이한 뜻을 나타내고 점차 승화된 사상감정으로 안겨오는것을 느끼게 된다. 왜냐면 그것은 가사에 함축성있고 비유에 적중한

표현을 쓰고있으며 민족적구미에 맞게 시어구사와 시문장조직을 하고있기때문이다.

시적표현은 가사형상의 예술적효과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형상수단의 하나이다.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언어선택에서 비유법에 가장 어울리는 생활어를 기본으로 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가사에 나오는 일새, 흰눈, 소나무, 내 조국, 희망 등 언어표현들과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한그루 소나무여》 등은 비유에 가장 적절한것들이고 다 평이하고 함축성과 톨동성이 보장된 표현들이다.

실례로 《무성한 일새》, 《잎이 진 수림》, 《한그루 소나무여》, 《태양이 안기여준》 등 표현들은 모두 자연적현상인 동시에 시인에 의해 사상미학적으로 탐구된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그리고 《희망의 등대처럼 푸르른 소나무여》라는 짧은 시구를 보아도 우리 사회주의는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조국도 위대하다는 사상을 내포하고있다.

이렇듯 가사는 요란한 정치적표현을 람발하지 않고도 평이하고 간결한 생활어를 탐구활용함으로써 가사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소박하면서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하여 사람들은 조국에 대한 많은 련상을 불러오고 깊은 사색과 여운에 잠기게 된다.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에서 민족적 정서와 구미에 맞는 운율이 이루어지도록 시문장을 조직한것도 매우 특징적이다.

운율은 시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형식의 중요한 요소이다.

가사는 전렴구에서 7.7조와 후렴구에서 8.8조를 기조로 한 시행을 묶는 방법으로 유순한 민족적운율을 조성함으로써 가사의 서정구조를 한층 짚이게 하고있다.

고도로 양양된 시인의 불타는 열정과 호흡을 타고 민족적인 운틀로 시어를 구사하고 시문장을 조직한것은 소나무에 대한 평면적인 설명라렬을 가져온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에 대한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렇듯 가사는 시인의 끝없는 사색과 열정 속에 탐구된 철학적인 종자를 짙은 민족적정서로 특색있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숭고한 조국애로 가슴설레이게 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가사에 형상된 한그루 소나무는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인류의 리상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는 현대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이며 현실그대로의 모습이다.

하기에 외국의 벗들은 말한다.

《지구를 휩쓰는 그 모진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는 나무로 말하면 가지 하나 잎사

귀 하나 떨어져나가지 않았고 건물로 말하면 유리 하나 금가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가지와 잎사귀를 더 활짝 펼치며 푸르싱싱히 자라고 보란듯이 성공탑을 쌓아가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수령복을 지닌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기상은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와 더 불어 더더욱 억세어갈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가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와 함

께 가요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부르며 혁명적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경제 전략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노래는 멸적의 힘이고 필승의 무기이거늘...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미학사상을 창작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와 같은 명가사,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어머니의 마음

민항숙

원한에 서린 신천땅에
또다시 꽃들은 피어나고
불밝은 창가엔 행복이 웃는 밤

밤이 새면
야영의 길 떠나는 내 딸
사랑의 새옷에 야영모 쓰고
제모습 하도 고와
기쁨에 넘쳐 몇번이고 거울앞에
서보며
속삭이여라
-어머니, 내가 꼭 어머니를
닮았대요

-영희야! 누가 그러던?
하던 일 멈추고 다정히 바라보는데
어째서인가
뿌연게 흐려오는 나의 눈앞엔
너 아닌 하나의 또렷한 모습

해저문 저녁
집없는 아이
원췌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피에 젖은 어머니의 가슴을 허비며
아 몸부림치던 소녀

나이도 네 나이

시절도 그 시절
못잊을 추억을 불러주며
눈물에 젖어 다가서는 어린 내 모습
불행도 괴로움도 모르고
거울속에 한떨기꽃처럼 아롱지는
너를 불안고
오늘도 내 또다시 운다

그러면 가슴가득 차오르는
뜨거운 생각-
하늘땅이 불타던 전화의 그날에도
학원에 불러주신 못잊을 사랑이여

어머니 그리울세라
풍금소리 맞추어 행복의 노래
주시고
나도 잊은 내 생일날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푸짐한 상에
손잡아 앉혀주시던 그 은정

때로는 저도 모르게
봄싹처럼 부푸는 가슴에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주며
가슴속 소중한 희망도
속삭여주었나니

눈물없이 그 품을 그려볼수 없고

가슴속 맹세없이 그 영상 우려했수
없는
어머니 아 나의 어머니
영원한 우리 당의 사랑의 품이여

더는 묻지를 말아다오
-어머니 왜 또 우나
아직은 행복에 겨워
어머니란 말뜻조차
다 모르는 내 딸아

행복하면
불행하던 지난날을 잊는다 하건만
세월이 가도 가슴에 더더욱 사무쳐
오는
사랑의 품이 있나니
슬픔의 눈물은 이겨낼수 있었어도
행복의 눈물만은 참을길 없는 이
마음

딸아, 나의 모습이
너도 크면 언젠가는 알게 되리니
어머니라 부르는 네 순진한 속삭임
내 선뜻 받아안을수 없는 이 마음
아, 어머니도 따르지 못할
위대하고 소중한 크나큰 그 품에
너와 나 우리모두 안겨있구나!

흰 운동화

김리돈

나는 요즈음 텔레비존과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사회에 꽃피는 참다운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40여년 세월이 흐름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은채 더더욱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자그마한 사실을 다시금 새겨본다.

불비 쏟아지는 포연속에서 생사를 가르는 일도 아니고 극히 작은것에 지나지 않는 흰 운동화에 대한 회상이 오랜 세월속에서도 이처럼 잊혀지지 않는것은 왜서일까...

전쟁이 일어난 그이듬해 여름이었다.

그날은 겨금내기로 울리는 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듯 젖빛안개가 한가로이 떠도는 이른아침이었다.

나는 후방의 어느 한곳에서 열리는 전투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의 경험교환회에 참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잡아타았다. 청청한 나무가지들로 위장한 자동차는 녹색주단위에 하얀 자막대기를 건너지른것 같은 신작로를 따라 기세줄게 달렸다. 초여름의 후더운 바람이 상처입은 강산을 쓰다듬으며 꽃향기를 실어왔다. 푸르른 나무아지들은 잎새마다 가다가닥 별을 물고 길손들에게 미소를 뿌렸다.

오래동안 적들과 총을 맞대고 낮과 밤을 보내던 나에게 있어서 후방은 눈에 보이고 살결에 와닿는 그 모든것들이 생신한 감흥을 주는 별천지같았다. 푸른 물이 든것 같은 바람이 포연에 절은 폐장을 말끔히 가셔내는것이였다.

적재함은 비였는데 타고가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갑갑할 지경이었다.

원래는 경험교환회에 우리 분대장이 선발되었는데 밤사이에 갑자기 그 영예가 나에게 차례졌던 것이다.

우에서 전사를 참가시키라는 명령이 다시 하달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분대장이 중대부에 드나든 결과인것만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돌발적인 행운을 깊이 음미해볼 형편이 못되어서 분대장이 기울인 노력을 어렵듯하게나마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자동차는 신작로의 바깥 마른 먼지를 자오록이 말아올리며 달렸다.

텅 빈 도시, 불타버린 마을, 무너진 학교...

하지만 등에 풀대를 꽃고 김매는 녀인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울려오는 아이들의 청아한 노래소리는

그대로 꺾이지 않는 우리 인민들의 의기인양 류다른 충격을 주었다. 모든것이 부서지고 조각이 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살림은 다시 꿰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지를 며칠 앞둔 날씨는 고치장마라도 몰아오르는지 몹시 찜찜했다.

자동차는 중낮이 가깝도록 뽕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달리다가 두 신작로가 엇갈리는 십자길 한옆에서 멈춰섰다. 갈길이 아무리 멀고 나빠도 싱싱한 나무가지로 위장을 다시 하고 자동차의 물도 갈아넣어야 했다.

적재함에서 뛰어내려 보도랑물에 세수를 한 나는 아름다리 백양나무밑에서 땀을 들이고있는 나이지속해보이는 어떤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말을 걸어보고싶었다.

《어머니, 어딜 가시는 길입니까?》

나는 절도있는 동작으로 레를 표하고나서 반죽종게 물었다.

보퉁과 논두렁으로 잡자리를 쫓는 일여덟살 났음직한 소년을 바라보며 부들부채로 땀을 식히던 어머니는 나를 흘끔 올려다보더니 반갑게 웃었다.

《저녀석 외가집에 간다우. 녀석을 데려다주려구...》

한많은 생애의 흔적인듯 얼굴은 주름투성이였으나 기골이 험한해보이는 어머니였다. 갑갑해하다가 이야기상대를 만난것이 무척 기쁜 모양이었다.

《임자네들은 어딜 가나?》 그 물음에 내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어머니는

《내가 공연히 물었군. 군대일이야 다 비밀일테니까... 자, 이거루 땀이나 식히라구. 내 아들두 군대야.》 하며 부채를 쥐여주었다. 사양했으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손자가 뚜렷뚜렷하게 잘 생겼습니다.》

정말 든든하게 생긴 녀석이었다.

《제 애비를 닮아서 미끈하대네...》

손자칭찬에 흐뭇해진 어머니는 어느새 입이 귀밀까지 돌아갔다.

소년은 논두렁에서 《파리 잡아줄게 꼭꼭 붙여라.》 하고 청을 뿜으며 마른 축대 끄트머리에 앉은 잡자리에 정신이 팔려 살금살금 다가들고있었다.

알몸뚱이시절에 끼니를 건는채 온종일 잡자리를 잡아본 나는 금시 소년과 한마음이 되어 제발 잡자

리가 날아나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다.

《애 선돌아, 눈에 빠질라.》

노상 걱정이 잦은 어머니는 종시 미타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닐세라 바로 그 찰나 밝은 흙덩어리가 부스러지며 미끄러지는 바람에 선돌이라고 불리운 소년은 그만 모살이가 끝나 검스레해진 논판에 한발을 구겨박았다.

《할만!》

돌연 울상이 된 선돌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픽-하고 웃었다. 나 역시 저렇게 여러번 빠져보았던 것이다.

《애고, 끝내...》

어머니는 허겁지겁 일어서더니 벗어놓은 고무신도 신지 못하고 달려갔다.

고래논은 선돌의 먼지오른 허벅다리까지 빨아들었는데 그는 제 힘으로 발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다. 울데갈데없는 응석반이었다.

덩달아 뒤따르던 내가 부채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선돌을 덤석 안아 눈두렁우에 올려놓았다.

선돌이가 신고있는 눈이 부신 흰 운동화가 대뜸 나의 눈길을 끌었다. 물론 논판에 빠진 왼쪽은 시꺼먼 감탕매닥질이 되어 말이 아니었다.

《일없다. 빨면 또 하얘질걸.》

어머니는 모시적삼고름이 논물에 뜨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벗겨낸 운동화를 빨았다. 손자를 끔찍이도 애지중지하는 로친이었다. 늙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손자를 더 귀여워한다는 말이 옳았다.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 같은것들은 오직 손자들 파만 련결되어있는것 같았다. 모름지기 그것은 손자들만이 인생말년에 찾아드는 고독을 막아주기때문인지 모른다.

나는 자석에라도 끌리듯 깨끗이 뺀 운동화의 물기를 탁탁 털며 그늘밑으로 가는 어머니와 선돌의 뒤를 따랐다. 불현듯 나의 아들 수남이도 지금쯤 잡자리를 쫓고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계집애처럼 해반주그레한 얼굴도 눈앞에 서물거렸다. 술많은 교수머리, 먼지봉당이 뽀얀 맨발...

주먹만한 돌맹이를 끌라 햇빛을 향해 운동화를 빗세워놓은 어머니는 해지기전에 마를것 같지 않은지 거기에 대고 열심히 부채질까지 하는 것이었다.

선돌은 그것이 우스워 깔깔거렸다.

나도 빙그레 웃었다.

《이리 주십시오, 어머니.》

나는 어머니대신 부채질을 해가며 운동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갓 신기 시작한 신발인데 공교롭게도 28문이였다.

순간 나는 흠칫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분대

장이 부탁하던 운동화도 흰것에 28문이였기때문이였다.

그것은 바로 부대에서 떠나기 착전에 있는 일이였다.

자동차가 막 떠나려고 할 림박에 땀이 질벅한 군복자락을 너털거리며 분대장이 달려왔다.

《영수동무, 시간이 있으면 흰 운동화를 한켠레 구해가지구 우리 집에 좀 들리라구. 28문짜리여야 해. 28문... 여기선 도무지 못구하겠구만.》

그때문에 여간 애쓰지 않은것 같았다. 달아오른 얼굴에서는 김이 문문 피어올랐다.

분대장은 다시는 입을 열지 않고 땀에 젖은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내 손에 쥐여주는 것이였다. 뒤미처 며칠전으로 일부인이 찍혀져있는 편지봉투도 받았다. 자기 안해한테서 받은 편지인데 그 주소로 찾아가면 된다는 것이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때 나는 우리 수남이한테도 한켠레 사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았다.

그런데 분대장이 부탁하던것과 신통히 같은 문수의 흰 운동화를 눈앞에 보자 다시금 그 생각을 쫓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너 몇살이나?》

《...여덟살.》

(우리 수남이하구 동갑이로구나.)

그래서인지 수남이가 더더욱 그리워졌다.

언젠가 전투여가에 나이가 동갑인 분대장과 내가 서로 형이라고 칭고 까불며 입씨름을 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분대장과 생일까지 같은달이라고는 하지만 아들을 먼저 본 내가 웅당 손우라고 우겼다. 분대장의 아들은 일곱살이고 내아들은 여덟살이었던 것이다.

다른 문제에서는 리해성이 많고 대원들을 위해서는 몸을 내대는것도 서슴지 않던 그였지만 한살 터울인 아들의 나이 덕분에 형벌이 되려는 나의 억지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분대장에게도 그럴듯한 《론거》는 있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이틀이나 먼저 나온것도 자기이고 장가를 먼저 든것도 자기이기때문에 마땅히 제가 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언제 끝이 날상실지 않아 거수가결에 붙였다. 공교롭게도 첫 거수가결은 물론 두번째 거수가결도 동대 동이였다. 세번째만에 소대장이 들어와서 나에게 합세하는바람에 결국 한점차이로 내가 이겼다. 소대장은 장가를 먼저 들었든 늦게 들었든 사나이구실을 먼저 한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였다. 그 말에 분대장은 폭소를 터뜨리며 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런 분대장이 자기 아들 생각만 했다는 것이 놀

라왔다.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감출수 없었다.

(그녀석도 28문이면 되겠는데...)

아이들이란 누구에게나 사랑이고 기쁨이다. 하지만 너나없이 가까이 있으면 시중에 오금이 쭈시고 멀리 있으면 마음이 쭈시는것이 곧 아이들이었다.

그전 삶의 막바지에 간신히 운명을 얻은 신세로 누계막같은 집에서 작수성례도 치르지 못한 안해와 내가 해방후에야 비로소 수남이를 무릎에 앉히고 결혼식상과 돌상을 함께 받은 우리들임에랴.

《이젠 그만 부치게.》

어머니의 말대로 운동화를 만져보니 벌써 꾸득꾸득한것이 부채덕을 단단히 본것 같았다.

《글쎄 이것때문에 내가 이 더위에 길을 떠나지 않았나.》

어머니는 무엇이건 마음속에 묻어두기보다 속시원히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성미였다.

《이 운동화때문이라니요?》

가뜩이나 우연한 일치에 아들을 그리며 분대장을 섭섭하게 생각하던 나는 잔뜩 호기심이 동한 눈길로 바짝 뒤를 재촉했다.

선돌이가 능청스럽게 눈총을 쏘았으나 어머니는 모르쇠하고 입을 열었다. 그는 부채질을 해가며 때를 만난듯 서둘러 이야기꼭지를 뺐다.

《보름전인가 공장에서 창고장노릇을 하는 며느리가 자동차에 수류탄인지 뭔지 실구 전선으루 나갔다가 재보다 조금 클사한 사내녀석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겠나.》

이야기를 하기도 즐기지만 그 숨씨 또한 이만저만 능숙하지 않은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전선에서 돌아오던 며느리가 황주 근방에서 식량을 실고 나가는 자동차를 만났는데 선돌이만한 아이를 데리고 그것을 호송해가는 녀인이 해방전에 무슨 공장에서 녀공으로 같이 일할 때 각별하게 보살펴주던 언니벌이 되는 녀자였다는것이 었다.

《어느해 복팔에 우리 며늘애가 고금으루 앓아누운적이 있다누만. 그때 그 녀인이 십장놈 몰래 공장 울타리를 빠져나가 금계랍을 사다주는것을 먹고 고금이 나았는데 글쎄 후에 그것이 탄로가 나서 쫓겨났대.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있었는데 오다가다 불쑥 만났으니 오죽 반가왔겠나. 며느린 해방이 되자마자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대. 그 녀자두 우리 며느리를 수태 찾아보았다구 하더래. 하난 농살 짓구 하난 공장에 다녔으니 찾기 힘들수밖에...》

그러던 그들이 뜻밖에도 그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했나. 한데 글쎄 이야기를 나눌새도 없이 비행기가 달려들더래. 망할놈들같으니...》

그런데 그 녀인이 불붙은 쌀가마니를 지어나르다가 놈들의 기총탄에 맞아 희생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며늘애가 살아남은 그 내인의 아들을 데려온것은 은혜갚음이라기보다 그애의 아버지가 제 남편처럼 군대이기때문이라구 난 생각하네.》

며느리와 어머니는 그애를 위하여 각별히 마음을 썼다. 매사를 극진히 보살폈다. 선돌이도 며칠동안은 곱살긋게 굴었다. 아마도 그것은 불쌍해서라기보다 심심치 않은 장난작패가 생겼기때문인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가겠는지?... 아닐세라 선돌은 한살 아래였지만 지다위질을 하면서 걸핏하면 싸움을 걸고 찍하면 《너네 집에 가라.》 하고 야단을 치곤하였다.

《애비 죽으면 절반 고아이구 애미 죽으면 완전고 아란 말이 꼭 옳아. 어떻게나 측은하던지... 며느리가 만류하다못해 저녀석을 때리기까지 했지만 자구나면 또 그러는걸 어쩔거우...》

어머니는 부드럽게 손자를 흘기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한번은 며느리가 구들을 말끔히 치웠다고 그 사내애를 칭찬한적이 있었는데 선돌은 그것이 언짢아 웅치고있다가 그날 저녁상을 물릴 때 터쳐놓았다. 어서 밥을 먹으라는데도 고집스럽게 우물거리던 선돌은 공연히 심술을 부리다가 남들이 다 먹고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절반도 먹지 못했다. 그래서 사내아이는 선돌이가 먹는 밥그릇과 찌개그릇만을 남겨놓고 다른 그릇들을 부엌에 내놓았다. 한참후에야 밥을 다 먹은 선돌은 응당 자기가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뜩지 않게 쏘아보며 밥그릇들을 치우라고 으르뻑뻑거렸다. 물론 사내녀석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돌은 《이걸 치우구 또 칭찬받으란 말이야.》 하고 생트집을 걸었다. 남의 집 개 칭찬하면 제 집 개 짖는격이었다.

이러루한 야료는 날을 따라 아지를 뺨고 새끼를 쳤다. 사흘이 멀다하게 울근불근하게 되고 그러느라니 서로 웅추로 지낼밖에...

《열흘전에는 며느리가 소비조합상점에서 28문짜리 운동화 두켤레를 사오지 않았겠나. 바루 이것하구 다른건 검은색이었지. 하얀것은 한켤레밖에 없더래.》

한데 운동화를 꺼내놓자마자 저녀석이 먼저 흰운동화를 나꾸어줬지. 가만 보니 그 사내애도 하얀겉 신고싶은 눈치더라. 말이야. 남의 집이니까 말은 못하고 다소곳이 입술만 깨무는것을 보느라니 얼마나 불쌍해보이던지... 아니나다를가 며느리가 옥다지르며 저녀석이 신은 이 운동화를 빼앗아 데려온 사내한테 주더군. 그러자 이녀석이 엄부력을 피우며

울음을 터뜨리는데 참... 그보다 더 좋은것을 사준다고 올려놓았지만 터세란 정말 이만저만 아니라니. 글썄 부룩송아지같은 이너석이 가만있을턱 있나.》

어머니는 여기서 이야기를 끊고 숨을 돌렸다.

그날이 우줄우줄 동쪽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땡벌은 사정없이 땅을 지졌다. 살아있는 모든것이 데친듯 휘주근했다.

《이튿날 점심때 머느리한테 밥을 싸가지고 나갔다가 일을 돕고 저녁에 같이 돌아오니 글썄 그사내너석이 대문가에 오도카니 앉아 쿵쾅쿵쾅 울지 않겠나.》

하고 다음말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눈도 불깃 불깃했다.

《저너석이 흰 운동화를 또 빼앗아 신은게로군요.》

나는 어쩐지 조바심이 나서 다우쳐 물었다. 지각망나니같은 선돌이가 충분히 그럴수 있었다.

《맞았네. 빼앗아 신구말구. 그걸 보는 내 마음도 쓰리고 아프더군. 미운 일곱이라는 말도 있지만 친손자라고 해도 여간 밍살스럽지 않더라니까.》

어머니는 손자녀석에게 눈을 흘겼으나 그 눈길은 온화했다.

웬일인지 내 가슴도 알알해왔다.

나는 선돌의 고집스러운 주먹코를 손끝으로 튕겨 주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선돌은 돌팔매질에 여념이 없는것 같았다.

머느리와 어머니가 그렇게 원심을 썼지만 선돌은 찍하면 양탈을 부렸고 그때문에 두아이는 자주 티각태각하기 일쑤였다. 다름질은 좀처럼 끝날것 같지 않았다. 그럴수록 데려온 사내애는 의기소침해졌고 별찮은 일에도 눈치만 보면서 주접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밤이었다. 두아이때문에 속올태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머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터놓았다.

《어머니, 아무래도 선돌이를 얼마동안 친정에 보내야 하겠어요.》

자기 집, 자기 어머니라는 등을 대고 업신여기는 선돌이가 없어야 주눅이 들었던 사내애가 기를 펴고 자랄수 있다는것이였다. 선돌이는 외가에 가서도 그들이 질척이 없을것이다.

《짜장 머느리의 말이 지당했지만 난 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을 못했네. 어쨌든 남의 자식때문에 친손자를 내쫓는것이여서 그닥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 말일세. 하지만 그 궁냥이 얼마나 장한가. 치마를 돌렸으니 너자지 어벌은 남정네 찜찜먹을걸세. 그래서 나두 속으루 그렇게 작정하구나서 저애 애비한테 편지루라두 물어보라구 했지. 한데 글썄 아들

하구 머느리가 단짝이 되여 날 속일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어머니는 그런 법도 있느냐고 묻듯 나의 어깨를 건드리며 웃는것이였다.

바삭 구미가 당겼다.

《나두 저희들만큼 생각하구있는데 글썄 날 케케묵은 늙은이로 치부하니 이런 패씹할데라구야... 그렇지 않나, 이 사람.》

어머니는 제발 늙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듯 내 잔등을 철썩 갈겼다.

그때 마침 발동소리와 함께 《자, 떠납시다.》 하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어머니가 어떻게 속았는지 그 내막을 알고싶었지만 나는 좀 기다려달라고 운전사에게 부탁해보지도 못했다.

나는 아쉬운대로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놓고는 적재함에 올랐다.

《어머니, 후에 또 만나게 되겠지요. 앓지 말구 오래 사십시오.》

말은 이렇게 했으나 다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니 더더욱 섭섭할수밖에...

어머니가 한 이야기들은 세상사말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애모쁜 정을 모르고 자란 나에게서는 귀가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말들이였다. 남의 이야기조차 나에게서는 기쁨이었던것이다.

어머니도 서운한 낫색으로 《웬걸 또 만날텐가. 잘 가라구...》 하고 이지러진 미소를 지었다.

나는 데려온 사내아이를 구김살없이 키우려고 《배비변경》까지 하고있는 어머니와 그 머느리의 소행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아무리 총포탄의 포효속에 목숨이 숨박꼭질하는 싸움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불모의 땅을 적시는 생명수처럼 멎든 가슴을 쓰다듬는 인간애가 굽이치고있는것이였다. 하기와 파괴하고 태워버리고 생명을 앗아가는것만이 전쟁의 전부는 아닌것이다.

더구나 침략자를 내몰고 조국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나는 신성함이 간직되어있는것 같은 어머니의 어진 모습을 가슴속에 새겨두려고 다시금 감동에 찬 눈길로 곁탐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평범하고 소박한 이 나라 녀인들의 강직하면서도 숙부드러운 성정에 얼어들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것 같았다.

드디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잠시동안이었지만 갑갑증을 덜어준 나를 바래워주고싶은지 적재함가까이로 다가섰다.

부릉거리는 차소리속에 분대장네 마을이름이 피뚝 떠올라서 나는 서두르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방에 쌍학골이라는 마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 내가 바로 거기서 살아.》

《그래요?! 그럼 우리 분대장을 알겠군요. 박중기 라구...》

차가 떠났다. 나는 차가 떠나는 서늘에 꼬꾸라질 번하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못뺐다.

《뭐? 중기? 개가 내 아들이야! 아들!》

어머니는 몇걸음 따라오며 소리쳤다.

《어머니!...》

나는 반갑고 기쁜 나머지 큰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는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는새 차는 이미 속력을 내기 시작하여 우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었다.

어머니는 허둥거리며 차뒤를 쫓아오면서 뭐라고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마도 내가 자기의 말을 듣지 못했을가봐 안타까와 그러는것 같았다.

《며칠후에 집에 들리겠습니다.》

나는 덜렁거리는 차우에서 어머니가 듣지 못하리라 생각하면서도 입에 손나팔을 해대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손자애의 손을 잡고서서 자동차가 산속으로 들어설 때까지 움직일념을 안했다.

차가 속력을 낼수록 어머니의 모습이 더 우렷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기 아들생각만 한다고 분대장을 잠시나마 섭섭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어처구니없이 여겨지었다. 그리고 데려온 아이를 티없이 키우려고 애쓰는 분대장과 그 안해의 지극한 정성에 가슴이 후터워왔다.

그로부터 며칠후 나는 모범전투원들의 경험교환회를 마치고 돌아가는길에 분대장네 집에 들렀다. 어머니와 만났던 십자길에서 서쪽길로 50여리 더 들어가서 오솔길로 갈라져 맨처음 나타나는 동네가 쌍학골이라는 분대장의 고향마을이었다. 도처 청산이라더니 첫눈에도 내 고향처럼 살기 좋은 고장 같아보였다.

쌍학골마을변두리를 흐르는 개울을 거슬러 장바한기장쯤 올라가니 밋밋한 산락을 깎아내리고 지은 반토굴집이 나를 맞아주었다. 생소한 집이었지만 아녀자들의 손끝에 다스려진 다감한 느낌이 들었다. 추녀를 따라 한창 기여오르는 박년출이 가슴에 찔러트린 파문을 일구며 토배기민요의 가락들이 숨배인 고향에 대한 오만가지 생각을 불러왔다. 밀착해오는 향수가 어쩔수없는 밀물처럼 가슴에 흘러들었다.

내가 떠난온 고향집지붕에도 박년출이 덮었을것이다.

거기에 박꽃이 하얗게 피고 희끗희끗 박이 누울것이다. 문득 안해의 성화에 못이겨 박을 찢어보던 생각이 났다. 난생처음 마련한 집에서 난생처음 박

년출을 올린 안해는 사흘이 멀다하게 나를 지붕에 올려보냈었다. 박이 얼마나 굳었는지 바늘로 찢어보라는것이였다.

나는 안해가 눈을 깜박거리며 이상스러워하는것이 재미가 나서 크고 잘 익은 박을 찢어보고는 바늘이 쭉쭉 들어간다고 말하고 조마구만한 물렁물렁한 박은 바늘끝도 안들어간다고 환성을 올리곤하였다. 안해는 머리를 가울거리면서도 기뻐 어쩔줄 몰랐다....

반토굴집뜨락은 해빛만 쟁글거릴뿐 고요했다.

《아주머니 제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재차 불렀으나 여전히 기척이 없었다. 여름문을 꼭꼭 닫은것을 보니 아무도 없는 모양이였다. 하긴 공장에 나갔을테니까...

배낭을 벗어놓으려고 토방앞으로 스적스적 다가가던 나는 문앞에 자그마한 검은색운동화가 한켠에 놓여있는것을 발견하고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아하! 할머니가 이야기하던 그 운동화로구나!)

나는 한참이나 운동화를 내려다보다가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뒤집어보았다. 아닐세라 28문이었다. 흰 운동화와 검은 운동화, 정말이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신발들이였다.

집전너편 둔덕의 밤나무가지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듯 청아한 밀화부리소리가 들려왔다. 어쩐지 가슴이 찢릿했다.

데려왔다는 소년이 집에 있는것 같았다.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신칙을 했거나 흰 운동화를 빼앗긴 《항거》의 표시로 바깥출입을 단념했을지도 몰랐다.

아닐세라 바라지에 문은 손바닥만한 유리창으로 박을 내다보는 머루알같은 눈이 보였다.

《내다보지만 말구 어서 나오너라. 덤지두 았니. 난 네가 선돌이 동무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러자 머루알눈마저 사라졌다. 괴괴했다. 아마 문을 열어줄것인가 말것인가 곰곰히 따져보는것 같았다.

잠시후에야 바라지가 빠금히 열리고 사내아이가 조심조심 얼굴을 내밀었다.

토방에 배낭을 벗어놓고 일어서다가 겁에 질린 그 소년의 얼굴과 마주친 찰나 나는 그만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듯 온몸이 굳어졌다.

아니다. 착각이다.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하던 소원이 환각으로 나타난것이다.

나는 뉘살을 뺐은것 같은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느라 애쓰며 얼없이 사내아이의 애잔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해반주그레한 얼굴, 진한 고무머리...

《아!...》

(아니야. 이럴수 없어. 내가 꿈을 꾸고있는거야. 꿈...)

아무리 바라보아도 사내아이는 다름아닌 수남이였던것이다.

어망쳐망한 양화에 여기가 질려 아들의 얼굴도 반토굴집도 어리어리하더니 끝내는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사정없이 무두질하는것 같았다.

안해가, 수남이 엄마가 죽다니...

동사군담지 않게 해말썽한 안해의 얼굴이 뿌연 눈앞에 어른거렸다. 며칠전에도 안해의 편지를 받지 않았는가.

올해에도 박꽃이 지붕을 짝 덮었는데 수남이가 내대신 지붕에 올라가 바늘로 박을 찔러보겠다고 베틀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수남이도 나를 닮아 굳은 박은 바늘이 쑥쑥 잘 들어간다고 하고 무른 박은 바늘이 안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할것 같다고 썼다. 정말이지 자자구구 정이 흘러넘치는 편지였다.

그런 안해가 어떻게 죽을수 있단 말인가. 나를 두고, 수남이를 두고 먼저 갈수 없는 녀인이 아닌가.

《왜 왔나요?》

귀에 들리기보다 온몸통이에 전율을 일으키는 비명같았다.

수남이는 아직도 내가 바라지를 잡아채지나 앉을가 하는 위구를 품은 혼란된 시선으로 나를 더듬었다.

《네가 보구싶어 왔다.》

그래도 그는 곁을 주지 않았다.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때이르게 들썩워진 재앙이 지능활동에 속박의 굴레를 씌우고 발랄한 동심마저 자갈을 물린것 같았다. 그것이 내 가슴을 단근질해대는것이였다.

《수남아! 나를 모르겠니? 아버지다!》

뜻을 가진 말이라기보다 슬픔에 짓물린 사람의 울부짖음이었다.

수남이는 자기에게도 아버지를 만나는것과 같은 행운이 차례진다는것이 못내 믿어지지 않는듯 점도록 어리멍청하니 나를 바라보고나서야 품에 안겼다.

《아버지!》

간여린 아들의 부르짖음은 응축된 슬픔의 폭발이였다. 수남이는 광폭한 홍수에 떠밀려내려가다가 나무그루터기를 불안은채 숨진 수난자처럼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내 허리를 휘감은 팔을 바이스처럼 조였다.

마치도 피할수 없는 용암의 분출이나 빙하의 범람으로 순간에 굳어진 화석처럼 우리 부자는 한덩어리가 되어 떨어질줄 몰랐다.

발밑에서 포탄이 작렬한데도 우리는 결코 떨어지

지는 않았을것이다.

한참만에야 우리는 서로 꺾쇠처럼 박았던 팔을 풀었다. 두 얼굴이 다 눈물범벅이 되였다. 안해를 잃은 내가 더 슬픈지 어머니를 여윈 아들이 더 슬픈지 알수 없었다.

《애야, 울지 말아...》

내 말은 눈물을 더해줄뿐이였다. 하지만 그속에는 어떤 값싼 동정이나 위안도 용납하지 않는 심장의 몸부림이, 그 누구에게도 짓밟힐수 없다는 병사의 자존심이 울리고있었다.

밀화부리가 슬픔을 누비듯 추연하게 울었다.

그전같으면 나에게 바싹 다부닐며 배낭을 들추었겠으나 비실비실 눈치만 보는 수남의 행동이 상실의 아픔을 덧치며 가슴을 비틀어찼다. 몸이 아니라 녀이 떨렸다.

저녁무렵 공장에 나갔던 분대장의 아주머니가 돌아왔다. 이목구비가 단아하고 성정이 순박하면서도 강심이 있어보이는 녀인이였다. 분대장이 말끝마다 안해는 눈으로 고를것이 아니라 귀로 골라야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옳은것 같았다.

그는 불타는 쌀가마니들을 메어나르던 내 안해의 용감무쌍한 행동에 대하여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아츠러운 비행기소리며 고막을 찢는 기총사격소리속에 옷에 불이 당긴것도 모르고 쌀가마니에로 육박하는 안해의 모습이 보이는것 같았다. 어머니에게서 초벌 들었으나 다시금 가슴에 시퍼런 칼날이 서면서 비분강개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한동안 마음을 진정하고나서야 나는 배낭을 끄르고 분대장이 준 돈으로 구한 흰 운동화를 꺼내놓았다.

아주머니는 환성을 올렸다. 금덩이라면 이보다 더 반가와하랴싶었다.

《야! 28문이군요! 수남아, 어서!》

아주머니는 마주 싸맸던 두짱을 갈라 끈을 꿰주었다.

수남이는 생기가 도는 눈으로 아주머니와 나를 번갈아보며 알릴듯말듯 미소를 짓더니 갈증에 시달린 사람 물사발 덮치듯 신발을 덥석 끌어안았다.

나는 흐트러진 아들의 동심을 모아 정돈해줌으로써 거칠어진 병사의 가슴에 기쁨을 선물하고싶은 충정으로 가득찬 아주머니의 인품에 마음이 부시여 아무 말도 못했다. 운동화를 신은 수남이의 발가락들을 눌러도 보고 이리저리 매만지며 살펴보는 그 다감한 손길은 죽음의 계선을 단골집 드나들듯하며 중오를 쟁인 나의 눈에 쇠물방울과 같은 눈물이 솟아오르게 하였다.

수남이는 아주머니의 어깨와 나의 어깨에 랑손을 얹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 자태는 마치도 세상이

제 발밑에 있노라는 배포였다.

나는 목이 짝 메여 아주머니에게 인사말 한마디 변변히 못했다. 그저 점도록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쓸뿐이었다. 그러는 우리를 처연한 눈길로 바라보는 아주머니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억지로라도 기분을 전환시켜야 했다.

《어머니의 말이 아주머니가 분대장동무와 짜구 자기를 속였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뜻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를 속이다니요?》

아주머니는 천만뜻밖인듯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나는 며칠전에 어머니에게서 들은 편지이야기를 꺼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다.

《그럼 어머니가 무엇인가 오해했군요.》

혼자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며 스쳐버리려는데 아주머니는 농작문을 열더니 편지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별로 오해할것두 없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표정이었다.

《혹시 비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편지가 좀 특수하게 씌여졌달뿐이지 비밀은 없어요.》

아닌게아니라 나는 여태 이런 편지를 난생처음 본다. 앞머리의 문안을 빼버리면 그야말로 공식명령서나 동의서 같은 문건이었다. 하긴 이런것을 두고 전투적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

첫째로, 당신이 어머니를 잃은 사내아이를 데려온것은 아주 잘했소. 나는 당신의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남편으로서, 공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바요.

둘째로, 당신이 데려온 수남이라는 사내아이는 바로 우리 분대 전사동무의 아들같은 생각이 드는 구만. 집도 그 근방이요. 차마 물어보진 못했소. 그 동문 참 용감한 동무요. 지금도 습격전투에 나가있소. 어쨌든 그가 누구 아이든 아버지는 전선에 있지 않소.

셋째로, 우리 립석이가 터세를 부리며 수남이한테 못살게 굴어서 속이 상한다는 당신의 마음을 알만하오. 어머니가 지으면 면내의두 따뜻하지만 남이 지으면 털내의두 춥다는데 그 어린 마음이 여북 아프고 쓰렸겠소. 나 역시 가슴이 아프오. 립석이 녀석이 수남이가 신은 운동화를 빼앗아 신었다는 구걸을 읽었을 때 난 그녀석을 한대 쥐여박고싶었

소.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데 당신과 어머니가 어자어자하면서 너무 어루만진게 아니요? 의리없는 녀석이 될가봐 걱정이요.

넷째로, 나는 수남이를 구김살없이 키우기 위해 립석이를 외가집에 보내겠다는 당신의 결심에 찬성

이요.

물론 그럴 의무는 없지만 당신은 의무로 알고 시급히 선돌일 외가에 보내오. 조국의 명령으로 알고 말이요. 어머니는 잘 타이르면 리해할거요....》

편지는 다 읽었으나 분대장의 호담한 성품과 진정에 목구멍이 껍 메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정말 이 편지만큼 글자마다 애정이 고괘치는 글은 없을것이다. 분대장과 아주머니가 작성한 이 아름다운 공동《작전》은 적 련대나 사단을 요정내는 어마어마한 작전에 비하면 극히 보잘나위 없지만 누구나 쉽게 짤수 없는 《작전》이었다.

피를 나는 혈육의 선을 넘어서기란 전선을 넘어서기보다 결코 혈한것이 아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머니를 속였다고 할만두 하군요. 아마 어머니는 수남이 아버지가 한 분대에 있는 전사같다는 소리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예요...》

정말이지 듣고보니 그렇게 된것이 분명했다. 내가 당했어도 달리는 생각지 않을것이다. 이런 필연과 같은 우연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는 자기를 속이는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모른척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짝 《작전》을 그대로 좇은 어머니에게 더욱더 머리가 숙어졌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수남이를 안고 밤을 지새운 토굴집을 나섰다. 수남은 2년전처럼 같이 가자고 매달리지 않았다. 제법 의젓하게 나를 바래주었다.

아주머니도 긴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외가집에 간 선돌이가 도망쳐오지는 못할것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었다. 떠나는 순간에도 아주머니는 내 마음속 어느 귀퉁이엔가 남아있을 슬픔과 근심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나는 병사의 일반적인 레절인 손바닥을 모자채양 모서리에 가져다대는것으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엄숙한 맹세는 없었다.

나는 선돌이 외가에 간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것이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아들과 한소대, 한 분대에서 같이 싸운다는 나를 다시 보면 얼마나 기뻐할텐가.

바로 이때였다. 내가 막 프락을 나서려는데 지평이를 짚은 어머니가 들어서는것이 아닌가.

《어머니!》

나는 얼어질듯 달려나가며 그를 부둥켜안았다.

《아이구머니, 저번날 만났던 군대로구만.》

다시는 보지 못할줄 알았던 사람을 만난듯 어머니도 기뻐 어쩔줄 몰랐다. 더우기 내가 아들과 같은 분대에서 싸우는 대원이라는것을 알고도 며칠동안 물어보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안타까움을 성급히 터놓았다.

《알지 않는단 말이지... 상한데두 없구...》

성미 급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것이라면 죄다알려고 덤벼쳤다.

어머니는 나의 말을 해면처럼 빨아들이며 시종혀를 찼다.

《참 이 정신 봤나.》

아주머니가 그때까지 들고있는 시어머니의 작은 보통이를 받아들려고 하자 어머니는 서둘러 그것을 풀었다.

《원래 사돈집에 가서는 여러날 목지 않는 법인데 내 이것때문에 나흘씩이나 있었다니...》

무엇이길래 그럴가 하고 보통이를 지켜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흘렸다. 하얀 운동화, 분명 선돌이가 신었던 그 흰 운동화를 꺼내는것이 아닌가.

《빈손으루 발길이 떨어져야지. 그래 얼리기두하구 욱두 했지만 말을 안들더니 오늘아침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벗어주면서 <이거 수남이 갖다줘.> 하지 않겠나. 참 녀석두... 자, 신어봐라.》

너무 기뻐 입이 함치박만해진 어머니는 신발을 수남이의 발앞에 놓으며 쪼그리고 앉았다.

《어머니!》

타오르는 불뭉치가 가슴이며 목구멍, 눈을 한꺼번에 지쳐대는것 같더니 뒤통지 눈귀가 젖어들었다.

《아니?...》

수남이에게 가지고온 운동화를 신키려던 어머니는 눈이 쾅해졌다.

수남이가 신은 똑같은 운동화...

아주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내가 수남이 아버지라는것도...

《넵고도 좁은것이 세상이라더니... 난 임자가 우리 아들네 분대에서 같이 싸운다구 편지온걸 믿지 않았다네. 이렇게 사실인걸 가지구...》

주름살이 퍼이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안해를 잃은 가궁한 나의 정상에 속이 넘어나는지 적삼고름을 눈귀에 가져갔다.

피를 준 어머니같이 간격이 없고 어딘지 모르게 신성함이 간직되어있는 어머니결을 떠나기가 섭섭했다. 세상에 어머니 대신할 어머니가 없다지만 친어머니면 에서 더하겠는가.

나는 그달음으로 돌아섰다.

중대에 도착한것은 이튿날 밤이었다. 마침 선발된 대원들이 습격전에 떠나려고 무기와 장구류들을 착용하고있었다.

삽시에 나를 둘러쌌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야 할 우리 분대장이 안보였다.

《소대장동지, 우리 분대장동문 어디 있습니까?》

통나무의자에 앉아있던 소대장은 대답대신 자기 숙주머니에서 네겅으로 접은 작은 종이쪽지를 꺼냈다.

《소환됐소. 소대장으루...》

《그래요?!》

정말이지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극진히 돌봐주던 형과 떨어지는것 같은 심정이였다.

《...비록 헤어진다고 하지만 수남이와 선돌이가 함께 자라고있으니 우린 승리할 때까지 한전호에서 싸우는것이나 다름없네.》

이렇게 끝난 분대장의 쪽지편지는 별반 새로운것이 없었지만 나에게 그 한마디한마디는 참으로 귀중하기 이룰데 없었다. 분대장의 텅텅하고 후더운정이 나의 서운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것 같았다. 정말이지 분대장과 그의 안해와 어머니, 지어는 철모르는 그의 아들에게서 나는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절절히 느꼈다. 바로 그것이 적들앞에 우리 병사들을 성벽으로 솟아오르게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서둘러 장구류들을 휴대하고 습격조원들이 정렬한곳으로 갔다.

...

지금도 나는 그때 수남이가 신었던 흰 운동화를 잊지 않고있다. 그것은 분대장과 그의 안해, 어머니와 선돌이 그리고 내 마음이 응결된 결정체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여 싸운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 그리고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꽃핀 동지적사랑이 빛나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힘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흰 운동화라... 더듬어보니 결코 작은 이야기는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이 이야기와 함께 온 나라에 피어나는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대한 미풍을 보면서 항일의 그날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이 전통은 무수한 세월을 넘는다 해도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을것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더더욱 붉게 꽃피여날것이라는것을 굳게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어 사람다운 생활과 참다운 행복을 체험한 우리 인민들은 조국이야말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한 목숨바쳐 보답하는것이 옹당한 도리라는것을 가슴깊이 자각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영웅전사의 금별은 빛난다

리수덕

하늘에 태양이 있어 우주의 무한대한 공간속에 수억만개의 별들이 찬란한 빛을 뿜듯이 우리 인민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어 우리의 삶은 그로록 아름답고 값높은것으로 빛나는 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의 중기관총화점을 몸으로 막아 부대의 공격로를 열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대원이었던 김병모동무가 40년세월이 흘러간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속에 영웅의 금별메달 빛내이며 영생의 언덕우에서게 된 전설같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고동치게 해주는 것인가.

격전전야의 밤

전승의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던 1953년 7월중순의 어느 저녁이었다.

푸른 파도 설레이는 동해를 지척에 굽어보며 해안선을 따라 연연히 뻗은 전선동부의 상처입은 고지들에 는 최전선담지 않게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고있었다. 폭풍전야의 정적이었다.

방금전까지도 미제공중비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해적들의 함포사격으로 초연이 가실길 없던 전호가를 거닐던 김병모는 아직 화약내, 그을음내 풍기는 고지릉선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벌써부터 집에 질린듯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골짜기에 탐조등불빛을 휘둘러대고 조명탄을

연방 쏘아올리는 339고지의 적진을 굽어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어제 대대부에 올라갔을 때 사단의 정치일군이 당세포위원장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다.

《지금 미제는 우리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에 의해 〈신공세〉 기도가 파탄되자 어떻게 해서라도 〈영예로운 정전〉을 실현해보려고 교활하게 잔꾀를 부리면서 우리의 후방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과 지상전연부대의 공격을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소. 그러나 어렵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의 간계를 손금처럼 헤아리시고 최근 한달남짓한 사이에만도 놈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도록 우리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소. 승리의 날, 전승의 날은 눈앞에 있소.》

김병모가 전선 동부와 중부를 비롯한 전전선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이 두차례의 강력한 타격으로 원수들을 패망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몰아넣고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중대의 당원들과 전투원들은 얼마나 통쾌해했던가.

《승리의 날이 멀지 않다. 전승의 날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웨친 김병모의 눈앞에는 기쁨과 환희에 넘칠 그날의 화폭이 금시 안겨오는것 같았다.

지금 그도 그 어느 초소에서 싸우고있을 사랑하는 녀동생 춘화와 함께 앞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와 안해, 귀여운 아들 영철이와 영달이 그리고 동네이웃들이 그 얼마나 반갑

게 맞아줄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상념은 줄기와 아지를 뻗치며 못잇을 지난날에로 끝없이 이어져갔다.

수난했던 일제통치시기의 그 암담한 시절 김병모동무는 황초령너머 장진호반 기슭의 궁벽한 산골마을에서 화전농의 맏이로 태어났다.

집살림이 얼마나 쪼들게 가난했던가하는것은 다섯남매의 입에 풀칠하지조차 어려웠던 그의 부모가 둘째 딸 춘화를 《자식숙음》을 해서 남한테 주었던 사실과 그리고 토스레옷 한벌 변변한게 없던 김병모가 장가들 때 부자집의 두루마기를 사정 사정해서 빌려입었다가 결혼식도 끝나기전에 찾아가는통에 어차피 아버지의 허름한 토스레옷을 입고 혼례식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눈물겨운 사연을 상기하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은 이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김병모의 가정에도 천지개벽과도 같은 전변을 가져왔다. 아버지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땅의 주인으로, 로동당원으로, 리인민위원회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김병모도 마을의 당세포 부위원장으로 건국사업에 온갖 정열을 다 바쳐가며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 앞에 허다한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김병모동무는 당조직의 지도와 방

조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깊이 체득하는 과정에 자신이 지켜야 할 혁명초소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되었다.

(조국의 절반땅에 미제가 남아있는 한 우리의 행복은 결코 안전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바다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내 나라, 진정한 인민의 주권, 우리의 행복을 어찌 잠시인들 원수들에게 빼앗길수 있단 말인가.

아버이수령님의 건군사상을 받들고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 서자.) 김병모동무는 마침내 1948년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다.

《동사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담게 군사복무를 착실히 하거라.》

《어디에 가든 장진호반 얼음판위에 놓인 감자썩갈던 우리 인생을 건져준 그 은정을 잊지 말거라.

그럼 너한테서 기쁜 소식만 오길 기다리겠다.》

이것은 황초령고개까지 따라나와서 그를 바래주며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당부였다.

김병모동무는 평양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나날에 그 누구보다 전투정치훈련에 성실히 참가하여 직심스럽게 군사를 배워나갔다.

그러던 김병모동무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발발되자 진격하는 대오와 함께 전선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가렬한 싸움의 나날에 당세포위원장 이 뮌 그는 언제나 이신작치의 모범으로 전투대오의 앞장에서 전사들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휘관들과 전우들의 두터운민음과 사랑을 받고있었다.

위낙 목청이 류창한 《고을가수》로 노래를 잘 부르는데다가 옛말과 우스개말도 곧잘하여 《팔방미인》이라는 애칭까지 지닌 그는 전투의 여가나 행군중 휴식참이면 늘 인기가 대단했다.

땅거미진 고지통선에 서서 점도록생각에 골몰하던 김병모동무는 뒤에서 누가 찾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야, 세포위원장동지, 여기 계시는걸 한참 찾아다녔군요.》

아직 복숭아털이 까시시한 민청원

인 중대의 막내동이 김시현이 제법 가쁜숨을 쉬며 하는 말이었다.

《왜 무슨 일이 생겼소?》

《아 지금 중대오락회가 벌어졌는데 세포위원장동지가 없으니 영 개판이라면서 꼭 찾아오래서...》

《며칠밤을 전투로 꼬박 새웠는데 오늘은 좀 일찍 눈을 붙이라구 하지 않았소.》

《당세포위원장동지의 그 명창을 듣기전엔 잠을 못자겠다지 않아요.》

김병모동무에게는 기쁜 때건 피로울 때건 자신을 찾아주는 전우들이 무뎀 미덥고 고맙게 여겨졌다.

그는 성큼 자리를 떴다. 김시현을 앞세우고 그가 갯도에 들어서자 빈 탄약상자를 겹쌓아놓은곳에 커놓은 탄피등불을 중심으로 병실에 빙 둘러앉거니서거니 했던 전우들이 제법 열렬한 박수로써 그를 맞이했다.

《노래반주는 제가 말지요.》

역시 애송이민청원인 황용성이 화선악기인 기타를 들고 당세포위원장 앞으로 한걸음 나서며 하는 말이었다.

《자, 이렇게 조급하다구야. 콩밭에 서술치겠군. 나무 한숨 돌리구 또 발성런습도 해야 할게 아니요.》

본시 락천적이고 소탈한 성미인 김병모동무는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계속되는 전투로 겹친 전우들의 피곤을 한바탕 웃음으로 가셔주려는듯 이렇게 말폭지를 폐고나서 제법 전문성악배우의 흉내를 내며 《도-미-솔-미-도》하고 계명으로 발성런습을 했다. 노상 시치미를 따고 몸짓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방불하고 웃음에 겨웠던지 갯도의 병실안엔 《와하하》 하고 폭소가 일었다.

이윽고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가 시작되었다.

구름도 쉬여가는 황초령 넘고넘어 천고의 푸른 밀림 설레는곳에
고원의 바다런가 장진호반 펼쳐졌네
아, 여기는 내 고향 경치만 좋던가
살기도 좋아

그 옛날 화전민의 한숨소리 높았던만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소리 높다오아, 여기는 내 고향 경치만 좋던가
살기도 좋아

민요가락에 가사를 붙인 이 노래는 그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로서 오락회때마다 늘 선창으로 부르곤하는 《지정곡》이었다.

박수, 재청 또 재청... 노래가 어언 네번째곡에 이르렀을 때였다. 중대직일병이 상급에서 달려온 연락병을 안내하여 다급히 들어와 중대장과 문화부중대장을 찾는통에 오락회의 흥취는 한결 식어졌다. 그대신 그 어떤 긴급정황이나 새 전투 임무의 하달을 예감케 하는 연락병의 출현을 놓고 전사들의 가슴가슴은 벌써 커다란 흥분과 기대, 호기심에 사로잡혀 열뜬 마음들이었다.

《됐어, 드디어 통쾌한 결전의 시각이 온것 같애. 지금까지 《전사참모부》의 이 《예견참모》의 판단은 한번두 빗나간적이 없거든.》

《습격 전투가 제기되는게 안야?》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제나름의 생각을 주고받는데 연락병을 떠나보내고난 중대장이 직일관에게 전사들을 취침시키라는 지시를 주고나서 소대장들과 몇몇 초급지휘성원들을 중대부로 불러들였다.

(무슨 일인가? 어떤 긴급임무가 하달된것일까?)

전사들은 침실로 흩어져가면서 저저마다 금급한 마음들이었다.

공개당세포총회 결정서

과연 《전사참모부》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김병모동무가 속해있던 중대 앞에는 전선동부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339고지에 대한 아군보병들의 공격전투에 앞서 통로를 개설하고 적화점을 파괴할 전투명령이 하달되였던것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351고지와 골짜기 하나를 사이두고 솟아있는 339고지는 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피고있었다.

아군이 이 고지를 차지하면 적들을 몇키로메터나 더 남쪽으로 일축해버릴수 있었으며 만약의 경우 적들이 이 고지에 계속 등지를 틀고있으면 앞으로 놈들에게 아주 유리한 국면이 열릴수 있었다.

하기에 이미 한달전인 6월 2일에 《불락의 요새》라 자처하던 351고지를 단 15분동안에 아군한테 빼앗긴 원썬놈들은 339고지라도 기어이 견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었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벌어질 불의의 공격전이었단만큼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통로개설을 전투임무로 받아안은 중대의 모든 전사들은 만만 한 투지에 넘쳐있으면서도 은연중 긴장되어 있었다.

누구보다 어깨가 무거워진것은 중대장 림명수동무였다. 그는 하달된 전투명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을 보다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3개의 통로개설조를 조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빈틈이 없어 언제나 믿음이가는 당세포위원장 김병모동무를 제3조장으로 임명하였다.

어렵고 힘든 전투임무수행에 자신을 앞세워준것을 당의 믿음, 조국의 믿음으로 뜨겁게 받아안은 김병모동무는 무등 기뻐다.

그는 자신과 한조가 된 당원 정주호동무에게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구체적인 과업을 주고나서 병실로 돌아와 배낭속에서 당세포일지를 꺼냈다. 통로개설전투를 앞두고 곧 열어야 할 공개당세포총회 준비를 서둘러야했던것이다.

벌써 마음속에 깊이 새겨온 구절구절을 보고서야 결정서에 옮겨적으려고 급히 당세포일지를 번지던 김병모동무는 갈피속에서 한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며칠전에 사랑하는 동생 춘화가 보내온것이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16살 어린 나이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특수정찰조에서 복무하고있는 동생은 자기의 편지에서 얼마전 적련대장의 녀동생으로 가장하고 적진속에 들어가 중요한 자료를 정찰해옴으로써 아군의 작전에

도움을 준 사연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있었다.

김병모동무는 곧 회답편지를 쓰리라 마음먹었지만 계속되는 전투로 하여 좀처럼 시간을 낼수 없어 차일피일 오늘까지 미루어온터였다.

(내 오늘전투를 성과적으로 치르고나서 꼭 회답편지를 보내주마. 우리의 자랑찬 전과에 대한 소식과 함께...)

그는 동생의 편지를 일지갈피에 다시 넣어두려다가 그것을 자기의 군복주머니에다 소중히 접어서 넣었다. 사랑하는 동생의 손길과 숨결이 배여있는 그 편지를 몸에 간수하고 통로개설전투에 나서면 마치 동생과 함께 있는듯 마음이 한결 더 든든해질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김병모동무는 탄피등불심지를 둔구어놓고나서 공개당세포총회보고서와 결정서를 준비해나갔다.

공개당세포총회는 갱도의 그중 넓은 병실에서 열렸다. 당원들이 앞자리를 차지했고 그뒤에 민청원들, 비당원들이 앉았다.

김병모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아군부대들의 이번 제3차의 강력한 타격전이가지는 정치군사적의의와 중대앞에 나선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나서 자신의 비장한 결심을 이렇게 피력했다.

《해방전에 나는 화전민의 아들로서 토스레웃 한벌 제대로 몸에 걸치지 못한 거지 아닌 거지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늘은 조선로동당원으로,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해방된 조국이 없다면 과연 내 처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당세포위원장으로 이번 통로개설전투에서 한몫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의리, 조국의 아들된 도리를 다할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불을 토하는듯한 김병모동무의 토론에 이어 당원 정주호, 민청원 김시현, 황용성 동무들이 련달아 일어나 심장의 맹세를 다졌다.

공개당총회의 마지막순서로 이번엔 당세포위원장인 김병모동무가 결

정서를 읽었다.

《첫째, 근위사단의 영예를 끝까지 고수할것.

둘째, 탄약을 다 사용하여도 적의 화점이 멎지 않으면 육탄으로 막을것.

셋째, 지뢰때문에 적화점에 접근하기 곤란할 때에는 먼저 나가던 동무가 지뢰우에 누워 폭발시킨 다음 그다음 동무가 시체를 덮고 나가서 임무를 수행할것.》

당세포위원장이 읽어나가는 결정서의 자자구구에는 필사의 각오가 력력히 깃들어 있었다.

근엄한 빛으로 결정서의 한구절한구절을 귀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회의참가자들의 가슴가슴에도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전에서 한목속 다 바쳐갈 맹세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었다.

드디어 7월 16일 밤, 339고지점령을 위한 돌격전이 개시되었다.

공격전은 아군의 맹렬한 포병화력의 지원밑에 339고지 우측에 있는 345.4고지에 대한 공격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군의 불의의 돌격전에 넋을 잃은 원썬놈들은 345.4고지에 무수한 시체를 남긴채 뺄소니를 쳤다. 하지만 김병모동무네 중대의 통로개설조가 진출한 339고지에 대한 공격전은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쳐 애를 먹고있었다.

한것은 그날밤 후방으로부터 막대한 력량을 새롭게 이 고지에 들이민 적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곳을 견지해보려고 집요하게 날뛰었던것이다.

게다가 고지기슭으로부터 고지점점으로 올라가는 참호와 참호들사이에 원형철조망과 지뢰들로 조밀한 차단물체계를 만들어놓고 증기관총화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는 때없이 미친듯 불을 뿜어대므로 도무지 발붙일수가 없었던것이다.

당세포위원장 김병모동무는 당원 정주호동무와 함께 맑은 통로개설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 머리를 들수 없는 탄우속에서도 지뢰와 철조망을 하나하나 해제해나갔다.

드디어 고심참담끝에 통로가 개설되자 김병모동무는 쏜살같이 고지릉

선을 향해 내달렸다.

그런데 이 순간 그는 우측과 좌측 룡선에 배치된 적중기화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놈들은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한듯 고지밀을 향해 발악적으로 불질을 하고있었다.

중오에 찬 눈길로 적화점을 노려보던 김병모동무는 반전차수류탄을 뽑아들고 불뿔는 적화점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배밀이해갔다.

이윽고 투탄거리까지 접근한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수류탄을 거머쥔 그의 억센 팔뚝이 반원을 그리면서 힘있게 앞으로 내뻗자 요란한 폭음이 고지를 들었다놓았다.

오른쪽의 적중기관총화점은 단번에 명중되어 요정나고말았다.

폭연과 흠먼지가 채 사라지기도전에 다시 몸을 일으켜세운 김병모동무는 이번엔 왼쪽의 적화점을 향해 내달렸다.

놈들은 그때에야 화점가까이에 습격조가 접근했음을 간파했던지 김병모동무가 있는쪽을 향해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등걸과 바위너럭에 의지하여 몸을 숨겼다. 기회를 엿보다가 한참만에야 억측 룡선을 타고 적화점에 접근한 김병모동무는 마지막반전차수류탄을 힘껏 던지었다.

《파르릉!》

고지를 쪼개어놓는듯한 굉음과 함께 적화점은 검붉은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 한순간 파괴한 정적이 깃들었다.

(성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고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적화점은 다시 미친듯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땅에 엎드린채 독사의 혀처럼 물줄기를 날름거리는 적화구를 노려보는 김병모동무의 뇌리속에 천만가지 못잇을 사연들이 되살아났다.

고원의 바다이런듯 은물결, 진주의 물결 설레는 장진호반 기슭에 정가로이 자리잡은 추억많은 고향집이며 지금쯤 감자꽃이 한참 필 고향의 더기밭을 가꾸느라 구슬땀 흘릴 아버지, 어머니와 사랑하는 안해 그리고 할머니와 제 어미의 치마폭에 성가시게 물어다닐 아들 영철, 영달이,

영호의 모습이 팔을 뻗치면 손에 닿을듯 방불히 안겨왔다.

그가 조국보위초소를 향해 떠날 때 황초령까지 따라와서 《어디에 가든 장진호반 얼음판우에 놓인 감자싸갈던 우리 운명을 건져준 그 은정을 잊지 말거라... 너한테서 기쁜 소식만 오길 기다리겠다.》며 곡진한 당부로 바래주던 아버지, 어머니의 정겨운 그 목소리도 금시 귀전에 울려오는듯싶었다.

뒤이어 그의 뇌리에는 바로 어제 전투에 앞서 열린 공개당세포총회의 결정서 한구절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그것은 당세포위원장인 김병모 자신이 직접 쓰고 당원들과 중대전투원들 앞에서 읽은 피의 맹세였다.

《...둘째, 탄약을 다 사용하여도 적의 화점이 멎지 않으면 육탄으로 막을것.》

그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오르는것 같은 강렬한 충격을 느꼈다.

(저놈의 화점에 자갈을 물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군의 공격이 좌절된다. 귀중한 혁명전우들이 희생된다. 아니, 원수들이 내 고향, 내조국을 피로 물들이고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게 될것이다.

그렇다, 조국의 아들된 도리, 당세포위원장의 의무를 다할 때는 왔다.)

여기까지 생각한 김병모동무는 불사신마냥 땅을 차고 일어나 적화점을 향해 육박해가며 목청껏 웨쳤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산발과 산발들에 메아리치는 만세소리와 함께 김병모동무는 자기 몸으로 적화점을 덮으며 중기관총신을 두손으로 억척스럽게 틀어잡았다.

이때 339고지 정면과 우측을 차지하고있던 인민군전사들이 승리의 만세소리 높이 부르며 고지우로 치달아올랐다.

드디어 339고지는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전사들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되게 되었다.

승리한 고지우에 푸름푸름 새날이 밝기 시작했다. 이때 고지를 수색하던 근위병들은 가슴뜨거운 광경앞에 목이 메었다.

후미진 고지 룡선의 적화점에서 아직도 적의 중기관총신을 틀어친채 쓰러져있는 당세포위원장 김병모동무를 발견하게 되었던것이다.

《당세포위원장동지!》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승리했는데 이렇게 가신단 말입니까. 전승의 광장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뵈옵자고 우리 함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중대전투원들이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아무리 애타게 불렀지만 김병모동무는 대답 한마디 없었다.

전우들은 김병모동무의 손에서 적중기관총을 겨우 풀어냈다. 37발의 총탄이 뚫고나간 그의 온몸엔 붉은 피가 질벅했다. 피에 젖은 그의 당중에도 3발의 총탄자국이 나있었다.

문화부중대장은 김병모동무의 군복옷주머니에서 한장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의 동생이 보낸 것이었다.

승연한 마음을 안고 그 편지를 이윽도록 지켜보던 문화부중대장은 긴 봉투속에서 속지를 꺼내며 펼쳐들었다. 거기엔 이런 글발이 적혀있었다.

《...사랑하는 오빠! 전승의 축포가 평양의 하늘가에 천송이 만송이 꽃으로 수놓아질 영광의 그날은 멀지 않았어요. 승리의 그날 열병식장에서 우리 서로 만나자요. 그다음 우리 함께 고향으로 가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랑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형님은 오빠를 불렀고 막 울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든 문화부중대장의 눈굽에도 곁에서 그 편지를 눈으로 읽는 전우들의 얼굴에도 뜨거운 이슬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날 양지바르고 안침진곳에 김병모동무를 안장할 때 문화부중대장은 분묘앞에 엄숙히 서있는 전투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병모동무는 조선인민군의 평범한 전사로서, 우리 당의 한 당세포위원장으로서 중대의 당원들과 전투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목숨으로 옹위하도록 이끄는데서 언제나 모범이였습니다.

더우기 그가 공개당세포총회의 결

정대로 돌격하는 대오의 나팔수가 되고 기수가 되어 보여준 고귀한 희생정신과 이신작적의 숭고한 모범은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바친 혁명전사의 심장은 영원히 멎지 않습니다.》

영생의 언덕우에

전승의 날을 열흘 앞두고 벌어진 전선동부 339고지탈환전투때 김병모동무가 적화점을 몸으로 막아 부대의 공격로를 열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그날로부터 40여년 세월이 흘러간 지난 4월초순의 어느날이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김병모동무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이 모임에 참가한 김병모영웅의 자녀들과 친척들의 가슴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한량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으로 뜨겁게 설레고있었다.

사실 영웅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있었다.

전사자가족들을 혁명의 핵심으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후덕게 받아안고 이미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 맏아들 김영철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인민무력부의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고있고 막내아들 역시 조선인민군 해군대위로 조국의 바다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위낙 김병모동무가 전쟁의 포연을 헤치며 싸울 때 애송이들이었던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전사공로에 대하여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뜬금으로 들으며 자랐을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있었다. 어머니가 장농속에 붉은 천으로 고이 싸서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국기훈장 제1급이 준엄한 전쟁때 조국을 위해 바친 아버지의 충정의 전부라고만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 온 조국땅 전체 인민들의 운명을 따듯이 보살피시는 그 다망하신 나날에도 이미 우리의 결을 떠나간 혁명전사들과 그 자녀들의 운명마저 깊이 헤아리시고 다심한 사랑과 깊은 은정을 다 기울여주신다.

지난 2월의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당 일군들을 통하여 전쟁참가자들, 전사공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자료들을 료해하시다가 김병모동무의 전투공로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고 그의 소행과 당사업경험을 널리 소개 일반화하도록 해주셨었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결을 떠난지 어언 40여년 긴세월이 흘러 그의 친자식들이나 친척들의 추락속에나 평범한 전투공로자로 어설픈채 남아있던 이름없는 혁명전사마저 육친의 사랑으로 안아일으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영생의 언덕우에 세워주시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시다.

하기에 김병모동무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있는 바로 그날 영웅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동생 김춘화는 오빠의 영웅메달을 소중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빠! 오늘은 오빠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넓은 품속에서 공화국영웅으로 두번다시 태어난 뜻깊은 날이예요.

아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오빠를 내세워주시었어요. 오빠! 오빠는 결코 우리결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나라 인민들이 은정의 빛발속에 소생한 오빠의 모습을 보고있어요.

오빠는 공화국영웅으로 천만사람들과 숨결을 같이하고있단 말이에요.》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사랑은 40여년 긴긴 나날 세월의 눈비에 가리웠던 영웅전사의 금별도 가려내어 신비로운 각광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다.

그렇다. 무한대의 열과 빛을 뿜어 이 세상 만물에 생을 주는것은 태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기에 복받은 우리 인민에게는 오늘의 보람찬 삶과 영광이 꽃피고 래일의 보다 큰 행복이 약속되어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역사유적 소개

을밀대

을밀대는 고구려시기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다시 지은 루정이다.

을밀대는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에 있다.

을밀대는 6세기중엽 고구려 평양성의 내성을 쌓으면서 그 북장대로 세운것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1714년에 고쳐지은것이다.

그러나 을밀대의 높은 축대만은 오늘까지도 고구려의 축성술을 자랑하면서 솟아있다. 약 11m 나 되

는 축대는 뒤뿌리가 길게 4층형으로 다듬은 화강석으로 정교롭게 쌓아올렸다. 축대우에 있는 루정은 앞면 3칸(7.46m), 옆면 2칸(5.29m)에 2익공바깥도리식두공을 엮고 겹처마에 합각지붕을 이었다. 을밀대는 나무조각 장식들이 특히 우수하다.

을밀대는 우리 나라 옛루정을 대표하는 루정 하나이다.